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한국의 학(鶴) 문화를 응용한 작품연구
-울산학(鶴)춤과 김언영의 '금빛 날갯짓' 연작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rane Culture in Korea
- Based on the Ulsan Crane Dance and Kim Eon-young's series of 'Golden Wings' -

울산대학교 대학원
텍스타일패션디자인학과
김 언 영

한국의 학(鶴) 문화를 응용한 작품연구
-울산학(鶴)춤과 김언영의 '금빛 날갯짓' 연작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언 배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年 11月

울산대학교 대학원
텍스타일패션디자인학과
김 언 영

김언영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김이형 (인) 

심사위원 김언영 (박인) 

심사위원 김시원 

울산대학교 대학원

2022年 2月

목 차

표 차례	i
그림 차례	ii
국문 초록	vi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방법	2
II. 학(鶴)과 전통문화	3
1. 동양의 학(鶴)과 전통문화 비교 고찰	3
2. 한국 전통문화와 학(鶴)	9
3. 울산지역 학(鶴)에 대한 고찰	14
3-1. 역사적 배경	14
3-2. 울산의 학(鶴)과 문화	16
III. 작품의 구조분석 및 의미해석	23
1. 연구자의 출생과 성장배경	23
2. 작품 개요 및 학위청구 발표 작품목록	45
2-1. 작품 개요	45
2-2. 학위청구 발표 작품목록	45
3. 표본작품의 선정연구	46
3-1. 표본작품_1. 봄의 전령	46
3-1-1. 구조분석	47
3-1-2. 수형도(樹型圖 Tree Diagram)	48
3-1-3. 시선의 행로(行路, Passage)분석	51
3-1-4. 색채분석	52
3-1-5. 의미해석	53
3-1-6. 재료 및 표현기법과 제작과정	55

3-1-7. 표본작품 디자인 : 디지털프린팅	56
3-2. 표본작품_2. 나르샤 I, II	57
3-2-1. 구조분석	58
3-2-2. 수형도(樹型圖 Tree Diagram)	59
3-2-3. 시선의 행로(行路, Passage)분석	60
3-2-4. 색채분석	61
3-2-5. 의미해석	63
3-2-6. 재료 및 표현기법과 제작과정	64
3-3. 표본작품_3. 대대손손	65
3-3-1. 구조분석	66
3-3-2. 수형도(樹型圖 Tree Diagram)	68
3-3-3. 인물 세부 수형도(樹型圖 Tree Diagram)	69
3-3-4. 시선의 행로(行路, Passage)분석	70
3-3-5. 색채분석	71
3-3-6. 의미해석	72
3-3-7. 재료 및 표현기법과 제작과정	73
4. 전시 공간 및 종합 비평	74
4-1. 전시 공간	74
4-1-1. 전시장 작품설치 과정	75
4-1-2. 전시 서문 및 논평의 개요	76
4-1-3. 전시장 전경 및 작품전시 풍경	83
4-1-4. 전시장 내부 행위예술	85
IV. 결론	86
참고문헌	89
Abstract	91

표 차례

<표 1> 옷칠민화 교육내용	40
<표 2> 한지 만드는 과정	41
<표 3> 학위청구 작품 목록	45
<표 4> 표본작품 봄의 전령 이미지 개요	46
<표 5> 봄의 전령 section 분해표	47
<표 6> 봄의 전령 의미에 대한 해석표	53
<표 7> 표본작품 나르샤 I, II 이미지 개요	57
<표 8> 나르샤 II section 분해표	58
<표 9> 금색에 대한 이미지와 연상 작용	62
<표 10> 나르샤 II 색과 상징성 의미 분석	63
<표 11> 나르샤 II 재료와 제작과정	64
<표 12> 표본작품 대대손손 이미지 개요	65
<표 13> 대대손손 section 분해표	67
<표 14> 4대 학춤 계보자 인물정보	72

그림 차례

<그림 1> 동양의 학(鶴) 이미지 해석 및 분석_한국	4
<그림 2> 동양의 학(鶴) 이미지 해석 및 분석_중국	6
<그림 3> 동양의 학(鶴) 이미지 해석 및 분석_일본	7
<그림 4> 민속학춤	9
<그림 5> 학창의(鶴擎依)	9
<그림 6> 당상문관 쌍학흉배, 조선 19세기 말. 덕수궁	9
<그림 7> 김홍도의 서호방학도(西湖放鶴圖)	10
<그림 8> 서호방학도(西湖放鶴圖) 일부분 확대	10
<그림 9> 정선의 고산방학도(孤山放鶴)	11
<그림 10> 매학정(梅鶴亭) 경상북도 기념물 제16호	11
<그림 11> 안중식의 학자매처도(鶴子梅妻圖)	12
<그림 12> 청자 상감 구름 학무늬 매병	13
<그림 13> 학익진(鶴翼陣) KBS역사 스페셜 한산대첩	13
<그림 14> 경상도지리지울산군 1425.	14
<그림 15> 신증동국여지승람 울산군 1530.	14
<그림 16>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조선후기울산지역 1867.	14
<그림 17> 학성공원 신학성(神鶴城)이라는 글자 음각	15
<그림 18> 반구대(포은대) 학 그림	15
<그림 19> 울산동헌 일학헌 편액	16
<그림 20> 울산동헌 반학헌 편액	16
<그림 21> 김호의 기문, 영남읍지 울산부, 1871.	16
<그림 22> 청대집의 시	17
<그림 23> 울산 태화루(太和樓)	18
<그림 24> 울산 태화루 천정에 새겨진 정겨운 학 두 마리	18
<그림 25> 울산 내오산 학 그림 탁본	19
<그림 26> 반구대(포은대)에 있는 두 마리 학 그림	19
<그림 27> 학춤의 유형 특징	20
<그림 28> 학의 모습을 형상화한 조형물	22
<그림 29> 외출 112X146cm 장지, 수간분채, 토분	24
<그림 30> 외출 162.1X130cm 장지, 수간분채, 토분	24
<그림 31> 가족. 수묵인물화 40.9X31.8cm 2004.	25
<그림 32> 홍강아트페스티벌 참여 리플릿	26

<그림 33> 달콤한 낮잠 130X97cm 장지, 수간분채, 토분 2007.	27
<그림 34> 바라만 보아도 좋아 90.9X72.7cm oil pastel	27
<그림 35> 붉은 나비장 50F, 장지, 채색, 은박, 종이, 풀, 자개 2008. ...	27
<그림 36> 한마음미술대전 대상 수상 작가 초대전_울산남구문화원	28
<그림 37> 愛 40X40cm 장지, 수간분채, 은박	28
<그림 38> 봄날 80X40cm 장지, 수간분채, 금박, 자개, 무늬지	28
<그림 39> 애플미술교습소 외부	29
<그림 40> 애플미술교습소 내부	29
<그림 41> 민들레 흙씨를 타고, 장지, 채색, 자개 116.7X91cm 2010. ..	29
<그림 42> 2011. 동심전, 울산대공원 전시장	30
<그림 43> 감성 추 장지, 채색, 무늬한지, 금박, 금분	30
<그림 44> 울산문화예술회관 1전시장	31
<그림 45> 2011. 100F 장지, 채색, 금박	31
<그림 46> 아름다운 이끌림 348X90cm 장지, 채색, 한지 2012.	31
<그림 47> 2014. 울산대학교병원 로비	32
<그림 48> 2015. 롯데시네마 연결통로 작품설치	32
<그림 49> 2018. 현대중,고 버스 승강장	32
<그림 50> 하늘보기 I, 162X112cm 장지, 수간분채, 펄 2014.	33
<그림 51> family 162X112cm 장지, 수간분채, 펄 2014.	33
<그림 52> 올해의 작가 개인전 관련 이미지	33
<그림 53> 울산청년작가회 소품전 2015.	34
<그림 54> 바람에 머문다. 화실 회원전 2016.	34
<그림 55> 4Wave 예술가 오픈 스튜디오 전시 관람 2015.	34
<그림 56> 4Wave 엽서 이미지	35
<그림 57> 관광 상품 디자인 이미지	35
<그림 58> 방석을 들고 있는 모델	35
<그림 59> 관광 상품 쿠션을 들고 있는 연구자	35
<그림 60> 현존 고광준 인물사진	36
<그림 61> 백선백접도 순지, 수간분채, 붕채 189X45.5cmX8	36
<그림 62> KTX 내부, 광명으로 가는 길	37
<그림 63> 연구자의 모습 2018.2.3.	37
<그림 64> 2018. 지원채색화원 첫 번째 회원전	38
<그림 65> NEW WAVE25인 포스터 이미지	38
<그림 66> 전시장 내부 인물사진	38

<그림 67> 화인도(花人圖) 81X95cm 순지, 수간분채, 금분	38
<그림 68> 자유의 혼_김언배 교수 작품 태화강 국가정원. 2019.	39
<그림 69> 김성수의 소장 작품 8폭 병풍 2020.	40
<그림 70> 울산학춤보존회 내부 공간	40
<그림 71> 옷칠민화와 한지 만들기 교육과정	41
<그림 72> 옷칠작품 I	42
<그림 73> 옷칠작품 II	42
<그림 74> 수료증 받는 날	42
<그림 75> 와와공원 내 외부 벽화. 2020. 10. 19.	42
<그림 76> 푸른 향아리와 모란 56X59cm 순지, 수간분채, 금분, 2021.	43
<그림 77> 프랑스아트페어 불어 서류	44
<그림 78> 에펠 탑과 마주 보고 있는 행사장 사진	44
<그림 79> 봄의 전령 (春令, The messenger of spring)	46
<그림 80> 봄의 전령, 표본작품	47
<그림 81> 봄의 전령 구조분석, 수형도(樹型圖, Tree Diagram)	48
<그림 82>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옛보기 편한 방>범주 화법	49
<그림 83> 도르트레흐트(Dordrecht) <문장의 표면의 내,외부적 구조>	50
<그림 84> 로버트 레이턴(Robert Layton) <영상 구조적 상황>	50
<그림 85> 나주오씨 참봉공파 화수도(花樹圖), 연대미상, 석판본	50
<그림 86> 시선의 행로 분석도	51
<그림 87> 봄의 전령 색상, 명암 분포도	52
<그림 88> KBS[환경스페셜] 도산서원의 봄	54
<그림 89> 연구자의 작품_봄의 전령	54
<그림 90> 봄의 전령 롱 스카프 제작과정	56
<그림 91> 봄의 전령 실크 스카프 제작과정	56
<그림 92> 나르샤 I, II (騰飛, Fly up)	57
<그림 93> 나르샤II, 표본작품	58
<그림 94> 나르샤II 구조분석, 수형도(樹型圖, Tree Diagram)	59
<그림 95> 시선의 행로 분석도	60
<그림 96> 나르샤II 색상, 명암 분포도	61
<그림 97> ■ 김언영 2020, ■ 전라도 화가 1984.	65
<그림 98> 대대손손 (代代孫孫,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65
<그림 99> 대대손손, 표본작품	66
<그림 100> 대대손손 구조분석, 수형도 I. (樹型圖, Tree Diagram)	68

<그림 101> 인물 세부 수형도(樹型圖, Tree Diagram)	69
<그림 102> 시선의 행로 분석도	70
<그림 103> ‘대대손손’ 색상, 명암 분포도	71
<그림 104> 대대손손 제작과정	73
<그림 105> 가기사진갤러리로면. pdf	74
<그림 106> Exhibition Layout	74
<그림 107> 전시장 디스플레이(display) 과정	75
<그림 108> 성남동 가기사진갤러리 입구 현수막 이미지	83
<그림 109> 가기사진갤러리 2층 입구	83
<그림 110> 전시장 내부사진	84
<그림 111> 전시 서문	84
<그림 112> 전시장 작품 가변설치 후 전경	84
<그림 113> 출연 : 울산학춤보존회 김성수 고문 2021.7.25	85
<그림 114> 출연 : 울산학춤 계승자, 무용인 김영미 2021.7.25	85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학 문화의 전통문화 사상에 이어 울산학춤과 연구자의 금빛 날갯짓 연작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학 문화의 전통사상에 대한 설화와 문헌에 기록된 것을 토대로 학의 상징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삶에 투영되었는지 살펴보고 학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었던 옛사람들의 심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자 했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또한 연구자의 차후 작품의 방향성과, 철학·예술적 성찰을 다루는 데 있어 전통적 주제 선택과 표현기법 연구를 통해 나아갈 방향과 의의를 찾고자 한다.

울산은 학의 고을이다. 태화강국가정원을 비롯하여 큰 물줄기가 흐른다. 삼산 일대도 과거 습지로 학이 살았고, 울산의 <계변천신> 설화에서 학성(鶴城)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울산에 설치된 조형물의 대상으로도 학이 나타나며, 학 관련 문화유산은 문헌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학을 주제로 문화예술작품의 창작과 향유는 소수의 문화예술인들에 의해 현재까지 전개되고 있다. 연구자는 울산지역에 살면서 울산이 학의 도시라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다가 울산학춤의 창시자 김성수를 만나 4대째 이어온 학춤의 가치를 중요시해 '대대손손' 병풍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왜 학의 동태를 살펴 '학춤'으로 표현하였는지에 대해 고찰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에 관해 관심을 가졌고, 학의 날갯짓에 매력을 느껴 본 논문의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울산학춤의 내용 중에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공통된 상징성에서 공통점을 찾고 재해석을 거쳐 창작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먼저 형식 파악과 재료연구 구조적 상징성의 순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작품의 형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체 구조를 해체하여 구체적인 의미들을 분석하고, 형태화 의미 구조의 상황들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수형도를 작성해보는 절차를 거쳤다. 재료에 대해서는 한지와 섬유 위에 염료의 종류와 성질에 대해 파악하고 한국화 기법을 적용하여 작품이 어떻게 구조와 되었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학의 외형에서 색채가 주는 상징성에 대해 연구자와 울산학춤 복식의 상징성을 파악하고 문헌을 바탕으로 비교 분석한다. 의미해석에 관련하여 작품에 등장하는 구조적 의미들은 연구자의 표본작품을 중심으로 하되 색의 상징성과 의미들을 설화와 문헌들을 바탕으로 내·외적인 의미들의 메시지를 기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한국의 학 문화와 전통문화 사상에서 지역성을 내재하고 있는 울산의 학을 대상으로 대를 이어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노고에 가치를 부여한다. 더 이상 울산지역에서는 학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본 논문의 연구자는 옛사람들과 같이 학을 동경의 대상으로 삼아 사의하고자 한다.

이미 발표된 학위 청구전은 연구자가 울산의 고유한 학 문화를 예술작품으로 승화하고자 하는 바를 시사하고 있다. 연구자의 삶, 과거와 미래, 자연과 생태 부분이 서로 긴밀히 연대하고 소통함으로써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작품들은 은유로써 나타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I. 서론

1. 연구의 배경

울산에는 울산학춤이 있다. 사찰학춤을 3대째 추어오고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환경을 바탕으로 울산학춤의 생성 근원을 울산의 역사성에서 재현했다고 김성수는 말한다. 현재는 그의 제자들에 의해 전수되어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울산의 학춤은 지역적 특성과 연결해 찾아볼 수 있는데 현재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태화강을 비롯한 회야강, 동천강 등 큰 물줄기를 따라 용과 함께 물과 학의 도시라는 점을 들어 확인할 수 있다. 그 근거는 울산 중구 ‘학성’이라는 지명이 학과 관련한 ‘계변천신’ 설화에서 비롯되었음을 들 수 있다. 이렇듯, 자연환경과 역사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발전, 전수되어 온 문화예술 창작물과 향유문화는 울산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발전되어지고 기록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과 관련한 문화예술 관련 유산은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학 관련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있어서 전통이 단절되는 현상은 멸종위기의 천연기념물 두루미(학)가 처한 현실과 일맥상통하는 문제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시대 인식을 바탕으로, 학의 도시 울산에 학을 연구하는 화가,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가 적어도 하나쯤은 있어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자아 각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태동되고 출발한다. 그러므로 학을 대상으로 한 작품 연작의 구조분석과 의미해석 연구의 배경은 위의 진술이 드러내는 바와 같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위청구전의 전 과정을 되짚어 통찰하면서 알게 된 성과와 오류를 검토하고 차후 작품 제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표로 삼는 데 있다. 선택된 대상으로 연구자의 작품세계를 시각적으로 드러난 결과물들을 본 논문으로 전환하여 드러내 보이는데 일차적인 연구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표본작품연구 논문작성의 재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것은 연구자의 작품 제작 의도, 제작과정, 기법, 재료 등과 아울러 연구자 자신의 사상과 시대적 배경 등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 목적

연구 목적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선정된 주제에 대한 문헌과 문화유산, 지역문화의 흐름을 파악하여 예술작품들이 갖는 상징성과 의미에서 연구자의 작품들이 갖는 유사성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둘째, 본 연구는 인물들의 정서에 나타나는 심상들을 연구자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주관적 경험으로 작품세계를 분석, 해석하고 기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셋째, 기록된 것을 토대로 연구자의 긍정적 자아실현을 위한 노력의 계기를 마련한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 방법

방법론의 측면에서는 크게 문헌 연구와 작품 제작 연구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작품 제작 연구 및 학위 청구전 발표는 완료된 상태로 분석과 해석의 대상으로 연구자의 표본작품 연구를 위한 문헌 연구의 방법과 인터넷 조회도 하나의 방법적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 문헌 연구 범위는 동양의 학 문화에서 한국의 학 문화 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유산과 설화를 바탕으로 관계 문헌과 논문 검토로 한정될 것이다. 작품 제작 연구는 객관적 사료를 바탕으로 주관적 해석과 창작과정을 거쳐 작품을 제작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작품의 대상인 학이 동양의 전통문화 사상에서 주는 상징성, 지역적 정체성을 검토해 비교, 분석하고 한국의 학 문화에서 울산의 학 문화로 이어진 연구자의 작품에 대한 유사성 및 창작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 둘째, 학에 관한 문헌 연구를 살펴보면 그림 속의 학과 실제 학을 바라보며 교감하려는 인물들의 정서에서 나타나는 심상이 연구자의 정서와 감성적 관점에서 유사한 상관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셋째, 연구자의 금빛 날갯짓 연작은 학이 가지는 학문적 가치와 역사적 상징성을 내포한 색채와 이미지 연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본작품 중 ‘봄의 전령’, ‘나르샤 II’, ‘대대손손’을 선정하여 분석하고 색이 내포하고 있는 구상성과 추상성에서 작품의 의미, 제작과정, 재료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고자 하였다.

II. 학(鶴)과 전통문화

1. 동양의 학(鶴)과 전통문화 비교 고찰

국가와 민족마다 다양한 사상과 문화에서 학은 사람들에게 시각 심상과 사유를 통한 창조 작업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형태는 미술품, 문학작품, 민속품 등 동양의 정서가 전통문화유산으로 남아있다. 동양의 학은 속세와 신선이 노니는 세계를 매개하고 동경하게 함으로써 이 땅의 삶의 표본을 전달해주는 메신저¹⁾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은 오랜 세월 동안 신화와 종교적인 전통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쳐 왔으며 아시아 국가에서 장수의 상징으로 표현되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 학은 행복, 행운, 장수, 부부애를 상징하며 장식물에 자주 등장해²⁾ 왔다. 그림 속의 학과 실제의 학을 바라봄으로써 교감하려 하는 동양의 정서에서 학과 전통문화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동양의 전통문화유산에서 학의 의미와 상징성이 각 민족의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고유 사상과 역사적 배경들을 비교 고찰해 본다. 동아시아 3개국 중, 한국의 전통문화 사상과 작품의 의미에 대한 내용을 앞서 살펴본다.

조선시대 학은 선비의 정신을 상징한다. 자연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간절한 염원일 것이다. 학은 날짐승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산다고 여겨져³⁾ <십장생도>⁴⁾를 주제로 한 세화(歲畫)와 궁에서 선호했던 길상의 의미로 학이 등장한다. 또한 조지훈의 <송학도>에서는 단정학이 소나무 위에 홀로 서 있는 ‘학립’⁵⁾으로 실리에 흔들리지 않는 선비의 의연함을 나타내는 한편 관직을 향한 입신출세의 뜻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중성은 학문에 매진해야 할 선비로서의 명분적 도리와 함께, 현실적으로는 과거에 합격하여 세상에 가문과 이름을 높여야만 했던 조선 후기의 양반 문화를 바탕으로⁶⁾ 학이 학문에 뜻이 있는 선비들과 학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화와 학이 등장하는 심전(心田) 안중식의 <관매순학(觀梅馴鶴)>에서 안중식은 “화정선생이 매화를 감상하고 학을 길들이는 그림”이라는 제목을 써놓았다.⁷⁾ 그는 송(宋)나라의 화정(和靖) 임포(林逋)의 이상적

1) 김지원, 《기획특집-동물의 왕국》, 2021. 봄여름호 Vol.405. p.94.

2) 배성환, 『두루미』, 서울 : 도서출판 다른세상, 2000. p.14.

3) 김종대, 『33가지 동물로 본 우리문화의 상징세계』, 서울 : 도서출판 다른세상, 2001. p.406.

4) 인간의 영원한 소원인 불로장생(不老長生)을 상징하는 해, 구름, 산, 물, 소나무, 거북, 사슴, 학, 복숭아, 불로초(영지), 등 열 가지를 소재로 그린 십장생도이다. 왕실 가족의 무병장수와 만수무강을 기원하여 궁중의 중요한 행사 때 왕비나 왕세자의 자리 뒤편에 펼쳐거나 국혼이나 회갑연 등 경사스런 잔치에 사용하였다. 장생문양은 본래 중국의 신선사상에서 비롯되었지만 열 가지로 압축하여 그린 것은 조선의 독자적인 특징이다. 국립고궁박물관 편저, 『국립고궁박물관』, 2007. p.238-239.

5) 학립(鶴立):학처럼 쭉 곧게 선 태도나 모양.

6) [자료 출처] 대한신보_지성인의 특강:신선이 학을 타는 그림 「승학신선도(乘鶴神仙圖)」

7) [자료 출처]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_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 서화미술특별전_자화상, 2019.

인 삶을 닮고자 하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화정 임포에 대한 이야기는 중국의 전통문화 사상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다음은 한국의 전통문화 사상과 작품의 의미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구분	학(鶴) 이미지	전통문화 사상	의미
한국 (Korea)	 <p data-bbox="459 748 823 817">십장생(十長生)도 병풍, 작자미상 조선 18세기</p>	<p data-bbox="916 553 1126 672">불로장생의 비술을 터득한 신선에 대한 열망이 표상되어 삼은 것</p> <p data-bbox="970 696 1070 725">민간신앙</p> <p data-bbox="995 754 1045 784">도교</p>	<p data-bbox="1206 595 1323 665">길상 관념 장수(長壽)</p>
	 <p data-bbox="483 1323 791 1352">梅谷 조지훈 송학도, 17세기</p>	<p data-bbox="954 1030 1086 1099">인품을 갖춘 존재 연상</p> <p data-bbox="963 1144 1077 1214">조선 후기 양반문화</p>	<p data-bbox="1225 904 1302 934">단정학</p> <p data-bbox="1174 981 1355 1093">학림으로 신리에 흔들리지 않는 의연함</p> <p data-bbox="1197 1137 1332 1207">관직을 향한 입신출세</p> <p data-bbox="1197 1252 1331 1281">선비의 정신</p>
	 <p data-bbox="432 1859 852 1888">안중식 관매순학(觀梅馴鶴) 간송미술관</p>	<p data-bbox="895 1597 1147 1682">화정 임포의 고사인물도(故事人物圖) 의 영향을 받음</p>	<p data-bbox="1197 1568 1331 1597">이상적인 삶</p> <p data-bbox="1174 1641 1355 1711">매화를 감상하고 학을 길들인다.</p>

<그림 1> 동양의 학(鶴) 이미지 해석 및 분석_한국

이어 중국의 전통문화 사상과 작품의 의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우한시 황학루》의 〈백운황학도〉에서는 신선과 함께하는 학은 신선사상이 결합하여 장수를 의미하고 닭 무리 속의 학 한 마리라는 뜻을 지닌 〈군계일학〉은 군중 속에서 뛰어난 사람이 한 명 있어 이들을 지도한다는 속담으로 중국 《진서》의 〈혜소전〉에서 그 유래를 알 수 있다. 학은 다른 동물과 달리 일상적인 먹이를 취하지 않고 신선과 함께 어우러져 살기 때문에 남다른 방식, 즉 신선과 같은 생존방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⁸⁾ 이와 같이 중국과 한국의 학 이미지는 장수와 길상 관념의 세계를 담고 있어 그 의미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앞서 언급했던 중국의 대표적인 인물 시인 화정(和靖) 임포(林逋)의 〈매처학자(梅妻鶴子)〉에서 학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매화로 아내를 삼고 학을 아들로, 사슴을 집안 심부름꾼으로 삼았다”는 전설에 따르면 임화정은 일찍이 학문에 정려하여 명성이 높았지만, 당시의 부패한 정치에 불만을 품은 채 항주(杭州)의 서호(西湖) 부근 고산(孤山)에 집을 짓고 은거하여 결혼도 하지 않고 20여 년 동안 성시(城市)에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신변에는 언제나 백학(白鶴)과 사슴 한 마리를 데리고 있었는데, 술을 마시고 싶으면 목에 술병을 걸친 사슴을 술집에 술을 사러 달려 보내고 손님이 방문해 오면 학이 공중에서 울어서 알린다고 하는 풍아(風雅)한 생활을 했다고 한다.

중국 청진에 관비 유학생으로 다녀온 안중식은 임포의 〈매처학자〉에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북송(北宋) 때 〈학자매처(鶴子梅妻)〉는 용어를 낳았다. 고사의 심오한 세계를 이미지화 한 안중식의 고사도는 중국의 전통문화 사상과 작품의 의미 <그림 2>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학과 자연을 벗하여 노년의 시간을 보내는 서정적인 내용의 이상적인 삶은 우리나라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북송의 마지막 황제인 휘종(徽宗, 1082~1135)이 그렸다고 하는 〈서학도(瑞鶴圖)〉는 1112년 정월 어느 날 갑자기 수도인 변경(卞京)의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더니 학들이 무리 지어 궁전 위로 날아들어 한참 동안 머물자, 휘종은 상서로운 징조로 여기고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였다. 〈서학도〉에는 궁정 지붕 위로 열여덟 마리의 학이 여러 모습으로 날고, 두 마리는 지붕 양 끝에 앉아있다. 하늘을 나는 학은 중국 고대부터 선정(善政)의 상징으로 활용되었다고 기록¹⁰⁾ 했다. 날개를 펼치고 날고 있는 학을 보니 우리나라 고려청자의 학이 연상되기도 한다. 이처럼 중국에서의 학은 신선과 함께하는 영물로 장수를 의미하고 자연과 함께 서정적인 삶을 추구하며 상서로운 기운을 내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 김종대, 같은 책. pp.408-409.

9) [네이버 지식백과] 임포(林逋)의 매처학자(梅妻鶴子)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3, 2004.3.10. 이상희)

10) [네이버 지식백과] 고려의 영원한 초상, 운학문 청자 - 날렵하고 매끄러운 도자기 위 비취빛 하늘을 나는 학 (한국학, 그림과 만나다, 장남원). 2013.

중국의 전통문화 사상과 작품의 의미를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구분	학(鶴) 이미지	전통문화 사상	의미
중국 (China)		<p>도교 신앙 전설 이야기</p> <p>선인(仙人)과의 인연을 신선과 함께하는 신비의 영물로 여김</p>	<p>학은 선인이 타고 하늘에 오르는 새로 신선과 함께 영물로 여김</p>
	<p>중국 우한시 황학루의 백운황학도</p>		
		<p>화정 임포의 〈매처학자(梅妻鶴子)〉</p> <p>풍아한 삶</p>	<p>자연 경물이 주체의 가슴으로 스며들어 하나로 융합</p>
<p>안중식의 학자매처도(鶴子梅妻圖) 20세기</p>			
	<p>중국 송 황실도</p>	<p>선정(善政)의 상징</p> <p>상서(祥瑞)로움 길상을 상징</p> <p>선학(仙鶴)</p>	
<p>전(傳) 휘종, 〈서학도(瑞鶴圖)〉 북송 1112. 요령성 박물관 소장</p>			

<그림 2> 동양의 학(鶴) 이미지 해석 및 분석_중국

일본은 전래동화와 설화를 통해 학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낸다. 전래동화 <은혜 깊은 두루미>는 국내 동화책 중에서 '학의 여왕'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에 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눈이 오는 어느 날. 마을에 땀감을 팔러 갔다 돌아오던 할아버지가 밧에 걸린 두루미를 붙잡히 여겨 밧을 풀어주고 자연으로 돌려보내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어느 날 아름다운 여인이 노부부의 집을 찾아와 재워달라고 부탁을 하고서는 그들을 보살폈다. 여인은 옷감을 짜고 싶다며 할아버지에게 실을 부탁했고, 옷감을 한 필 다 짜자 이것을 팔아 실을 사달라며 부부에게 맡긴다. 여인의 옷감은 아름다워 순식간에 소문이 나서 노부부는 부자가 된다. 여인은 3일 밤낮을 방에서 나오지 않고 베를 짰다. 갈수록 수척해지는 여인의 모습에 노부부는 방문을 열어봤는데 방안에서는 여인이 아닌 학이 베를 짜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자신의 깃털을 뽑아가면서 베 짜기를 했던 여인은 정체가 드러나 이별을 고하고 다시 학이 되어 하늘로 날아갔다.¹¹⁾

이 이야기는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한국에도 어느 정도 알려진 이야기라고 한다. 일본의 온천 이야기에서도 학이 등장한다. <아키타>에는 날개를 다친 학이 뜨거운 온천 물에서 치료했다는 학의 온천 <츠루노유> 설화¹²⁾가 내려온다고 전한다.

일본의 전통문화 사상과 작품의 의미를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구분	학(鶴) 이미지	전통문화 사상	의미
일본 (Japan)	 동화	직조 설화 은혜 깊은 학 쓰루노 옹가에시 (つるのおんがえし)	신뢰의 가치 권선징악 (勸善懲惡)
	 온천	온천 설화 도호쿠 지방의 아키타현 학의 온천 츠루노유 (鶴の湯)	호생지덕 (好生之德)

<그림 3> 동양의 학(鶴) 이미지 해석 및 분석_일본

11) [네이버 지식백과] 학의 은혜 갚기<츠루노 옹가에시> (키워드포 여는 일본의 향, 2009.3.26. 김용안)

12) [자료 출처] [Overseas Trip] 후딱 흠뻑 흠뻑 즐기는 해외여행 | 아키타 秋田
 매일경제 출처: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5/03/257298/>

이처럼 학은 동양의 전통문화 사상을 바탕으로 장르별 문화유산을 후대에 남겼다. 한국에서 학은 장수와 선비의 인품을 갖춘 학자들을 의미하고 중국에서는 신선과 함께하는 영물로 여겨져 학과 맺어진 인연에 대해 문학과 회화로 표현되고 있다. 일본은 설화를 통해 학이 선을 실천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인간과 친근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민족의 전통문화 사상에서 학은 장수와 상서로운 기운을 의미하며 인간 세상에 두려움을 잊고 이상적인 삶을 꿈꾸게 한다. 또한 학은 사의(寫意)¹³⁾하고 싶은 존재로 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그 이미지가 드러남과 동시에 각 민족 고유의 사상과 상징이 담긴 문화예술작품으로 표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한국 전통문화와 학에 대한 옛사람들의 심상에서 나타난 정서적 교감을 표현한 문화유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3) 사의(寫意):그림 따위를 그리고 싶은 마음.

2. 한국 전통문화와 학(鶴)

한국 전통문화와 학의 상징성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삶에 투영되었는가에 관해 다양한 예술작품을 통해 살펴보고 학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었던 옛사람들의 심상에서 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존재인지 문헌 자료를 통해 알아본다.

옛사람들은 학을 천년이 지나면 푸른색의 청학이 되고, 다시 천년이 지나면 검은색의 현학이 되는 불사조로 믿었다. 특히 청학이 사는 곳을 청학동이라 하여 예로부터 신성시하였다. 사람이 학처럼 오래 살려면 밖으로 탐하지 않아 안이 깨끗하고 평화로우며 바르고 어질어야 한다고 믿었다. 학은 아름다운 것만 취하여 그 몸을 보양하고 사기가 없는 가운데 살므로 장수한다고 했다. 그래서 신선사상의 십장생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어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새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그림 4>에서 민속춤인 ‘학춤(鶴舞)’은 중요무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되어 있다. 학춤은 말 그대로 학의 행동을 모방해서 만든 춤이다. 그중 하나가 학의 탈을 쓰고 추는 춤으로 현재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있으며, 이와는 달리 도포 등으로 치장한 선비의 옷차림을 학의 움직임으로 재현한 학춤이 영남에서 전승되었다.¹⁴⁾ <그림 5>는 흰색과 검은색의 배합으로 고고함과 신성함의 상징인 학의 모습을 본떠 조선의 선비들이 평상시에 입던 옷인 <학장의(鶴擎依)>¹⁵⁾이다. 이는 두루미의 고고한 기품과 선비의 기상, 그리고 민속학춤 <복식>에서 일체화를 이룬다. 수놓은 <흉배(胸背)>¹⁶⁾는 조선시대에 왕과 백관복의 상복에만 볼 수 있는데 백관복의 단령에는 네모진 흉배를 가슴과 등에 부착시켰다.



<그림 4> 민속 학춤



<그림 5> 학장의(鶴擎依)



<그림 6> 당상문관(堂上文官)
쌍학흉배, 덕수궁
조선 19세기 말

14) 김종대, 같은 책. p.417.

15) 학장의(鶴擎依):복식, 소매가 넓고 뒤 솔기가 갈라진 흰옷의 가를 검은 천으로 넓게 댄 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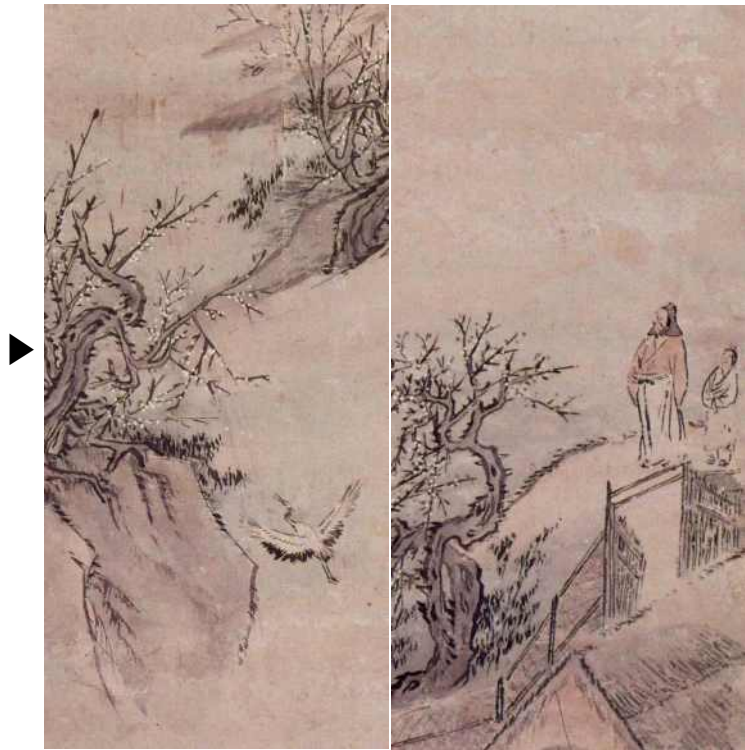
16) 흉배(胸背):조선시대 왕·왕세자·문무백관의 관복의 가슴과 등에 장식한 표장(表章).

영조 10년에 당상관은 학(鶴), 당하관은 한(鵠)으로 변경하였으며 이것이 다시 고종 때에 와서 문관은 학, 무관은 범으로 정해졌으며 당상관은 쌍(雙)으로 <그림 6>이며, 당하관은 홀으로 변경되었다. 흥배의 유물을 보면 시대가 올라갈수록 흥배의 크기가 크고 문양의 수도 적는데 후기로 올수록 흥배가 작아지고 문양도 복잡해졌다.¹⁷⁾ 양 날개를 활짝 펴고 구름 속을 날고 있는 학은 문관의 고고한 기품을 나타내고 하단의 장생문은 장수를 의미한다. 정교한 수의 기법 및 색상의 조화를 보이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자수 예술이다.¹⁸⁾ 이처럼 학은 흥배를 통해 벼슬을 구분하고 색실을 꿰어 아름다운 무늬로 표현되었다.

천년 이상을 사는 학은 옛사람들에게 매우 신비스러운 존재로 간주 되었고 못 새들과 달리 외진 곳에서 조용히 은거하면서 고독을 추구하는 학의 자태는 은둔하는 선비의 모습과 닮아있음을 김홍도와 정선의 작품에서 볼 수 있다. <그림 7>과 <그림 9>는 방학(放鶴)¹⁹⁾으로 선비와 학이 마주하는 시선에서 서로 교감하려는 이미지를 나타낸다. 선비와 학의 원근에서 느껴지는 공간감은 교감의 표현을 더욱 극대화한다.



<그림 7> 김홍도의 서호방학도
(西湖放鶴圖)



<그림 8> 서호방학도(西湖放鶴圖) 일부분 확대

17) 한병화 『한국미술 문화의 이해』, 서울 : 도서출판 예경, 1994. p.331.

18) [네이버 지식백과] 패션전문자료사전. 쌍학흥배[雙鶴胸背]

19) 방학(放鶴): 학을 놓아주다.

단원 김홍도의 <서호방학도(西湖放鶴圖)>와 정선의 <고산방학(孤山放鶴)>은 강 건너편에 있는 학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선비가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두 작품의 내용은 화정 임포의 고사 내용을 담은 고사인물도(故事人物圖)로 학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학을 사랑하여 소유를 포기하는 자비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홍도와 정선은 이런 자비를 통해 고결한 삶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정선의 고산방학(孤山放鶴)

학과 벗이 되었던 화정 임포의 정신적 경지를 추구²⁰⁾하며 닮고자 했던 16세기를 대표하는 명필가 구미 출신인 고산(孤山) 황기로(黃耆老) 역시 임포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자처해 산 이름을 고산으로 짓고, 그 이름으로 호를 삼았으며, 정자 이름을 <매학정(梅鶴亭)>이라고 하였다.²¹⁾ 황기로는 신사시에 급제했으나 벼슬길로 나가지 않고 은둔하여 학문에 임하였다.



<그림 10> 매학정(梅鶴亭) 경상북도 기념물 제16호

20) [자료 출처] 문화일보 <고연희의 옛 그림 속 인물에 말을 걸다.> 2013.1.11

21) [자료 출처] 영남일보(www.yeongnam.com).구미인물전.7 2013.08.09

<그림 10>에서 자연을 벗 삼아 서예를 즐겼으며 주변에 매화나무를 심고 학을 길렀다.²²⁾고 한다. 그 역시 학과 교감하고 그 경치를 즐기는 풍아한 삶을 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의 학(鶴)과 전통문화에서 중국의 화정 임포의 고사도를 그린 안중식의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아래 <그림 11>도 안중식의 <학자매처도(鶴子梅妻圖)>로 임포의 고사 내용을 담았다. 안중식의 그림에서 학과 사람이 서로를 마주 보며 서서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것은 학과 벗하여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정서를 담고 있다.



<그림 11> 안중식의 학자매처도(鶴子梅妻圖)

이처럼 옛사람들은 학을 밖으로 탐하지 않고 깨끗하고 어진 마음을 지닌 믿음의 상징으로 생각하였다. 학의 행동을 모방한 학춤의 <복식>과 <흉배>를 통해 벼슬을 구분하는 학 이미지는 선비들의 정신적인 경지를 추구한다. 김홍도의 <서호방학도>와 정선의 <고산방학>, 황기로의 <매학정>, 안중식의 <학자매처도>에서는 학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자연에서 풍류 하기를 원했다.

<그림12>는 학이 그려진 대표적인 명품으로 천년의 푸른빛을 하늘 삼아 노니는 학과 신비로움을 더해주는 구름이 장식된 <청자 상감 구름 학 무늬 매병> 향아리(12~13세기)이다. 높이는 23.8cm로 아담한 크기의 도기로 어깨에 4개의 귀가 달려 있고 몸체 입구를 넓게 덮고 있는 뚜껑이 어깨선과 이어져 매병처럼 풍만하면서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우아한 곡선²³⁾이 돋보이는 형태를 하고 있다. 천년의 색을 간직하고자 하는 고려인의 마음이 담긴 고려청자로 날아가는 학에서 느낀 자유로움과 평

22) [사진 출처] 매학정 일원. 구미 매학정, 명필 황기로 지은 정자 이우. 이동명다시짓다. | 작성자 참마

23) [자료 출처] 구름은 천년을 흐른다 - 청자 상감 구름 학무늬 네귀 향아리 | 작성자 museuminfo

화로움을 학과 구름의 패턴으로 구성하였다. 매병의 형태는 학의 전제적인 외형에서 느껴지는 곡선의 모습과 유사하며 현재까지 뚜껑이 남아있는 온전한 상태의 고려청자는 매우 드문 사례로 보인다. 뚜껑의 용도는 잔으로도 사용되었으며 뚜껑의 윗면에는 학, 옆면에는 구름, 그 밖의 면에는 구름과 학이 여유 있게 상감되어 있다.²⁴⁾ 몸통의 입구 부분과 굽 둘레에는 번개무늬[雷文]의 띠를 어깨 부분에는 여의두무늬[如意頭文]의 띠를 백상감 기법²⁵⁾으로 장식하였다.



<그림 12> 청자 상감 구름 학무늬 매병



<그림 13> 학익진(鶴翼陣)
KBS 역사스페셜 한산대첩

문화유산뿐 아니라, 이순신의 <학익진(鶴翼陣)>에서도 학을 발견할 수 있다. 학익진은 이순신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왜군을 섬멸할 때 펼쳤던 진(陣)²⁶⁾이다. <그림 13>에서 보듯 학의 날개 형태를 닮아 이름 붙여졌다.

이렇듯 학과 사람의 정서적 교감을 담은 한국의 전통사상은 현대에 이르러 회화, 도자기, 섬유, 춤, 기념물 등의 문화유산으로 남아 우리의 삶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울산지역 사람들과 학은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지 설화와 문헌, 문화 유적 그리고 학을 형상하는 문화예술 작품들에 대해 살펴보고 고찰해 본다.

24) [자료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검색, 청자 상감 구름 학 무늬 매병

25) 상감기법(象嵌技法): 금속이나 도자기, 목재 따위의 표면에 여러 가지 무늬를 새겨서 그 속에 같은 모양의 금, 은, 보석, 뼈, 자개 따위를 박아 넣는 공예기법

26) [네이버 지식백과] 학익진 전법이란? (선열의 지혜와 우리의 슬기 - 해상의 탱크 거북선)

3. 울산지역 학(鶴)에 대한 고찰

3-1. 역사적 배경

울산이 학의 고을이었다는 사실을 역사적 문화 배경을 통해 살펴본다. 울산은 예로부터 학의 고장인 ‘학성(鶴城)’으로 불려왔다. 울산의 관아 건물이나 암각화, 학성공원 등 곳곳에서 학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 울산에서 학과 관련된 설화는 신라 말 호족 박윤웅(朴允雄)에 의해 생겨났다. 901년(효공왕5) 쌍학(雙鶴)이 온통 금으로 된 신상(神像)을 물고 계변성 신두산에서 울었다고 한다. <그림 14>에서 계변성은 신학성의 장군 박윤웅의 등장으로 신학성(神鶴城)으로 바뀌었고, 고려 성종(成宗, 981-997) 때 학성(鶴城)은 울산의 별호(別號)가 되었다. 조선시대²⁷⁾ 관아 명칭에 학이 표현되어 학이 갖는 상징성과 별호 학성을 주목²⁸⁾했는데 이에 관련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그림 14> 경상도지리지울산군 1425.

<그림 15> 신증동국여지승람 울산군 1530.

<그림 16>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조선 후기 울산지역 1867.

문헌 <그림 15>에서 보면 고려시대 태화루에 기록을 남긴 김극기는 “세상에 전하기를, 계변천신이 학을 타고 신두산(神頭山)에 내려와서 사람의 수명과 복록을 주관하였으므로 학성(鶴城)이라 부른다고 한다.”라고²⁹⁾ 했다. <그림 16> <대동여지도>에 보이는 조선 후기 울산지역 권역에서는 학과 관련된 무학산, 학성, 회학, 비학, 학소대의 지명³⁰⁾이 있다. 또한 학에 조예가 깊은 철새홍보관장 김성수는 학 관련 역사 장소인 울산 학성동 학성공원의 정상에 <신학성(神鶴城)>이라고 새겨져 있는 자연석은 원래 <계변성(戒邊城)>이라는 이름이었으나 신라 때 <신학성(神鶴城)>으로 고쳐졌다고 전한

27) 울산광역시는 조선시대에 크게 언양현과 울산군(도호부), 경주에 속한 외남면(현재 울주군 두동면)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외남면은 1906년 울산으로 편입되었으며, 언양군은 1941년 울산군에 통합되었다.

28) 울산대곡박물관, 《학성, 학이 날던 고을 울산》, 울산광역시 승격 20주년 제1차 특별기획전 도록, 2017. p.18.

29) 울산대곡박물관, 같은 도록. pp.26-27.

30) 울산대곡박물관, 같은 도록. p.19.

다. <세종실록지리지>를 완성하는데 근간이 된 <경상도지리지>의 경상도 울산군 편을 살펴보면 ‘울산군은 본래 계변성이었는데 신라 때 신학성으로 이름을 고쳤다. 그 이름이 학성인 것은 천복 원년(901)에 한 쌍의 학이 온통 금으로 된 신상(神像)을 물고 계변성 신두산에서 울었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겨 신학이라고 불렀다.’라고 기록³¹⁾되어 있다. 이를 근거하는 자료는 <그림 17>이다.



<그림 17> 학성공원 신학성(神鶴城)이라는 글자 음각



<그림 18> 반구대(포은대) 학 그림

또한 바위에 글과 그림이 함께 새겨져 있는 <반구대(포은대)>에 관한 김성수의 학 이야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집청전 맞은편 바위에는 <그림 18>과 같이 두 마리의 학 그림과 함께 ‘학소대(鶴巢臺)’라는 글자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이 바위는 학 두 마리가 한 다리로 서서 부리로 깃을 고르는 듯한 형상을 해 ‘화학암(畫鶴巖)’이라고 불리고 있다.³²⁾ 현재는 울산 철새홍보관 로비에서 탁본으로만 볼 수 있다고 한다.

신학성과 산 이름, 반구대에 관한 문헌 내용을 살펴보면 울산의 역사적 배경에서 학 이야기는 문화예술 활동의 근원이 된다.

다음은 울산의 학 문화에서 울산이 학의 고장임을 짐작케 하는 학 문화의 흐름을 살펴본다.

31) [자료 출처] [(5) 신라시대 울산을 지키고, 고려시대 울산을 다스린 계변성(戒邊城) : 제1편] 경상일보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6369>

32) [자료 출처] [김성수의鶴이야기]-3. 경상일보(<http://www.ksilbo.co.kr>) 2009.03.04

3-2. 울산의 학(鶴)과 문화

울산의 학 문화를 보여주는 울산동헌의 <편액>과 <태화루>에서 지은 주요 시, 그리고 <반구대(포은대)>에 새겨진 학 이미지를 기록한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계변천신> 설화를 바탕으로 한 울산학춤에 관한 김성수의 학 문화 연구에 대한 논문과 문헌을 통해 학춤의 흐름을 파악해본다. 또한 현재 울산에 지어진 학을 형상화한 건축물을 조사하고 지역 내 뿌리내린 학 문화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울산이 학과 얽힌 이야기는 조선시대 관아 이름에서 그 시작을 찾을 수 있다. 울산동헌을 <일학헌(一鶴軒)>, <반학헌(伴鶴軒)>이라고 불렀는데 당시 울산 지방관과 선비들의 학에 대한 생각은 건물의 기문, 상량문에 담겨있다. <그림 19>에서는 김호(金灝)가 지은 일학헌기에 보면, 김수오(金粹五)는 1680년(숙종6) 울산부사로 부임하여, 이듬해 동헌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일학헌>이라 하였다. 울산의 별호를 ‘학성’이라 취했는데 송나라 조열도가 축으로 부임할 때 학 한 마리를 데리고 간 고사를 차용했다. 김호는 조열도와 같이 청렴하고 강직한 관리를 꿈꾸었지만 부임한 지 한 달이 못되어 울산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일학헌> 김호의 기문 내용은 <그림 2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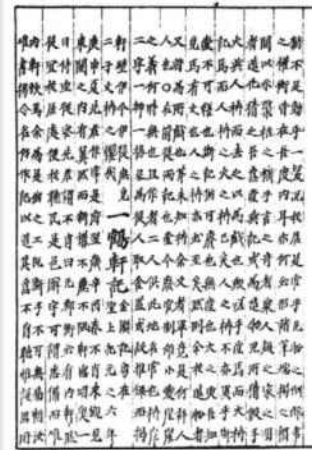
하루는 조용히 모시고 앉았는데 선군(先君)³³⁾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릇 군아(郡衙)에는 반드시 내헌(內軒)이 있고 난 뒤에야 거쳐하기에 좋고 백성의 사정을 듣기에 편리하다. 이 고을은 해우(廨宇)를 다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오직 내헌이 결여되어 있다. 내가 이 때문에 그것을 창건하기로 하여, 공사가 이미 손을 놓았는데 편액이 없을 수는 없다. 네가 아름다운 이름을 글씨로 써서 걸고, 기문도 지어서 그 뜻을 이야기하도록 해라.”³⁴⁾하였다.



<그림 19> 울산동헌 일학헌 편액



<그림 20> 울산동헌 반학헌 편액



<그림 21> 김호의 기문, 영남읍지 울산부, 1871.

33) 선군(先君)은 이 가문의 김호(金灝)의 부친인 김수오(金粹五)를 가리킨다.

34) 울산대곡박물관, 같은 도록. pp.46-48.

김호의 기문 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선천이 뜻한 바대로 고을의 이름을 ‘학성’으로 취하고 조열도의 고사를 차용하여 울산의 동헌을 <일학헌(一鶴軒)>이라 하였다. 1763년(영조39) 홍익대(洪益大) 부사는 <일학헌>을 중창하고 이름을 <반학헌(伴鶴軒)>이라고 <그림 20>과 같이 고쳤는데 반학은 학과 짝을 이룬다는 뜻으로 울산동헌에 홍익대 부사의 <반학헌상량문>에 <그림 20>이 남아있어³⁵⁾ 울산 관아 이름에서 그 시대의 동헌의 역할과 환경 알 수 있다. 또한 <일학헌>의 시에 차운한 권상일의 글과 학 관련 문헌을 보면 학을 신성시 한 사람들의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그림 22>와 같다.

청헌(淸獻)³⁶⁾의 배에 데리고 있던 학(鶴)이
 높은 동헌(東軒)에 편액(扁額)으로 걸려 있네.
 정신은 강에 비친 달에 가득하고
 금운(襟韻)³⁷⁾은 대숲에 부는 바람에 느긋하네
 조용히 앉아서 글을 읽고
 깊이 생각하며 정무를 처리하네.
 옛사람이 남긴 시 구절이 있기에
 읊조리고 나서 또 머뭇거리네.

(권상일, 『청대집』 권2 「시」)



<그림 22> 청대집의 시

당시 학에 대한 김호의 꿈과 <일학헌>의 시에서는 청렴한 선비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태화루에서도 <편액>과 학이 등장하는 시와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원 태화루는 임진왜란 때 없어졌고, 이후 복원되지 못했다. 조선 후기에 울산 객사(학성관) 남문루

35) 울산대곡박물관, 같은 도록. p.55.
 36) 청헌(淸獻)은 중국 송(宋)나라 조변(趙抃)의 시호이다.
 37) 금운(襟韻)은 가슴에 품은 도량이나 운치이다.

에 태화루 편액을 걸고 태화루라 불렀는데 이를 ‘후기 태화루’라 부른다.³⁸⁾

태화루가 가진 역사적 의미는 기록만 놓고 보아도 서기 997년에 울산을 찾은 고려 성종 임금이 태화루에서 군신을 모아놓고 연회를 베풀었다고 한다. 왕이 정치적 행위를 했던 곳인 만큼 당시 이곳이 울산을 대표하던 장소임을 알 수 있다. 아래 사진은 후기 태화루의 신축된 모습 <그림 23>이다.



<그림 23> 울산 태화루(太和樓)

<그림 24> 울산 태화루 천정에 새겨진 정겨운 학 두 마리

후기 태화루에는 몇 가지 상징물이 있는데 그중에 <그림 24>을 보면 두 마리의 학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모습이 대들보에 그려져 있는데 흥려부의 지배자였던 ‘신학성 장군 박윤웅’과 ‘학성’이라는 울산의 별칭을 나타내고 있다.³⁹⁾ 다음은 태화루 문회에서 부사와 함께 시를 읊었다는 조관식의 시 내용을 살펴본다.

조관식(趙觀植)⁴⁰⁾ - <태화루 문회에서 박제만⁴¹⁾ 부사와 함께 읊다.>

안개 속 꽃이 아름다운 백기 고을에
 취장이 태화루에 높이 걸렸네.
 노래와 춤은 시인들 놀이가 아니니
 술잔을 들고서 시를 논평해 보세그려.
 해와 달은 북쪽 하늘에서 빛나고
 호수와 산은 바다 동쪽에서 빛나고
 호수와 산은 바다 동쪽에서 아름답네.
 거문고 울리니 학은 매화나무 아래 잠들고
 따뜻한 봄바람은 곳곳에 불어오네.

38) 울산대곡박물관, 같은 도록. p.18.

39) [자료 출처] 국회도서관, 태화루:건립기념백서 부록/울산광역시 2015. p.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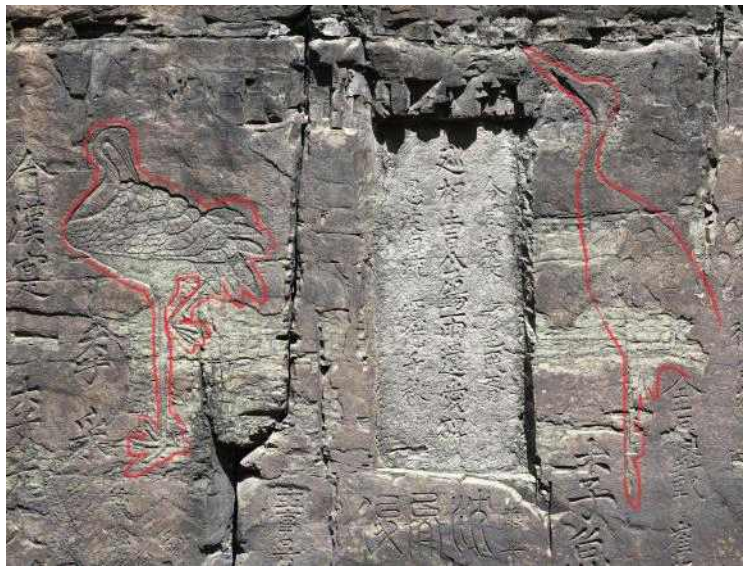
40) 조관식(趙觀植, 1830-1884)은 울산 출신 사람이다. 본관 함안(咸安), 호 광현(光軒)이다. 1830년(순조30) 울산 학남리(鶴南里)에서 출생했다. 저서에 『광현유교(光軒遺稿)』가 있다. 조관식은 자신이 지은 한시에서 울산지역의 선비와 수령이 태화루에서 벌인 문화의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태화루가 관민동락(광민동락)의 현장임을 보여주고 있다. / 번역 송수환

41) 박제만은 울산부사로, 1877년(고종14)에 부임해서 1881년(고종18)에 이임했다.

조관식의 시에서도 그렇듯이 학은 선비들이 즐겨 쓰던 시의 소재로 그 내용은 학의 고고한 기품과 정서를 드러낸다. 또한 학은 울산의 대표 문화재인 암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는데 암각화는 ‘인류의 소통’과 ‘문화예술의 뿌리’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조상들의 생활문화를 가장 근접하게 찾아볼 수 있는 대체 문헌이기도 하다.⁴²⁾ 울산에는 이런 역사적 산물인 <반구대(포은대)>의 암각화가 문화유물로 남아 있다. 각화에 새겨진 학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 학을 보지 않고는 나타낼 수 없는 사실성이 <그림 25>, <그림 26>에서 드러난다. 그 당시 울산사람들이 경치 좋은 곳에서 학을 바라보며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각화에 새겨 표현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25> 울산 내오산 학 그림 탁본



<그림 26> 반구대(포은대)에 있는 두 마리 학 그림

이렇듯 울산의 학 문화는 다양한 형태로 울산의 문화·예술 분야에 영향을 주었는데 그중 춤으로 학을 표현한 울산학춤의 창시자 김성수⁴³⁾라는 인물이 있다.

학춤(鶴춤)이란 학의 움직임은 춤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즉 학의 모든 움직임을 춤으로 재현해 율동적인 모방행위를 통칭하여 학춤이라 한다.⁴⁴⁾ 현재까지 알려진 학춤으로는 학무(鶴舞), 동래학춤, 사찰학춤, 양산학춤, 울산학춤 등이 있는데 학춤이 전승되어 온 과정과 의미, 유형별 특징 등을 <그림 27>에서 살펴본다.

42) 고경희, 백현순(2010). 한·중앙아시아 암각화에 나타난 ‘舞’와 ‘樂’의 의미. 한국체육사학회지, 15(1). pp.84-85.

43) 김성수는 1953년 4월 25일 양산군 동면 내송리 233번지에서 태어나 8세 때 부산 동래로 이사를 한 후 그곳에서 성장했다. 부친인 김덕명으로부터 양산학춤을 배웠고, 그 후 1981년 양산 통도사로 출가했다. 집안에서 내려온 전통춤 가계를 이어받아 1997년 울산지역에 본적을 옮기고 울산학춤을 연구 개발하여 보존·전승 활동해 온 춤 세계를 통해 열정이 담긴 예술혼을 존중받고 있다. 현재 울산학춤보존회 명예고문이며 울산철새홍보관 관장이다.

44) 김성수, 『사찰학춤 연구』, 서울 : 도서출판 한림원, 2003. ii.

구분	이미지	역사 유래 문헌 자료	행사장소	의미	학춤 동태	춤 종류	복식
궁중학무 (鶴舞)		고려시대 (1367년경) 세조 때 처용무 연화대와 합설한 기록 증명	궁중 행사	태평성대 축원	단아함 절제미 탈 학춤	·	학 탈
사찰학춤		불교에서 승려들에 의해 전승. 불교 1950년	통도사	깨달음의 단계	자연적 동태 관학춤	학 작 법 24	갓, 탕근 도포 도포띠 미투리
동래학춤		민속악무의 특기장면에서 김귀조, 김필상 등에 의해 전승	동네야유	민속무 풍년기원	청초하고 우아함 예술성	20	갓 광장수 겉 옷
양산학춤		19C 추정 사찰학춤이 민간으로 전해져 김덕명에 의해 추어진 춤으로 추측됨	공연장	태평성대 기원 민속무	민속적인 소박성 표현 갓 학춤	24	갓 광장수 겉 옷
울산학춤		계변천신 설화 1997년 울산학춤 보존회 설립	울산학춤 보존회 태화루 공연장	선비의 정신 진경(進 慶)	다양한 춤사위 표현 승화 갓 학춤	10	갓 광장수 겉 옷 도포 띠

<그림 27> 학춤의 유형 특징 45)

학춤의 유형을 구분하여 그 유래와 의미를 살펴보았다. 고려시대 학무의 기록에 의하면 궁중 학무는 궁중 행사의 축원으로 쓰였으며 사찰학춤은 불교의 승려들에 의해 계승·발전되었음을 문헌의 기록으로 알 수 있다. 동래학춤과 양산학춤은 통도사 학춤에서 비롯된 불교 사상을 바탕에 둔 민속 학춤으로 전해졌다. 울산학춤으로 재현된 시기는 가장 늦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동해나 울산은 잣나무 그늘>의 저자 이상도는 “우리 민족의 정신적 고향이 단군신화라면 울산사람들의 정신적 고향은 계변천신의 신화에 있다.”라고 한다.⁴⁶⁾ 또한 김소양의 학위논문에 의하면 “학을 신성시하고 불교

45) 김성수, 같은 책, pp.10-21.

46) 이상도, <동해나 울산은 잣나무 그늘>, (한국전력공사 울산화력발전처, 2000) p.125.

를 숭상하는 마음, 설화를 통한 춤 문화 형성, 호학의 정서 등은 과거 학춤이 추어졌을 개연성을 높이는 문화적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⁴⁷⁾하였다.

설화를 바탕으로 울산학춤보존회가 설립되고 선비의 정신과 진경을 의미하는 다양한 춤사위가 표현된다. 울산에 정착한 뒤, 계변천신 설화를 접한 김성수는 울산학춤의 정체성에 대해 큰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사람들이 병 없이 부자로 오래 살도록 축원하는 내용의 설화를 통해 학의 생태학적 특성을 연구하고 학의 고고한 몸짓을 춤사위에 그대로 녹여내 학춤은 울산을 대표하는 춤으로 완성되었다. 대대로 오랜 세월 동안 학을 소재로 학춤을 연구하고 전승해온 김성수는 오랜 세월 문헌 연구와 공연을 통해 학춤을 이어온 살아있는 인간문화재로 짐작된다. 학춤의 정신과 동태를 그대로 이어온 험난했던 전승 과정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다. 울산학춤이 현대로 이어온 것에는 관련한 기록을 연구하고 이를 계승하기 위한 그의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물은 인간과 일상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삶을 공유하는 친구이자 위로와 교훈을 주는 대상이다. 사람에게 동물은 치유와 놀이를 같이하는 타자로서 유희가 되는 생명체이기에 동물의 습성을 모방하여 놀이에 등장시키는 일은⁴⁸⁾ 춤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문헌과 설화를 바탕으로 한 울산의 학 문화는 울산동헌의 편액과 태화루의 주요 시, 반구대(포은대)에 새겨진 학 그림과 울산학춤 등을 통해 현대에 이르기까지 울산의 지역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화강을 비롯한 울산지역은 학의 서식하던 고을이었음을 문헌을 통해 추측할 수 있으나 현재 울산에서는 학이 발견되지 않는다. 울산이 공업도시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학이 울산에 왔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김성수⁴⁹⁾는 말한다. 앞으로 생태계 복원에 주력하여 학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과거 사람들이 학을 가까이 두고 느꼈던 정서와 감흥을 재현할 수 있으리라 추측된다.

울산에 설치된 조형물의 대상으로 학이 주로 등장한다. 대표하는 조형물로는 울산 울주군 진하리와 강양리를 이어주는 명선교(名仙橋, 2010)와 울산 중구 반구동과 남구 삼산동을 잇는 학성교(鶴城橋, 1994)가 있다. 명선교는 울산야경 다리 중 하나로 다리 위의 구조물은 쌍학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학성교는 학이 있던 성이라는 의미⁵⁰⁾의 ‘학성’에서 그 이름이 유래가 되었다.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의 외형의 상징적 특징은 울산의 시조인 학의 이미지를 부여한 것이라고 한다.⁵¹⁾ 울산 학성의 학과 태화

47) 김소양, <울산학춤의 생성 배경과 변천>, 경북대학교 이학박사학위논문, 2011. p.84.






48) 김지원, 같은 책. p.93.

49) 김성수는 1953년 4월 25일 양산군 동면 내송리 233번지에서 태어나 8세 때 부산 동래로 이사를 한 후 그곳에서 성장했다. 부친인 김덕명으로부터 양산학춤을 배웠고, 그 후 1981년 양산 통도사로 출가했다.

50) [자료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향토문화전자 대전 학성교(鶴城橋)

51) [사진 자료] 문수 축구경기장 홈페이지. http://munsu.uimc.or.kr/football/football01_2.php

강 동굴피아 광장의 학 분수대, 철새홍보관 1층에는 반구대 학 암각화를 형상화한 다양한 조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울산은 학의 고장임은 틀림이 없다. 조형물에 나타난 학의 형상은 <그림 28>에서 확인할 수 있다.

	
<p>명선교(名仙橋) 구조물 - 쌍학</p>	<p>울산 학성의 학 4마리</p>
	
<p>학성교(鶴城橋)</p>	<p>태화강 동굴피아 광장에 학 분수대</p>
	
<p>문수 축구경기장</p>	<p>울산철새홍보관 1층 - 반구대 학 암각화</p>

<그림 28> 학의 모습을 형상화한 조형물⁵²⁾

54) [사진 자료] https://blog.naver.com/ulsan_nuri/222548685017. 울산광역시 공식블로그
네이버 지도 홈 - 거리뷰, <https://blog.naver.com/dudhkdql/221007354154>
[ANOTHER FOOTBALL ~ 또 다른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4512>. 울산매일

Ⅲ. 작품의 구조분석 및 의미해석

연구자의 출생과 시대, 사회적 배경들과 심리를 통해 작품의 의미를 해석해 본다. 여기서는 연보를 중심으로 연구자의 삶의 흐름을 살펴본다.

1. 연구자의 출생과 성장배경

1977. 울산 출생

아버지(김진춘, 金鎭春, 1948-)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김녕 김씨 28대손으로 3남 2녀 중 장남으로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가 뛰어나 무엇이든 직접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차분하고 선한 성품으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어머니(김기연, 金己蓮, 1950-)는 2남 1녀 중 외동딸로 태어나 부유하게 자랐으며 가정에 헌신하는 가정주부로 살고 있다. 성품이 바르고 부지런하여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연구자는 울산 남구 공업탑 로터리 부근 시영아파트에서 1977년 1월 27일 부 김진춘과 모 김기연의 1남 2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다. 어머니의 태몽에 의하면 깊은 산에서 큰 호랑이가 어머니의 등을 덮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나셨다고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내심 아들이길 바랐으나 딸이 태어나 조금 실망하셨고 아버지는 막내딸이라는 이유로 연구자를 많이 예뻐하셨다.

1983. 첫 미술학원

연구자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부모님은 그런 연구자를 보고 늘 흐뭇해하셨다. 어머니는 연구자가 7세가 되었을 무렵, 유치원과 미술학원을 보내주었는데 미술학원 원장은 그런 연구자를 안고 그림을 가르쳤다. 연구자는 그 따뜻한 느낌이 좋아서 그림을 잘 그리고 싶었던 기억이 있다.

1984-1990. 신정초등학교 졸업 / 화가 캐릭터

6학년 6반 담임의 권유로 학교 뒷문에 있는 표현미술학원에 다니게 된다. 그곳에서 서양화가로 활동하는 박덕찬(朴德讚, 1956-2004)원장을 만나 소묘, 수채화를 배우게 되고 이후, 각종 미술대회에 참가하여 다수의 상을 받았다. 하루는 담임이 학교 신문의 그림을 연구자에게 맡겼는데 학교 소식을 전하는 화가 캐릭터가 친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일을 계기로 연구자는 친구들에게 그림 선물을 자주하게 되었다.

1990-1993. 대현중학교 1회 졸업 / 미술대회

중학생 시절, 매년 열리는 미술대회에서 늘 상을 받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상은 과학 상상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경상남도 내 전체 1등 상을 받은 것이다. 경남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서울을 가게 되었는데 대회 장소는 서울의 중심에 자리한 63빌딩(63

스퀘어)이었다. 당시 빌딩 내부에 있던 아쿠아리움을 처음으로 방문하였고 전망대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아주 특별한 날을 가족들과 함께했다.

1993-1996. 울산예술고등학교 1회 졸업 / 전공 변경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겨울 방학 무렵, 연구자는 서울의 홍익대학교 근처의 미술학원에서 수채화와 데생을 배우며 하숙을 시작했다. 당시 입시 미술은 기계처럼 찍어내는 외우기식 그림을 배우던 시절이었다. 당시 서양화를 전공으로 입시를 준비하던 연구자가 전공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되는데 데생을 가르치던 선생의 작품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이다. 그의 작품은 흰 바탕에 검은 말이 뛰고 있는 이미지로 한 필의 붓질에 생동감이 넘치는 말의 움직임이 표현된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이다. 그 후, 한지 위에 먹이 스미는 느낌을 좋아하게 되었고 색의 중첩 효과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한국화 작품과 재료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연구자는 결국 동양화로 전공을 바꿔 대구대학교 회화과에 합격하게 된다.

1996-2000. 대구대학교 회화과 졸업

대학 생활의 모든 것은 새롭고 신기했다. 넓은 캔버스 안에서의 자유로움을 마음껏 만끽했으며 사계절의 순간을 온전히 두 눈에 담을 수 있었던 대학 생활이 아주 행복했다. 대학 수업은 전공 실기로 수묵산수화, 인물화, 누드드로잉, 비구상, 채색화를 그렸으며 졸업 작품으로 인물 채색화를 그렸다. 연구자는 졸업 작품을 준비하던 중 IMF로 인해 가정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미술학원 강사 일을 시작했는데 부모님은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색 한번 없이 용돈을 보내주셨다.



<그림29> 외출 112X146cm
장지, 수간분채, 토분



<그림30> 외출 162.1X130cm
장지, 수간분채, 토분

<그림29>, <그림30>은 외출하기 전과 후의 모습으로 외출을 준비하는 모습과 외부

에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을 그렸다. 인물의 표정과 동작에서 사색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고 흐릿한 배경처리는 심의 공간으로 표현했다.

2000-2002. 부모님의 귀환

대구에서 미술학원 강사 일을 하고 있던 시절 집안의 가세는 점점 기울어 모든 가족에게 힘든 시기가 찾아왔다. 부모님은 망연자실하셨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으셨다. 부모 없는 자식으로 살아갈 아이들이 걱정되어 떠난 발걸음을 다시 돌리셨다던 부모님이 걱정된 연구자는 울산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당시 우리 가족이 살던 집은 할아버지가 살던 집을 아버지가 직접 설계에 참여해서 다시 지은 집이었는데 가끔 그때 함께했던 가족들과의 행복했던 시절이 생각난다. 그리고 빨간색 딱지가 붙어있었던 집안의 가재도구와 세간 살림들이 떠오를 때면 불현듯 물건에 대한 집착과 미련이 사라짐을 느낀다.

2003. 결혼

가정의 힘든 시기는 꽤 오래 지속되었다. 연구자 역시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의 시간을 보냈다.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금전적인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부모님이었지만 연구자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은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고 결국 스스로를 낙담하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 한일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온 국민이 붉은 악마가 되어 스포츠에 열광하던 시기에 연구자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기대고 의지할 곳이 있다는 믿음이 생기니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 결국 다음 해인 2003년 연구자는 결혼을 한다.



<그림 31> 가족. 수묵 인물화 40.9X31.8cmX3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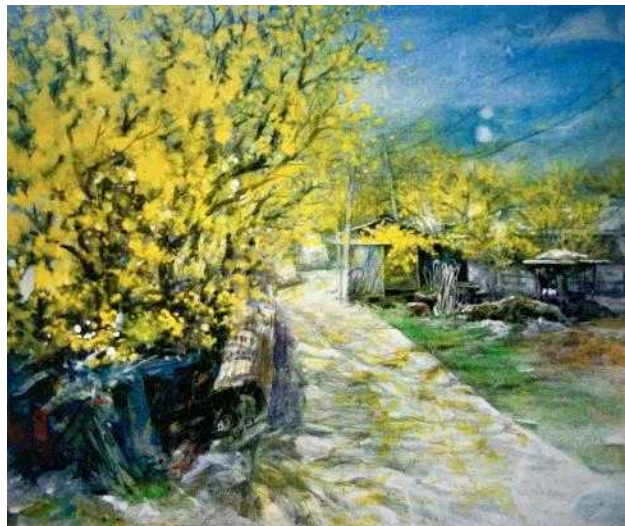
연구자는 30대 초반에 이미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육아는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았지만 연구자의 작업은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고 난 늦은 밤이 되어서야 시작할 수

있었다. 작업에 몰입되어 밤이 세는 줄도 모르고 아침 해가 뜨는 것을 자주 보았다. <그림 31>은 그 시간의 결과물이다. 가족들의 미소 짓는 모습을 수묵 인물로 표현했다.

2006. HongKang 2006::Art Festival 홍강아트페스티벌 전시 참여

홍강아트페스티벌 전시에 초대된 작품인 <그림 32>를 보면 자연이 주는 색채를 담고 있다. 시골 풍경과 꽃의 다채로운 색채에서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다. 당시 힘든 결혼생활로 우울한 감정이 짙어진 연구자는 작품을 통해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려 노력하였다.

둘째를 양육하면서 부부 사이에는 대화가 사라졌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채 배우자에 대한 의문과 원망이 쌓여 갈 때쯤 연구자는 도형심리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 도형심리는 내담자가 그린 도형을 보고 타고난 성향과 환경에 의한 변화된 성향을 파악해 자신을 알고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이 담긴 미술 심리의 일종이다. 연구자는 도형심리를 통해 본인과 배우자의 성향을 이해하게 되면서 인간의 심리와 관계성에 관해 관심을 두고 접근하게 된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과정은 연구자의 작품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32> 홍강아트페스티벌 리플릿과 참여 작품

2007. '달콤한 낮잠'

육아는 밤, 낮을 가리지 않는다. 육체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은 조건이 없는 내리사랑임을 절실히 느끼는 시간들이었다. 편안한 오후 시간, 아이와 함께 낮잠을 자는 모습을 배우자가 사진을 찍어주었다. 보고만 있어도 사랑스러운 모자의 모습이다. <그림 33>, <그림 34>는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진심이 담겨 있다.



<그림 33> 달콤한 낮잠 130X97cm 장지, 수간분채 토분 2007.



<그림 34> 바라만 보아도 좋아 90.9X72.7cm oil pastel

2008. 제8회 한마음미술대전 - 전체대상

한마음미술대전은 울산광역시 남구문화원에서 주최, 주관하는 전국 공모전이다. 연구자는 제8회 한마음미술대전에서 한국화로 전체대상을 받게 된다. 붉은색 나비장은 묵묵히 서 있는 사람이며 주위를 날아다니는 나비는 꿈을 잊은 채 살아가는 현대인이다. 달혀있는 장은 폐쇄된 마음이며 무수한 인간관계 속 나비는 각자의 길을 간다. 한지를 붙이고 뜯어내는 과정을 통해 나비장의 달힌 마음은 서서히 열려가고 중국엔 자유를 찾아간다. 한국화에 콜라주 기법을 사용한 것은 이 과정을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한국의 경제는 취업률이 저조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았고 연구자의 주변에도 각자 다른 상황으로 내적 갈등을 겪는 지인들이 많았다. 연구자는 그들의 고통을 동감하며 억압된 감정의 관계를 표출하여 자유롭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작업에 임하게 되었다. <그림 35>는 붉은 나비장의 작품 이미지이다.



<그림 35> 붉은 나비장 50F, 장지, 채색, 은박, 종이, 풀, 자개 2008.

2010. 제8회 한마음미술대전 대상 작가 초대전

한마음미술대전에서 전체대상을 받으면서 초대 개인전이 열리게 된다. 붉은 나비장에서 나비들이 분리되어 각기 다른 공간에서 하나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비 형상을 드러낸다. 사람은 스스로 꿈을 꾸고 행동해야 한다. 그 과정은 내가 존재함을 드러내는 길이다. 제작은 붓으로 그리지 않고 금박으로 나비 형상을 만들어 붙이는 과정이었다. 얇은 금박으로 형상을 만들어 붙이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험난한 길을 가는 나비의 모습에는 연구자의 고단한 과정이 함께 녹아 있다. <그림 36>은 전시장 풍경과 작품 이미지다.



<그림 36> 한마음미술대전 대상 수상 작가 초대전 _ 울산남구문화원

2011. 애플미술교습소 운영

사람은 누구나 힘든 시기가 찾아온다. 연구자 역시 내적 갈등과 우울감을 느낄 때가 있었지만 늘 그 마음은 그림으로 풀어내고자 했다. 작업의 재료는 종이, 자개, 금박, 은박을 콜라주 기법으로 표현하고 장지 위에 채색과정을 거쳤다.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형상들은 스스로의 내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림 37> 愛 40X40cm 장지
수간분채, 은박

<그림 38> 봄날 80X40cm 장지, 수간분채, 금박, 자개, 무늬지

연구자에게 그림은 내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다. <사진37>, <사진38>은 가까운 사람과의 소통이 힘들고 인간관계의 불안함을 느끼던 시절에 그려진 그림이다. 스스로를 일으키며 긍정적이고 싶은 간절함이 작품을 통해 드러난다.



<그림 39> 애플미술교습소 외부



<그림 40> 애플미술교습소 내부

울산 중구 태화동 소재의 초등학교 인근에서 애플미술교습소 <그림 39>, <그림 40>⁵³⁾를 운영하게 된다. 상호인 ‘애플’은 열정과 따뜻함이 담긴 붉은색과 둥근 지구의 모양을 한 사과의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연구자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아동 심리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교습소를 운영하며 아이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개별 미술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 과정은 연구자는 자신의 아이를 교육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나아가 인간관계의 방식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진 41>은 아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이미지들이 모여진 작품이다. 밤하늘을 밝혀주는 민들레 흩씨 배를 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동화처럼 그렸다.



<그림 41> 민들레 흩씨를 타고, 장지, 채색, 자개 116.7X91cm 2010.

53) [사진 자료] 네이버 블로그 아나몰픽 <https://blog.naver.com/chsh5814/130141256572>

이 작품은 교습소를 운영하는 여성작가 3인(김언영, 백정애, 최미나)과 함께 가족과 사랑을 테마로 한 ‘동심전(童心展)’에 소개되었다. 교습소 아이들과의 협업작품인 <그림 42>도 동시에 전시되었다.



< 그림 42> 2011. 동심전, 울산대공원 전시장

<그림 43>은 나의 시간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면서 제작된 작품이다. 낮에는 교습소를 운영하며 밤에는 작품 활동을, 그리고 수시로 가정을 돌보아야 일은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늘 깨어있어야 했던 시간은 연구자에게 육체적인 고단함을 주었지만, 작품에 몰입되는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흘러가는 시간 그리고 집중된 시간들, 현실의 그 모든 순간이 시계추처럼 흔들리며 ‘시간’은 연구자를 성장시킨다.



<그림 43> 감성 추 장지, 수간분체, 무늬한지, 금박, 금분

2011. 제15회 울산미술대전 - 전체대상

울산미술대전은 전국 공모로 울산미술협회가 주최 주관하고 울산광역시가 후원한다. 당시 578점의 작품이 출품되었는데 연구자가 전체대상을 수상하게 된다. 2011년은 토끼의 해로 생동감 있고 신명 나는 십이지신(十二支神) 토끼를 그렸다. 작품 오른쪽에는 부귀영화(富貴榮華)를 누리라는 의미로 모란을 그리고 배경에는 하늘을 향해 상

승하는 금박(金箔) 나비들로 채웠다.



<그림 44> 울산문화예술회관 1전시장



<그림 45> 2011. 100F 장지, 채색, 금박

세필로 섬세함을 표현하고 중첩된 색채로 작품의 깊이를 더했던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그림 44>는 당시 제15회 울산미술대전 전시장의 모습이며 <그림 45>는 2011년 한해 많은 사람이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祈願)하며 그린 대상 작품이다.

2012. 울산청년작가회 활동

울산청년작가회의 주최로 '찾아가는 게릴라전'이 울산에 있는 도서관(남구, 중구, 동구, 울주군)에서 열리게 되었다. 도서관을 방문하는 울산시민들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황리에 막을 올린 전시회는 한글날을 맞아 그린 <그림 46>의 아름다운 이끌림이 큰 호응을 받았다. 이 작품은 왕과 신선들이 행렬하는 김홍도의 '군선도'를 모사하였다.



< 그림 46> 아름다운 이끌림 348X90cm 장지, 채색, 한지 2012.

54) [사진 자료] 네이버 블로그 아나몰픽 <https://blog.naver.com/chsh5814/130141256572>

2014. 울산청년작가회 회장 / 올해의 작가 초대전

울산에 있는 대학병원의 원내 <그림 47>에서 열린 ‘힐링전(Healing exhibition)’이 시작되면서 연구자는 울산청년작가회 회장(2014-2018)을 역임하게 된다. 전시장이 아닌 공간을 새롭게 전시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은 칸막이와 조명을 설치하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다. 이 전시를 계기로 연구자는 전시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공간과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찾아가는 예술이 대중에게 주는 희망을 보았다. 이후, 연구자가 기획한 ‘찾아가는 희망갤러리’가 울산공항과 종합 병원, 백화점 등의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다수의 시민에게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림 47> 2014. 울산대학교병원 로비

‘찾아가는 희망갤러리’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자 연구자는 울산청년작가회 회원들과 색다른 전시를 모색하고 전시 공간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시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양화가 박선지의 의견은 백화점을 이용하자는 것이었다. 현장답사를 통해 실제 전시 가능 여부를 파악하였고 전시 관련 담당자를 설득하여 백화점과 극장을 연결하는 통로에서 정기전을 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게 된다. 청년작가회의 작가들은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전시회를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그림 48> 2015. 롯데시네마 연결통로 작품설치



<그림 49> 2018. 현대중, 고 버스 정류장

<그림 48>은 2015년 당시 울산 롯데시네마 정기전을 기록한 사진들이다. 또한 <그림 49>는 울산 방어진 현대중, 고등학교 버스 정류장 내부를 시민들을 위한 문화 갤러리로 공간을 조성한 모습이다. 그 당시 울산청년작가회 소속 기라영의 기획과 울산청년작가회 회원들의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2014년 ‘올해의 작가전’에서는 사람이 아닌 돼지가 작품의 주제가 되었는데 그 배경은 민화의 주요 소재인 모란을 접하게 되면서 연구자가 본격적으로 민화에 빠져들기 시작한 까닭이다. <그림 50>, <그림 5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50> 하늘 보기 I. 162X112cm 장지 <그림 51> family 162X112cm 장지, 수간분채 2014. 수간분채, 필 2014.

누구나 부귀영화를 꿈꾼다. 시대가 흐르고 많은 것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일 것이다. 모란은 예로부터 민화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로 부귀영화를 상징한다. 연구자가 생각하는 모란의 매력은 탐스러운 꽃망울과 생동감을 주는 붉은색의 따뜻한 기운이다. 돼지 역시 복을 부르는 상징물로 부드러운 곡선의 귀엽고 익살스러운 캐릭터가 이미지화되었는데 돼지들은 모란이 꽃피는 세상에서 서로의 관계성을 유지하며 아름답게 살아간다.

<그림 52>는 ‘2014 올해의 작가 개인전’ 전시장의 풍경과 연구자의 작품 제작과정을 찍은 이미지다.



<그림 52> 올해의 작가 개인전 관련 이미지

2015. 융복합문화예술공간 김C 화실 운영

교습소를 그만두고 한동안 개인 작업에만 몰두하던 연구자에게 작업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 울산시 중구청에서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울산의 문화예술 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었다.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기준과 자료 심의를 통과해야 했는데 연구자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활동의 결과물은 심의를 통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후, 울산 중구 시계탑사거리 인근 건물 <그림 53>은 연구자가 꿈꾸던 개인 작업 공간이 된다.



<그림 53> 울산청년작가회 소품전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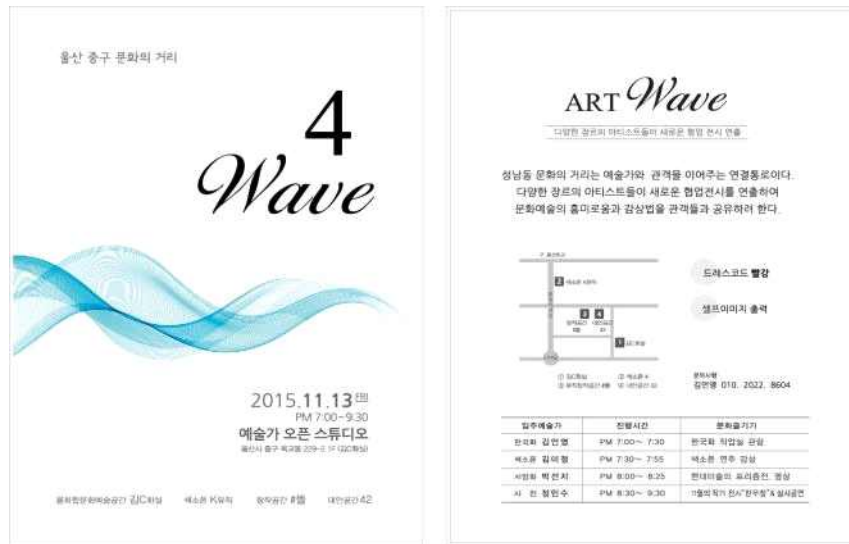
<그림 54> 바람에 머문다. 화실 회원전 2016.

김C 화실은 연구자에게 희망의 공간이다. <그림 54>는 미니갤러리 공간으로 부채전이나 화실 회원전, 울산청년작가회 단체전 등 소품 위주의 전시를 주로 했으며 그 외의 공간은 오픈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낮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민화 수업을, 늦은 밤에는 개인 작업을 병행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림 55> 4Wave 예술가 오픈 스튜디오 전시 관람 2015.

그리고 화실이 자리한 울산 중구 성남동 인근에 함께 입주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모여 '4Wave'라는 4인의 예술가 협업 전시를 연출하였는데 <그림 55>는 한국화, 색소폰, 영상, 사진으로 이루어진 성남동 문화의 거리 오픈 스튜디오 전시 행사장의 이미지이며 <그림 56>은 '4Wave' 전시와 함께 제작된 예술가 오픈 스튜디오 엽서의 이미지이다.



<그림 56> 4Wave 엽서 이미지

2017. (주)우시산, 작가와 상품 개발

울산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연구자의 작품 <그림 57>을 지역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사회적기업 (주)우시산에서 디자인 상품화에 대한 제의를 해왔다. 연구자는 이 작품에 울산을 상징하는 고래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문자도 '복(福)'을, 그리고 문자 안에는 학의 이미지를 넣었다. 이 작품은 지역적 문화 특성을 살린 관광 상품 <그림 58>로 만들어져 울산의 문화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일조하였으며 고래의 이미지 안에 울산 장생포의 전경을 넣은 책거리 쿠션 <그림 59>도 <그림 58>과 더불어 방석, 쿠션, 예코백 3종 세트로 개발되어 울산 고래 박물관에서 판매되기도 하였다.



<그림 57> 관광 상품 디자인 이미지

<그림 58> 방석을 들고 있는 모델

<그림 59> 관광 상품 쿠션을 들고 있는 연구자

2018. 현촌 고광준(玄村 高光俊 1958-) 명인과의 만남_색채를 탐하다.

2018년은 민화가 봄이 일어나기 시작한 때였다. 전통 민화를 이끌어온 작가 5인의 작품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중 연구자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는 궁중장식화 부분 명인으로 개인전과 각종 수상 경력을 가진 현촌 고광준이다. 현촌은 환갑을 맞이한 2018년에 43년 민화 인생을 집결한 첫 개인전을 개최함과 동시에 ‘43년 작품의 시간, 마이웨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현재는 경기도 광명에서 한국전통채색화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색채디자인연구소 ‘전통채색화 연구과정’의 전문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 60>은 현촌의 인물사진이며 <사진 61>은 2019년 한국전통채색화연구소 회원전에 전시된 현촌의 병풍 작품이다. ‘43년 작품의 시간, 마이웨이’를 출판했던 당시 현촌을 인터뷰한 월간민화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60> 현촌 고광준 인물사진



<그림 61> 백선백접도 순지, 수간분채, 붕채 189X45.5cmX8

실용화로서 우리 그림은 혼자 만족하는 것이 아닌, 대중 속에서 살아 숨 쉬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전통 채색화에 현대적인 감각을 입히는 일이 그것이다. 그림의 형태를 부드럽고 편안하게 바꿔왔고, 다소 둥글고 여성스러운 라인이 눈에 띄는 것이 그런 노력의 결과이다. 색채 역시 강렬한 원색의 오방색보다 밝으면서도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색채를 선호한다. 오방색의 스펙트럼이 무궁무진해질 수 있다는 게 대중성에 대한 고민의 깊이에서 비롯된 고광준 명인, 자신만의 화풍이다.

- 월간민화 "people & people" 인터뷰 中에서⁵⁵⁾

현촌의 색채는 한지에 배인 은은함에서 우아함이 느껴진다. 원색으로만 사용되었던 전통 민화의 색채를 조합하고 창조하여 시각적인 다양함을 만들어내는 현촌만의 색채 연구는 민화를 더욱 친근하고 편안하게 느끼게 한다. 끊임없는 연구만이 그림을 진화시킨다는 그의 말에 공감한다. 연구자는 현촌의 작업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기 위해 그의 작업실을 찾았다.

55) [자료 출처] 월간민화 2015년10월호 <http://artminhwa.com/> 글:윤나래

<그림 62>는 현촌을 만나기 위해 울산과 광명을 오가는 기차안에서 찍은 부엉이 가방과 화구통이다. 전통 민화를 모사하고 색채를 배우기 위해 연구자는 긴시간 부엉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 매주 이른 새벽, 기차를 타고 현촌의 작업실이 있는 광명으로 향했고 자정이 되어서 울산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1년 6개월 동안 반복했다.

<그림 63>은 연구자가 현촌의 색채연구에 대해 사사 받은 내용을 메모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창작자의 색채를 온전히 내 것으로 이해하는 과정은 인내와 노력을 요하는 작업일 것이다. 연구자는 색채연구와 더불어 민화 모사를 함께 병행하며 창작자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옛 그림을 모사하는 것은 색과 선을 익히는 과정이다. 이를 반복하다 보면 형태를 인식하게 되고 종국에는 모사에 그치지 않고 창작이 가능해지는 상태에 이른다. 창작은 모사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과정이며 모사는 모든 작업의 근본에서 시작된다. 민화를 작업하는 작가와 민화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의 창작으로 나아가는 근본적인 물음에 연구자의 생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림 62> KTX 내부, 광명으로 가는 길 <그림 63> 연구자의 모습 2018.2.3.

그림은 사람의 정서에 영향을 주며 이를 통해 변화의 계기가 만들어진다. 민화가 가진 의미 또한 사람을 순화시키고 정서적 안정을 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의 민화에 등장하는 모든 소재는 길상의 의미가 있으므로 이를 모사하고 감상하는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시각적 긍정 효과를 준다. 이렇듯 민화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꿈을 현실로 이어주는 바람을 담은 그림이 된다.

2018. 태화동 지원채색화원 운영

작업 공간의 확장을 위해 화실을 울산 태화동으로 이전하였다. 민화 창작자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첫 출발이다. 민화를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고 작품을 연구하

며 연구자는 성장했다. 연구자의 첫 번째 민화 창작 공간을 지원채색화원이라 이름 짓고 그 해에 첫 번째 회원전을 개최하게 된다. <그림 64>는 당시의 전시장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다.



< 사진 64 > 2018. 지원채색화원 첫 번째 회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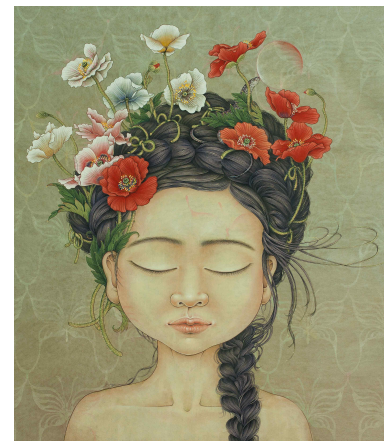
이듬해 2019년에는 국내 민화 소식지 '월간민화'에서 주최하는 'NEW WAVE 25'에 초대되었다. 새로운 시각으로 민화를 재해석한 한국 현대민화 작가 25인에 선정되어 전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림 65>는 전시회 포스터이며 <그림 66>은 당시 전시장 내부에 걸린 초대작가들의 인물 사진이다. 연구자는 이 전시를 기점으로 민화 작가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림67>의 '화인도(花人圖)'는 전 작에 비해 수채화처럼 맑고 고운 색채가 두드러진 작품으로 전시 이후에도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다. 이후, 연구자를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으로 SNS를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연구자가 작업하는 모습이나 회원전 등의 내용이 업로드되면 수업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다른 지역 작가가 연구자의 화실로 방문하는 일들도 생겨났다.



<그림 65> NEW WAVE 25인 포스터 이미지



<그림 66> 전시장 내부 인물사진



<그림 67> 화인도 (花人圖) 81X95cm 순지, 수간분채, 금분

2020. 울산대학교 대학원 입학

연구자는 평소에 해왔던 평면작업 이외에 또 다른 방식의 작업 방향과 다양한 재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울산대학교 섬유디자인과 대학원생 조철수와의 만남은 섬유라는 소재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창작 작품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실크 스카프나 블라우스 등 홈 패브릭으로 상품화하는 작업이 연구자에게는 매우 흥미로웠다. 평면작품이 아닌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상품으로 더 많은 사람이 작품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끼던 중, 신라대학교 서양학과 김덕진 교수의 소개로 울산대학교 섬유디자인과 김언배 교수를 만나게 된다. 아래 <그림 68>은 김언배의 태화강 설치미술제 초대작가 출품작이었던 ‘자유의 혼’이라는 작품이다.



<그림 68> 자유의 혼_김언배 교수 작품 태화강국가정원. 2019.

‘자유의 혼’은 마치 은하계 속 지구를 바라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천으로 감싸져 있는 풍선이 날아갈 듯하지만, 끈에 묶여 날아가지 못하는 모습! 자유로워지고 싶지만 한 곳을 뱅뱅 돌며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암시가 느껴지는 작품이었는데요. ‘자유의 혼’은 유기체적 우주이자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자기 자신을 상징하며, 또한 공중으로 상승하려는 지향성과 동시에 끈으로 묶인 억압적인 현실을 표현했다고 해요.⁵⁶⁾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일들을 언어나 행위 그리고 예술작품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해석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 이유로 김언배의 ‘자유의 혼’은 자유와 억압의 이중적인 현실을 공간과 사물로 표현해내며 대중의 절대적인 공감을 얻어냈다. 유연한 사고와 심도 있는 탐구를 통해 예술의 가치에 다가가는 연구자가 되는 길은 이런 김언배의 예술적 표현 방식을 쫓는 과정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56) [사진 출처][블로그 기자] 태화강 국제 설치미술제 '인태의 공간, 기원의 시작' 관람 후기
<https://blog.naver.com/ulsan-namgu/221700857732>

‘울산학춤’의 창시자 김성수와 만남

김성수(金性洙1953-)의 부친 김덕명(金德明1924-2015)이 소장하고 있던 8폭 병풍 <그림 69>는 전라도의 무명의 화가가 그린 학춤을 추는 2대의 모습이다. 화가는 경남 양산에서 부친의 학춤을 보고 감명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가 작품을 완성하고 이를 병풍으로 제작해 김덕명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한다. 울산학춤보존회에 방문한 연구자는 <그림 70>을 펼쳐놓고 병풍을 감상하였는데 화가의 마음이 작품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작품을 보고 마음의 울림을 느꼈다.



<그림 69> 김성수의 소장 병풍 8폭 2020



<그림 70> 울산학춤보존회 내부 공간

2대가 그려진 병풍에 대를 이어온 2대의 모습을 더해 4대가 함께하는 작업을 제의 받은 연구자는 이를 받아들여 김성수의 인터뷰 내용과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연구 내용은 본 논문의 표본작품_3에서 구조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이다.

2020. 옷발아카데미 교육 이수, 울산대학교 대학원 입학

울산 통도사의 방장스님 성파는 옷칠민화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옷발아카데미를 설립했다. 옷발아카데미는 옷칠민화와 한지뜨기 교육을 통해 옷판을 옷물감으로 채색하는 방법과 한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제작과정은 긴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다.

강의명	통도사 옷발아카데미	지역	울산 통도사 서운암
강의 일시	매주 금요일 (10:00-16:00)	강의 회차	2020.7~2021.2 / 32회
강의 과목	옷칠민화	수강인원	5인
강의내용	- 옷칠민화 기초 도안 : 모란, 연꽃, 까치 호랑이 1. 흰색 먹지 만들기 2. 옷물감 재료에 대한 강의 듣기 3. 옷판 위에 흰 먹지를 대고 볼펜으로 본뜨기 4. 옷판 위에 목본과 흰 달걀 껍데기, 자개 붙이기 5. 사포를 이용하여 옷판 다듬기, 반복 6. 옷판위에 옷물감으로 채색 후 사포로 다듬기 반복 7. 정제하기		

<표 1> 옷칠민화 교육내용

적당한 습도에 의해 물감이 건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옷판 위에 목본이나 달걀 껍데기, 옷물감을 짚아 올리는데 그 과정은 <표 1>과 같으며, 아래 <표 2>는 한지 만드는 과정에 관한 내용이다.

강의명	통도사 옷발아카데미	지역	울산 통도사 서운암
강의 과목	한지 만들기	수강인원	20인 외 다수
강의내용	- 한지뜨기 1. 물통에 닥죽과 풀을 섞어 풀기 2. 체험 틀 위에 있는 닥섬유를 손으로 고르게 퍼기 3. 체험 틀과 연결된 호수로 물 빼기 4. 완전히 건조하기		

<표 2> 한지 만드는 과정

<그림 71>은 옷칠민화의 작업 과정과 성파의 한지뜨기 강의를 들으며 연구자와 이수자들이 교육활동에 임하는 모습이다. 연구자는 옷칠민화의 수료 과정으로 모란 <그림 72>와 매화와 학 <그림 73>을 작품으로 완성하고 성파가 건네준 수료증 <그림 74>을 받게 된다.



옷칠민화 작업과정



한지 만드는 과정

<그림 71> 옷칠민화와 한지 만들기 교육과정



<그림 72> 옷칠작품 I



<그림 73> 옷칠작품 II



<그림 74> 수료증 받은 날

‘와와공원’ 벽화작업

울산시 남구 삼호동에 위치한 ‘와와공원’ 일대는 주민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진 골목이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공원 일대를 주민들이 직접 포켓정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손수 골목 외벽에 벽화작업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연구자 외 2인의 작가는 재능기부의 형태로 골목 벽화작업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보탬이 되었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낀 작업이다.



<그림 75> 와와공원 내 외부 벽화. 2020. 10. 19.

와와공원 인근에 완성된 벽화는 <그림 75>의 이미지로 표현된다. 그 밖에 작품을 구성하는 문자와 장수를 상징하는 물의 표현은 간결한 선으로 나타내었다.

벽화에 관한 전체 구상을 하던 연구자는 벽사의 의미로 길상의 이미지를 담기로 한다. 장수와 부귀영화의 상징인 학과 모란을 하나의 이미지로 엮어 모란꽃이 피어나는 학의 형상을 구상하였다. 바탕은 태양이 연상되는 붉은 색채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학의 부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숨결은 고령인구의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그들의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표현하였다.

2021.

누구나 꿈꾸는 이상적인 삶이 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은 그 중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연구자는 생각해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무수한 노력과 희생이 따른다. 그 행위들은 각자 다른 가치관들로 인해 부딪히고 깨지면서 서로에게 아픈 상처를 준다. 결국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이 오게 되는 것이다. 연구자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왔다. 당시 연구자가 느낀 두려움과 불안을 희망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양가감정은 <그림 76>에서 드러난다.



<그림 76> 푸른 향아리와 모란 56X59cm 순지, 수간분채
금분 2021.

푸른 향아리에 그려져 있는 봉황은 입을 크게 열어 '숨'을 내쉬고 있다. 그 숨결은 모란의 형상으로 표현되어 비로소 꽃으로 피어난다. 작품 속 이미지는 좌에서 우로 흐르며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은 연구자의 희망을 이야기한다.

2022. 프랑스아트페어 참여

2021년 7월 연구자의 석사학위 청구전 '나르샤'에 대한 논평을 한 전 대구미술관장, 조형 예술학 박사 최승훈의 추천으로 2022년 2월경 예정된 프랑스아트페어에 연구자가 참여하게 되었다. <그림 77>은 프랑스아트페어 주최 측에 전달한 출품원서이며 <그림 78>은 에펠 탑과 마주한 아트페어 행사장의 이미지이다.

Les renseignements suivants (écrite très lisiblement en majuscules)

Nom: **KIM** Prénom: **EON YOUNG**

Adresse: **SINGI - GIL - JUNG - GU, ULSAN - SF**

Ville: **ULSAN, REPUBLIC OF KOREA** Code postal: **414577**

Téléphone: **82 2 2520 2874** Email: **skjlo2000@naverail.net**

Nature de l'œuvre (œuvre unique, bien faitement)

Titre de l'œuvre	Format	Prix de vente (en euros)
HAETAE FAMILY AND WATER FLOWER	36x67	8,000 EUROS
WATER FLOWER	33x18	1,000 EUROS

Les autres œuvres à soumettre (en majuscules, bien faitement)

Titre de l'œuvre: **WATER FLOWER**

Format: **33x18 cm**

Prix de vente: **1,000 EUROS**

Les autres œuvres à soumettre (en majuscules, bien faitement)

Titre de l'œuvre: **WATER FLOWER**

Format: **33x18 cm**

Prix de vente: **1,000 EUROS**

Signature et date: **WUET APPROUVE**

Nom, date et signature du Chef de service: **WUET APPROUVE**

COMPARAISONS 2022

COMPARAISONS 2022

Président: **Paul Aron**

14bis, boulevard Maurice Barthe, 92000 Nanterre sur Seine

«Art Capital» au Grand Palais éphémère

Essai médiatique, Champs de Mars, Tour Eiff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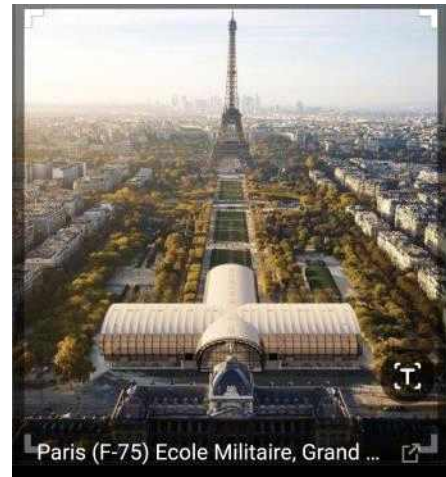
Notre Salon se tiendra du 15 au 20 février 2022

Le vernissage est prévu le 15 ou 16 février 2022

Pour une réponse à l'organisation relative à l'offre de possibilité de dépôt et de vente des œuvres, s'il vous plaît, contactez-nous.

Règlement

- 1) L'artiste participant est invité par le Comité des Arts de Paris à participer à l'exposition au Grand Palais éphémère, à savoir: 15-20 février 2022. L'œuvre présentée doit être originale et inédite. Elle doit être réalisée par l'artiste ou sous sa supervision. Les œuvres doivent être accompagnées d'un certificat d'authenticité et d'un certificat de provenance. Les œuvres doivent être accompagnées d'un certificat de provenance et d'un certificat d'authenticité. Les œuvres doivent être accompagnées d'un certificat de provenance et d'un certificat d'authenticité.
- 2) Les œuvres participent au présent événement à titre gratuit et non exclusif. Elles sont exposées au Grand Palais éphémère, à savoir: 15-20 février 2022. L'œuvre présentée doit être originale et inédite. Elle doit être réalisée par l'artiste ou sous sa supervision. Les œuvres doivent être accompagnées d'un certificat d'authenticité et d'un certificat de provenance. Les œuvres doivent être accompagnées d'un certificat de provenance et d'un certificat d'authenticité.
- 3) Pour les sculptures et tout ce qui concerne les sculptures en 3 dimensions, le participant doit déposer son œuvre au Grand Palais éphémère, dans une salle attenante au palais. Les sculptures doivent être accompagnées d'un certificat d'authenticité et d'un certificat de provenance. Les œuvres doivent être accompagnées d'un certificat de provenance et d'un certificat d'authenticité.
- 4) Les œuvres doivent être accompagnées d'un certificat d'authenticité et d'un certificat de provenance. Les œuvres doivent être accompagnées d'un certificat de provenance et d'un certificat d'authenticité.
- 5) Le vernissage aura lieu le 15 ou 16 février 2022. Le participant doit être présent à l'exposition au Grand Palais éphémère, à savoir: 15-20 février 2022. L'œuvre présentée doit être originale et inédite. Elle doit être réalisée par l'artiste ou sous sa supervision. Les œuvres doivent être accompagnées d'un certificat d'authenticité et d'un certificat de provenance. Les œuvres doivent être accompagnées d'un certificat de provenance et d'un certificat d'authenticité.
- 6) Les œuvres et provenances de l'exposition ne seront mises en charge par le Salon qu'après leur livraison au Grand Palais éphémère, au moment de leur arrivée au site de l'exposition.
- 7) L'organisateur n'est pas responsable des œuvres exposées au Grand Palais éphémère, à savoir: 15-20 février 2022. L'œuvre présentée doit être originale et inédite. Elle doit être réalisée par l'artiste ou sous sa supervision. Les œuvres doivent être accompagnées d'un certificat d'authenticité et d'un certificat de provenance. Les œuvres doivent être accompagnées d'un certificat de provenance et d'un certificat d'authenticité.
- 8) L'organisateur n'est pas responsable des œuvres exposées au Grand Palais éphémère, à savoir: 15-20 février 2022. L'œuvre présentée doit être originale et inédite. Elle doit être réalisée par l'artiste ou sous sa supervision. Les œuvres doivent être accompagnées d'un certificat d'authenticité et d'un certificat de provenance. Les œuvres doivent être accompagnées d'un certificat de provenance et d'un certificat d'authenticité.
- 9) L'organisateur n'est pas responsable des œuvres exposées au Grand Palais éphémère, à savoir: 15-20 février 2022. L'œuvre présentée doit être originale et inédite. Elle doit être réalisée par l'artiste ou sous sa supervision. Les œuvres doivent être accompagnées d'un certificat d'authenticité et d'un certificat de provenance. Les œuvres doivent être accompagnées d'un certificat de provenance et d'un certificat d'authenticité.
- 10) Les œuvres de l'exposition ne seront mises en charge par le Salon qu'après leur livraison au Grand Palais éphémère, au moment de leur arrivée au site de l'exposition.
- 11) L'organisateur n'est pas responsable des œuvres exposées au Grand Palais éphémère, à savoir: 15-20 février 2022. L'œuvre présentée doit être originale et inédite. Elle doit être réalisée par l'artiste ou sous sa supervision. Les œuvres doivent être accompagnées d'un certificat d'authenticité et d'un certificat de provenance. Les œuvres doivent être accompagnées d'un certificat de provenance et d'un certificat d'authenticité.
- 12) L'organisateur n'est pas responsable des œuvres exposées au Grand Palais éphémère, à savoir: 15-20 février 2022. L'œuvre présentée doit être originale et inédite. Elle doit être réalisée par l'artiste ou sous sa supervision. Les œuvres doivent être accompagnées d'un certificat d'authenticité et d'un certificat de provenance. Les œuvres doivent être accompagnées d'un certificat de provenance et d'un certificat d'authenticité.



<그림 77> 프랑스아트페어 출품 서류

<그림 78> 에펠 탑과 마주 보고 있는 행사장 사진

동양의 전통문화는 다양한 민족성을 매개로 저마다 독특한 문화 사상을 담고 있으며 그 기록은 오랜 세월을 거쳐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기록되었다. 연구자의 작품은 한국 전통문화 사상에서 이상향을 추구하고자 했던 한민족의 정서가 내재되어 동양의 전통 사상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2022년 프랑스아트페어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 작품을 세계에 선보이는 전시가 되기를 연구자는 희망한다.

다음은 학위청구전 작품 개요 및 작품목록을 살펴보고 선정된 표본작품의 구조를 분석하고 의미를 해석한다. 선정된 작품은 <봄의 전령>, <나르샤 II>, <대대손손>이다.

2. 작품 개요 및 학위청구 발표 작품목록

2-1. 작품 개요

학을 주제로 실크와 한지를 활용한 스카프 디자인, 디지털 프린팅, 학춤 복식(鶴舞服飾)을 한국화 표현기법으로 연구하고 재료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한국화 작품 9점, 섬유 소재로 제작된 작품 6점 등 총 15점을 학위청구전 작품으로 발표하였다.

연구자의 표본작품 중 울산학춤의 병풍 ‘대대손손(代代孫孫)’ 작품연구를 시작으로 학(鶴)과 매화를 그린 ‘봄의 전령’과 학의 금빛 날갯짓을 표현한 ‘나르샤 II’ 총 3점의 작품을 선정하여 구조분석과 의미해석의 절차를 수행할 것이다. 연구자의 내·외면에서 드러나는 심상과 이상향을 표현한 작품을 선택 기준으로 삼았다.

아래 발표 작품목록 <표 3>는 실제 전시장에서의 작품 순서와 같이 나열하였다.

2-2. 학위청구 발표 작품목록

순서	명제	규격(cm)	재료	제작연도
1	나르샤	54,5×173	실크, 패브릭 염료, 먹, 금분	2021
2	봄의 전령	60×50	지본채색, 먹, 금분, 은분	2020
3	자리	24×35,5(X2)	옥스퍼드, 모시 위에 패브릭 염료, 먹, 금분	2021
4	해가 이마를 비추어 나르샤	39X79	비단부채 위에 수간분채, 금분 채색접시, 도포 띠, 에스키스 설치	2021
5	사유	19X67	지본채색.	2021
6	대대손손	117,5×407	지본채색, 금분	2020
7	학춤 복식	126×152	실크 위에 패브릭 염료, 먹 금분, 설치	2021
8	전통 갓 십장생	42X42 139×336	옥스퍼드 지본채색, 먹, 백금분	2019
9	물건에 마음을 담다.	61×58	지본채색, 먹, 백금분	2021
10	학의 무리	68×82	부채, 지본채색, 먹, 백금분	2020
11	문자도	55,5×74	타피스트리 사각 틀, 실크 위에 수간분채, 실, 순지	2021
12	화병도	74X55,5		
13	봄의 전령_스카프	55X180	실크 위에 반응성 염료 디지털프린팅	2020
14	색동 브로치I, II	17,5×24 8×24	폴리에스테르, 솜, 실, 섬유설치	2021
15	색동 길	87×95×100	모시, 패브릭 염료, 먹, 금분 폴리에스테르, 가변설치	2021
물 사운드/오디오 편집/블루투스 스피커				2021

<표 3> 학위청구 작품 목록

3. 표본작품의 선정연구

3-1. 표본작품_1. 봄의 전령

표본작품의 주제는 학과 매화로, 한해를 무탈하게 지내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그림 79>가 완성되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매화와 달항아리를 품고 있는 학은 새로운 한 해의 시작과 희망을 이야기한다.

명제 (proposition)	봄의 전령 (春令, The messenger of spring)
규격(cm)	60×50cm
재료 (Material)	지본채색, 먹, 금분, 은분 (韩国纸上的墨水、颜料、金银, Ink, Mineral Pigments, Gold and Silver on Korean Paper)
제작 연도	2020
소장처	개인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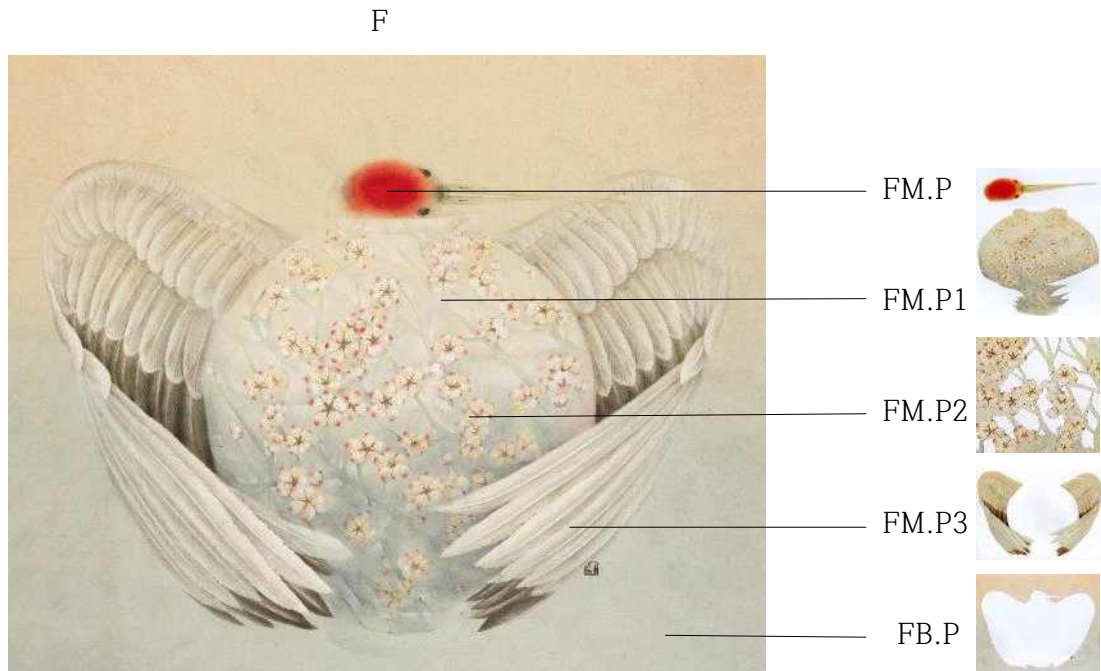
<표 4> 표본작품 봄의 전령 이미지 개요



<그림 79> 봄의 전령 (春令, The messenger of spring)

3-1-1. 구조분석

표본작품의 주제인 학과 달항아리는 화면의 중앙에 위치하며 세부 구조에 대한 분해 형태는 곡선으로 이루어진다. 학의 부리는 중앙에서 우측으로 향해있어 연구자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제시한다. 학의 날개는 달항아리를 품은 구조이다. 세부 분절한 구조 <그림 80>에 대한 의미를 설명한 <표 5>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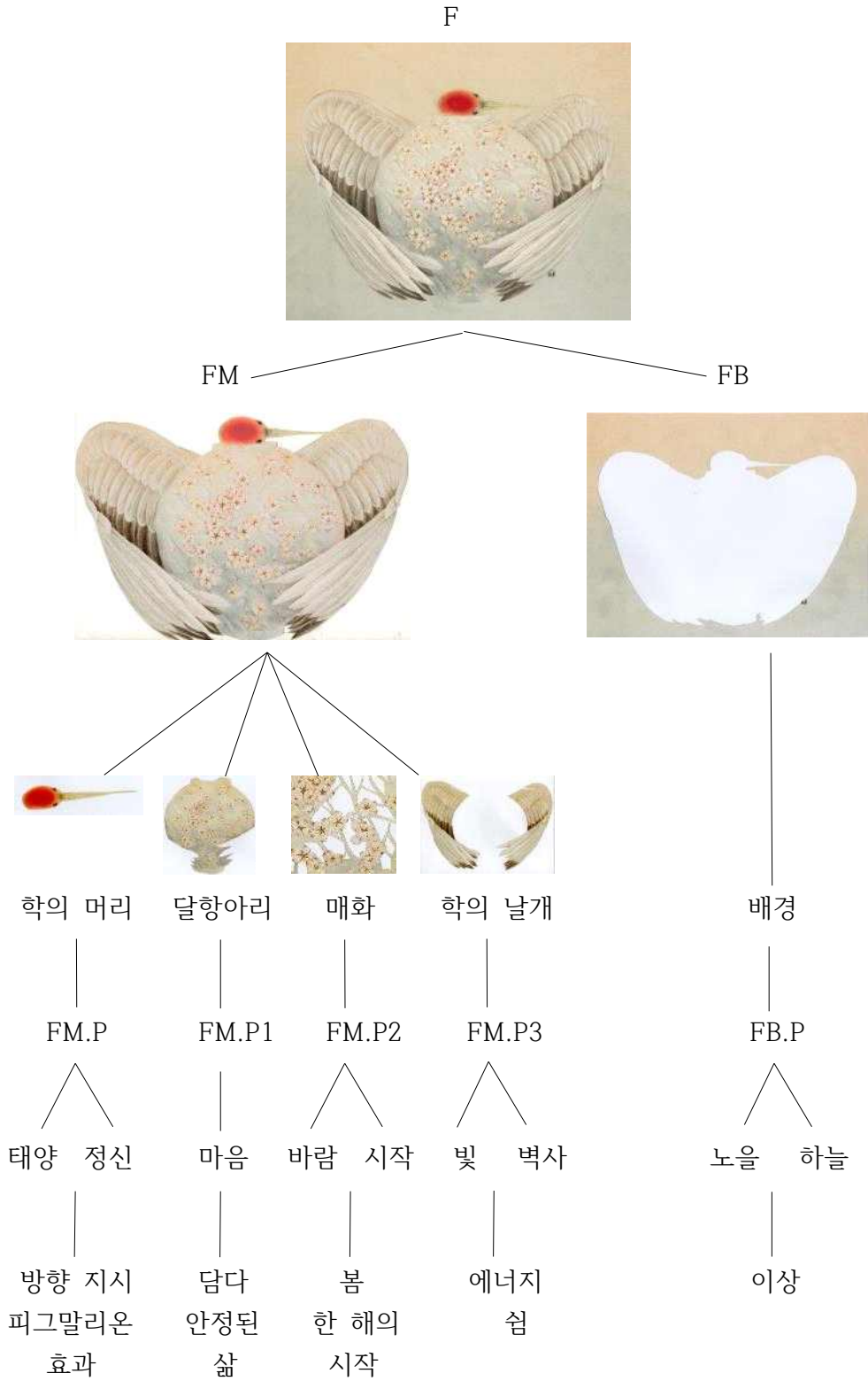


< 그림 80 > 봄의 전령, 표본작품

구분	Section 분해에 대한 설명
FM.P	학의 머리 : 태양, 정신, 중심, 방향
FM.P1	달항아리 : 마음, 담다, 안정된 삶
FM.P2	매화 : 한 해의 시작, 봄, 희망
FM.P3	학의 날개 : 쉼, 빛, 품다
FB.P	배경 : (上) 노을, (下) 하늘, 이상

<표 5> 봄의 전령 section 분해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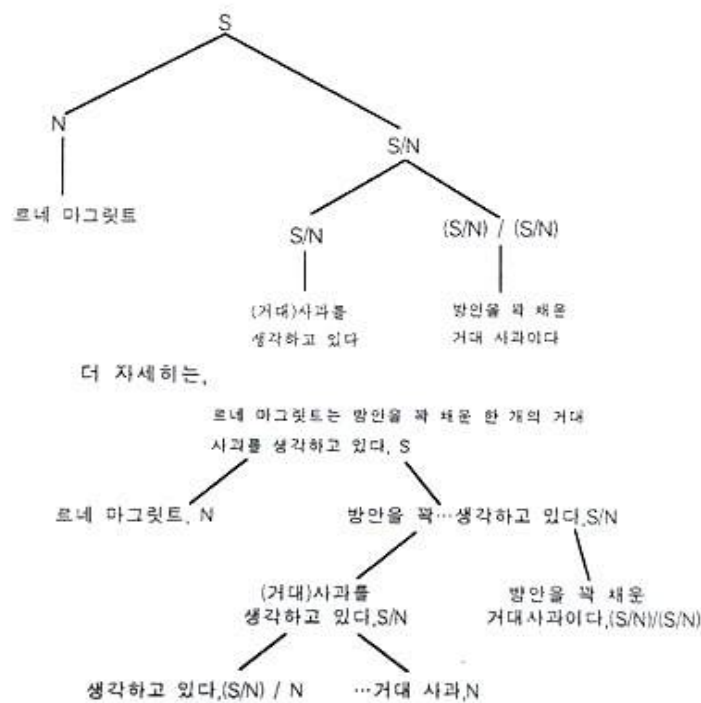
3-1-2. 수형도(樹型圖, Tree Diagram)⁵⁷⁾



<그림 81> 봄의 전령 구조분석, 수형도(樹型圖, Tree Diagram)

57) 김언배, 朝鮮朝 텍스타일 패턴의 구성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p.181.

표본작품의 수형도를 그리기 위한 참고자료로 아래의 <그림 82>는 르네 마그리트의 사물의 개념을 생각하기 위한 범주 화법이다. 이어 <그림 83>은 정서적 문법 기능에 대한 내·외부적인⁵⁸⁾ 개념이며 <그림 84>는 영화이론을 위한 영상 구조적 상황을 필름 문법⁵⁹⁾에 적용한 일종의 표면 구조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문헌에 기록된 계보도 <그림 85>는 나주오씨, 참봉공파의 구성원들을 나무의 형태로 표현한 족보이다. 나주오씨의 구성원들이 나무처럼 하나의 뿌리에서 수없이 많은 가지로 뻗어나가며 꽃을 피운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제작한 것이라고 한다. 이런 형태의 계보도를 흔히 화수도(花樹圖)라고 부르는데 '화수'란 꽃이 피는 나무, 꽃나무라는 의미⁶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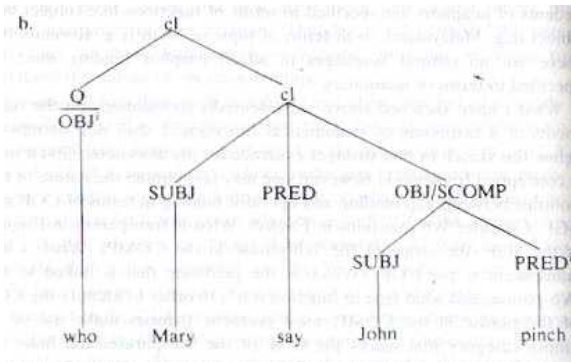


<그림 82>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 <옛보기 편한 방> 범주 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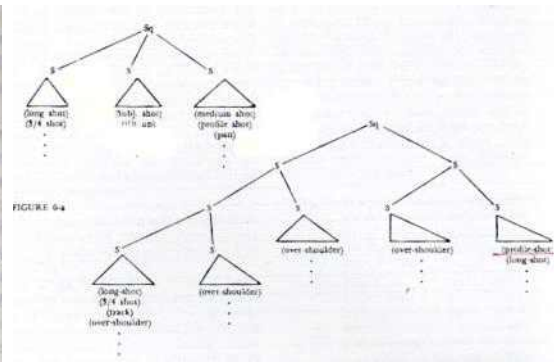
58) Dordrecht:Holland / Boston:U.S.A. Natural Language & Linguistic Theory), D.Reidel Publishing Company, 1984. p.386.

59) Robert Layton, <The Anthropology of Art>,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81. p.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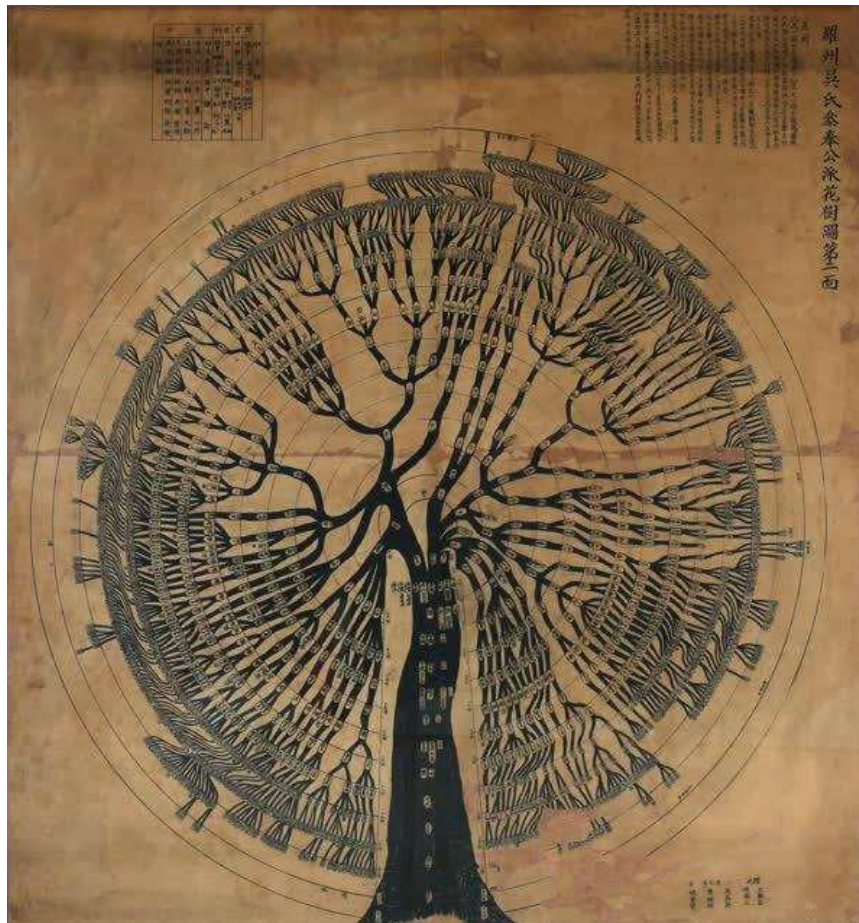
60) [자료 출처] 나무 그림에서 돌에 새긴 족보까지...조상들의 뿌리 찾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505039>



<그림 83> 도르트레흐트(Dordrecht)
 <문장의 표면의 내.외적 구조>



<그림 84> 로버트 레이턴(Robert Layton)
 <영상 구조적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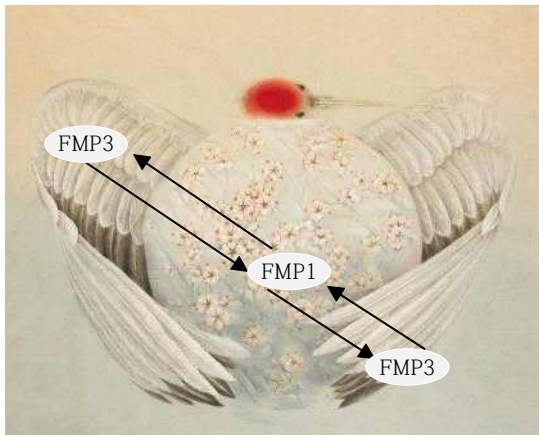


<그림 85> 나주오씨 참봉공파 화수도(花樹圖), 연대 미상, 석판본
 79.0×84.5cm, 1900년대 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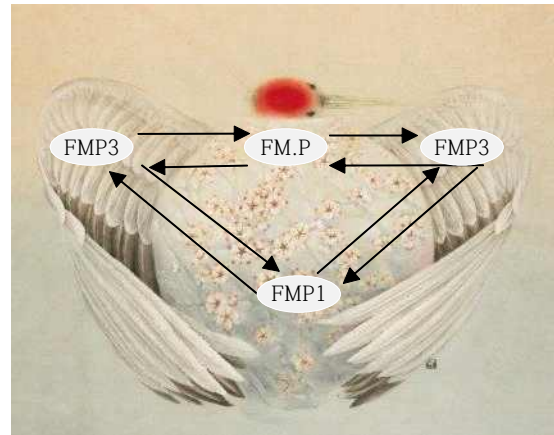
3-1-3. 시선의 행로(行路, Passage)분석

표본작품 중심의 학과 달항아리는 앞의 구조분석과 수형도에서 보듯 화면의 중앙에 위치하여 집중적 P촛점에 응시한다. 학의 머리와 부리는 위에서 바라본 시점으로 달항아리를 향해 귀를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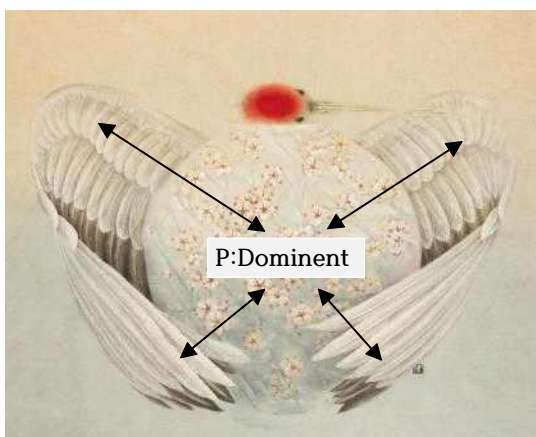
연구자의 기준에서 표본작품들의 방향은 좌에서 우의 방향으로, 부리는 중심에서 우로 향하는 미래의 시선방향을 제시한다. 학 날개의 생김새에서 대각적, 삼각적 시선의 행로를 <그림 86>과 같이 분석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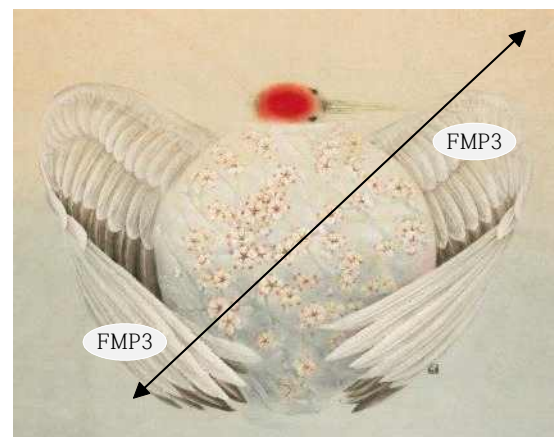
대각적 FM.P3 ⇌ FM.P2 ⇌ FM.P3



삼각적 3지점



집중적 (P촛점 응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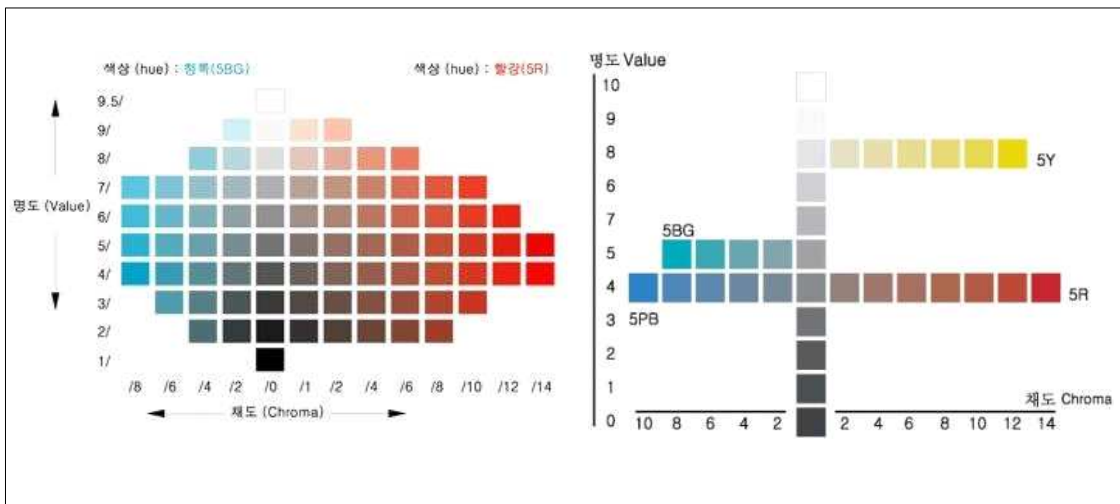


대각적 (FM.P3 ⇌ FM.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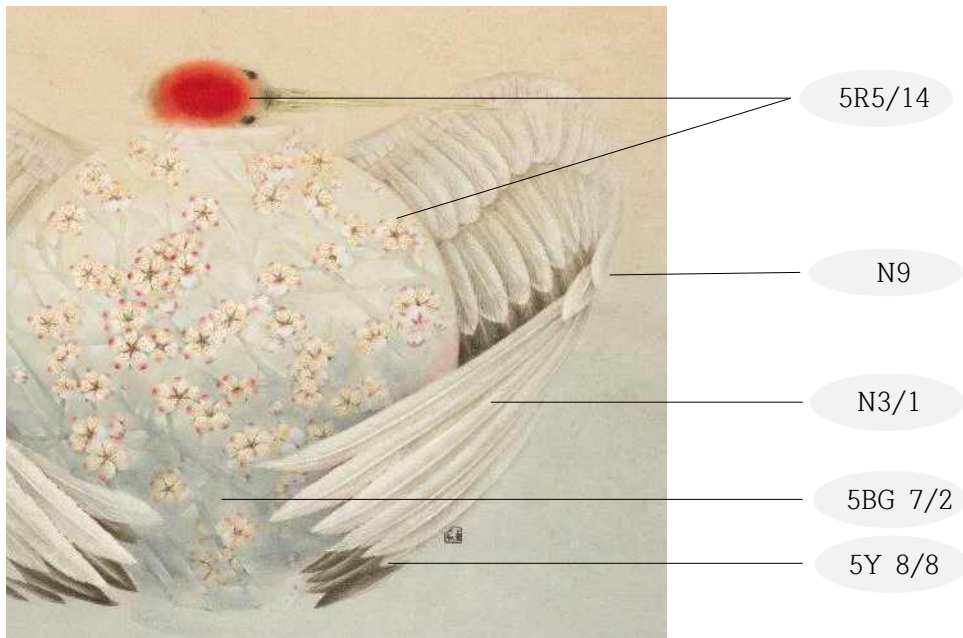
<그림 86> 시선의 행로 분석도

3-1-4. 색채분석

표본작품에 사용된 색채는 흰색(N), 노란색(Y), 붉은색(R), 청록(BG), 검정색(N)이다. 고명도와 중명도, 저명도의 채색과정을 순차적으로 배색한다. 금빛은 노란색(Y)으로 표기한다. 시간의 중첩 효과와 바림붓의 역할이 고급스러운 색채와 시각적인 편안함을 더해준다. 표본작품에 사용된 색상을 색채코드를 통해 먼셀(Munsell)의 색체계를 바탕으로 색의 기호를 <그림 87>과 같이 표기했다.



먼셀 색체계 (Munsell color system)



색상 기호(HV/C)

<그림 87> 봄의 전령, 색상, 명암 분포도

3-1-5. 의미해석

표본작품 ‘봄의 전령’은 편안함을 주는 안정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소재의 상징성과 색채의 의미를 기록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다. 작품의 의미해석은 수형도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표 6>에서 보듯 다섯 가지 기호에 대한 내·외적 상징성에서 나타나는 의미를 기록한 것이다.

기호	명칭	상징성		의미
		내적	외적	
FM.P	학의 머리	, 정신	방향 지시	피그말리온 효과
FM.P1	달항아리	마음	담다.	안정된 삶
FM.P2	매화	바람, 시작	한 해를 시작을 알리는 꽃	봄 한 해의 시작
FM.P3	학의 날개	빛, 벽사	에너지, 솜, 포용	희망 날개
FB.P	배경	노을, 하늘	상승	이상

<표 6> 봄의 전령 의미에 대한 해석표

봄의 시작으로 한해가 무탈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자연 친화적인 소재로 편안함과 부드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구상하였다. 학의 고고한 자태는 매화와 달항아리의 둥글고 부드러운 곡선이 함께 어우러져 편안한 느낌을 전달한다. 학 날개와 매화는 금분으로 채색해 마음의 봄이 오기를 희망하는 긍정 에너지로 표현된다. 달항아리에 귀를 기울이는 학은 선비의 정신을 상징하며 부리는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다. 머리 꼭대기의 붉은색은 태양을 의미한다.

표본작품의 구조분석과 수형도를 통해 작품의 소재와 색채가 가진 상징성과 연구자의 내·외면을 살펴보았다. 작품 ‘봄의 전령’은 매화나무를 관찰하면서 떠오른 학의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이다. 학의 날개는 선필로 털을 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는데 당시 재료로 사용된 금분은 연구자에게 내적인 에너지를 주었다. 연구자는 작품 속의 학과 동일시 여겨 접화(接和)⁶¹⁾를 이루어 긍정의 생각으로 희망찬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품이 완성되었다.

61) 접화(接:이을접, 和:화합화):서로 뜻이 맞아 사이좋은 상태가 된다.

<그림 88>은 도산서원의 봄을 알리는 이미지로 ‘도산 달밤에 매화를 읊다’라는 퇴계 이황의 시를 보면 그가 매화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는 매화꽃이 핀 것을 보고 느낀 감정을 표본작품 <그림 89>와 에세이로 남겼다.



<그림 88> KBS[환경스페셜] 도산서원의 봄

뜰을 거니니 달이 사람을 따라오고
매화나무 가장자리를 몇 번이나 돌았던가
향은 옷에 가득, 꽃 그림자는 몸에 가득
늦게 핀 매화의 참뜻을 새삼 알겠으니⁶²⁾

<퇴계 이황의 詩>



<그림 89> 연구자의 작품-봄의 전령

화실 주변에
봄이 찾아와
매화꽃이 피었다.

매화꽃을
오랜 시간 바라보고 있으니
봉숭아물들이듯 마음에 물이 들어
나를 미소 짓게 한다.

매화꽃이
한 해의 시작을 알렸으니
물든 마음으로 한 해를 잘 살아보자.






2020. 5. 25. 늦은 밤 작업실에서... <연구자의 에세이>

62) KBS[환경스페셜] 도산서원의 봄. 퇴계 이황의 매화 사랑 ‘저 매화분에 물을 주거라’

3-1-6. 재료 및 표현기법과 제작과정

표본작품 봄의 전령(春令, The messenger of spring)은 작가의 내·외적 심리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에스키스에 필요한 도구들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스케치하고 순지 위에 한국화 재료를 사용했다. 본(本) 그림 위에 염색한 한지를 올리고 윤곽선을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색 단계를 쌓아가는 중첩 효과와 바림붓의 역할이 컸다.

색의 바림에서 입체감을 표현하고 부분적으로 선필로 세부 묘사를 한다. 본 작품에 사용된 재료와 제작과정의 순서는 <그림 90>과 같다.

제작순서	이미지		재료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고찰 - 머릿속에 연상되는 이미지 에스키스 	화첩 노트 (15X21cm) 연필, 지우개 문헌자료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레이싱지 위에 연필 스케치 - 네임펜으로 따라 그리기 - 본(本)그림 완성 	트레이싱지 연필 네임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지위에 노을, 하늘로 연상되는 두가지 색 선택 그라데이션(gradation) - 순지 위에 바인더포수 	순지 바인더 치자, 명반 뺨 붓, 먹 물감, 물통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그림 위에 순지 올리기 - 종이테이프로 고정 - 물골법⁶³⁾으로만 채색 바림⁶⁴⁾하기. 	순지 바인더 종이테이프 채색붓 바림붓 선필 분채, 물감 호분, 금분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색과 바림을 반복 - 학의 날개 명암작업 후 금분으로 털 치기 - 전체적인 작품 흐름 파악 후 포인트 채색 	

<그림 90> 봄의 전령 작품 제작과정

63) 물골법(沒骨法):동양화에서, 윤곽선을 그리지 않고 먹이나 물감을 찍어서 한 붓에 그리는 화법.

64) 바림:색깔을 칠할 때 한쪽을 짙게 하고 다른 쪽으로 갈수록 차츰 얇게 나타나도록 하는 일.

3-1-7. 표본작품 디자인 : 디지털프린팅

표본작품의 롱 스카프 디자인 제작과정을 아래 <그림 91>에서 살펴본다.

순서	이미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작품 촬영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언영의 호(號) 로고 디자인 - 지(芝)원(園)을 세로 방향으로 나열하여 나비 형상으로 에스키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롱 스카프 제작, 사이즈 확인 55X180cm X2 - 롱 스카프 이미지 에스키스 - 1, 2 디자인 시안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크 위에 디지털프린팅 제작의뢰

<그림 91> 봄의 전령 실크 스카프 제작과정

3-2. 표본작품_2. 나르샤 I, II

나르샤는 '날아오르다'라는 뜻의 순우리말이다. 연구자는 날갯짓하는 학의 형상을 떠올리며 학과 하나 되어 날아오르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표본작품을 완성하였다. 학의 외형을 관찰하여 부위별 색채의 상징성과 의미를 먼저 파악한다. 학이 지닌 고유의 색채를 바탕으로 희망을 상징하는 금빛 염료를 사용하였고 실크 위에 한국화 기법에서 표현된 우연의 효과를 유도해 비구상으로 표현했다. 표본작품은 나르샤 II로 구조분석을 할 것이다.

명제 (proposition)	나르샤I, II (腾飞, Fly up)
규격(cm)	54,5 × 173cm (X2)
재료 (Material)	실크, 패브릭 염료, 먹, 금분 (丝绸上面布染料, 墨, 金粉 Fabric dye, ink, gold powder on silk)
제작 연도	2021

<표 7> 표본작품 나르샤 I, II, 이미지 개요



<그림 92> 나르샤 I, II (腾飞, Fly up)

3-2-1. 구조분석

표본작품에서는 학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연상 작용을 표현한다. 구조분석의 형태들은 자유로운 곡선으로 분절되어 있다. 표본작품 <그림 93>의 분해표와 <표 8>의 분해 설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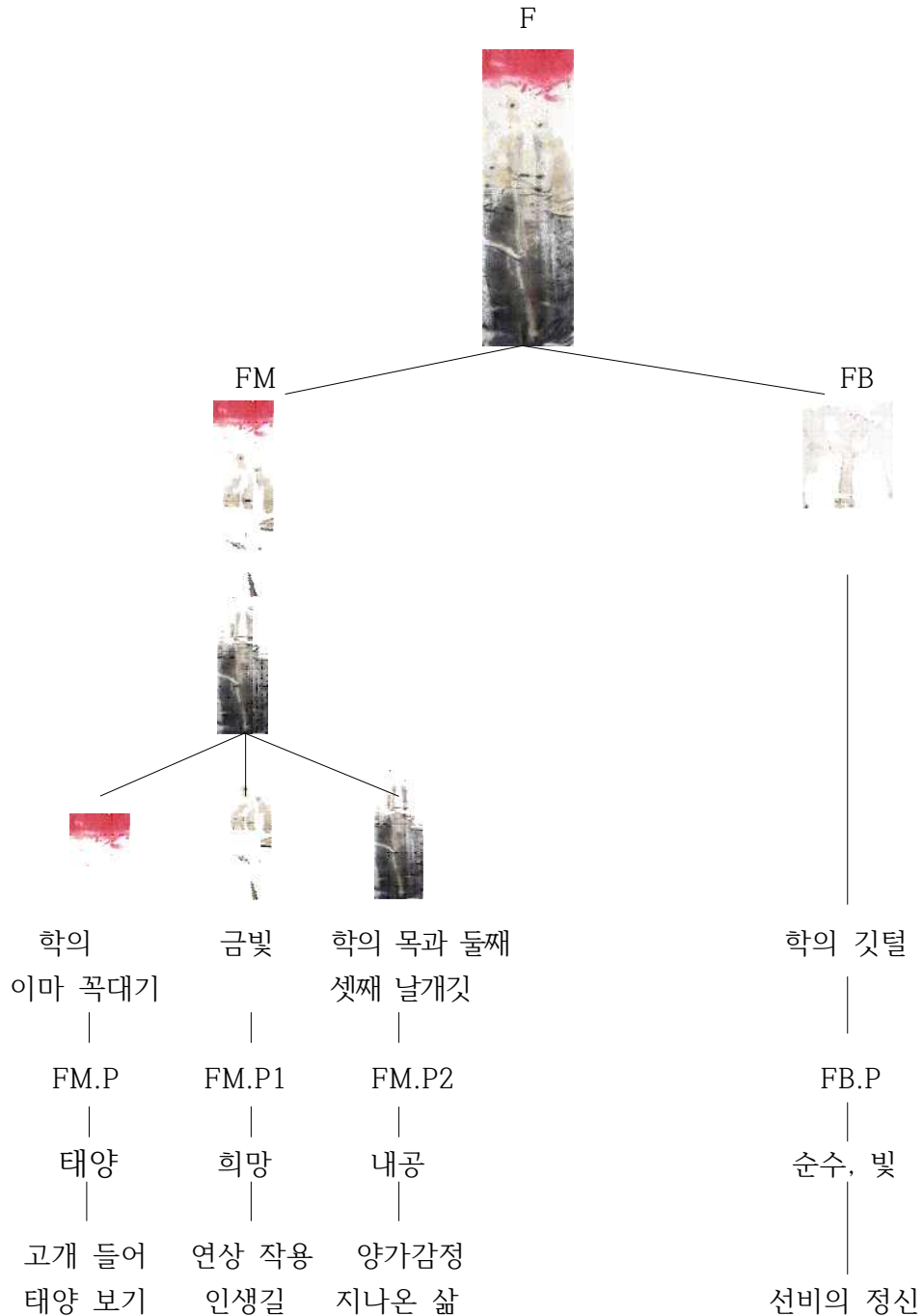
<그림 93> 나르샤II, 표본작품

구분	Section 분해에 대한 설명
FM.P	학의 이마 꼭대기 : 태양, 상위(上位)
FB.P	학의 깃털 : 순수, 빛, 선비의 정신
FM.P1	금빛 : 희망, 연상 작용
FM.P2	학의 목과 둘째 셋째 날개깃 : 지나온 삶의 흔적과 내공(內功)

<표 8> 나르샤II section 분해표

3-2-2. 수형도(樹型圖, Tree Diagram)⁶⁵⁾

학의 외형에서 색채별로 분류, 분절한 구조를 선으로 이어 연구자의 내·외적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과정을 수형도로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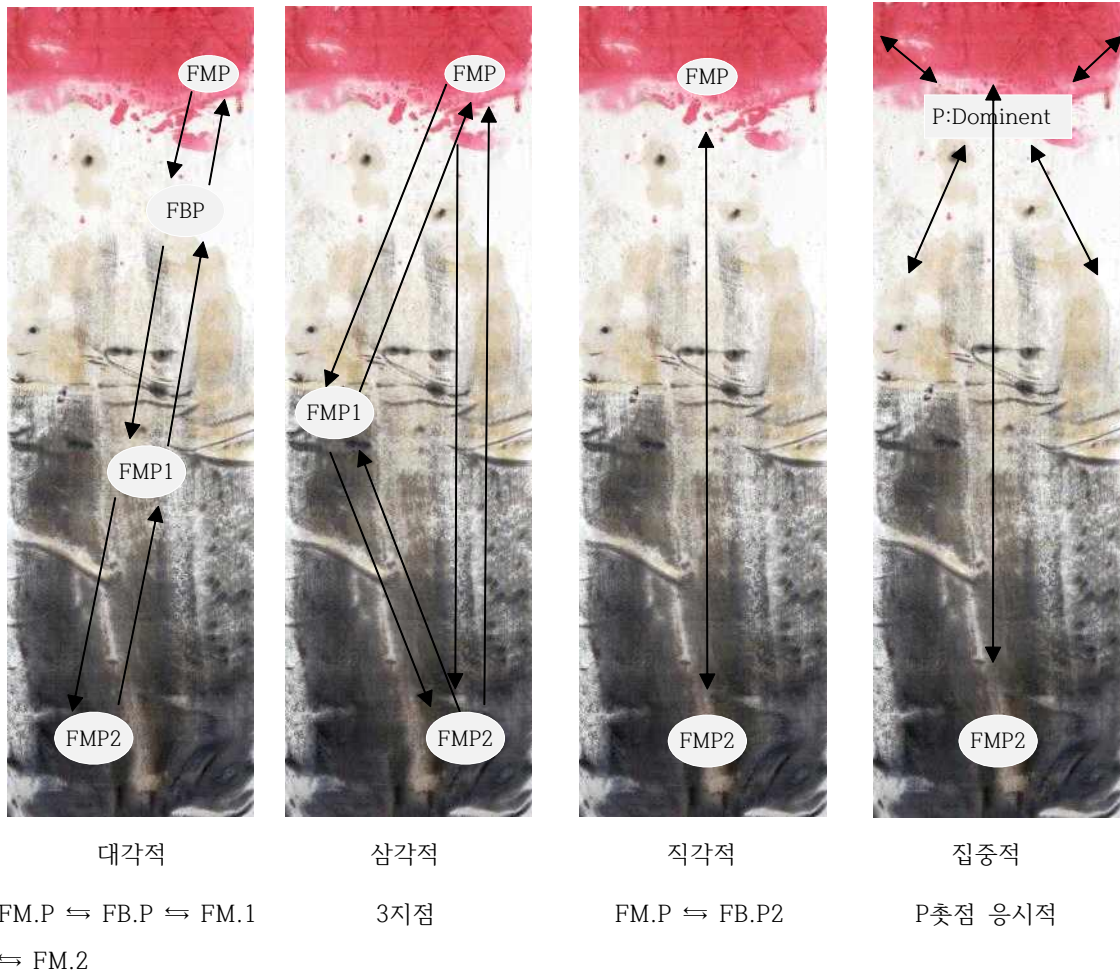


<그림 94> 나르샤II 구조분석, 수형도(樹型圖, Tree Diagram)

65) 김언배, 《朝鮮朝 텍스트아일 패턴의 구성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p.181.

3-2-3. 시선의 행로(行路, Passage)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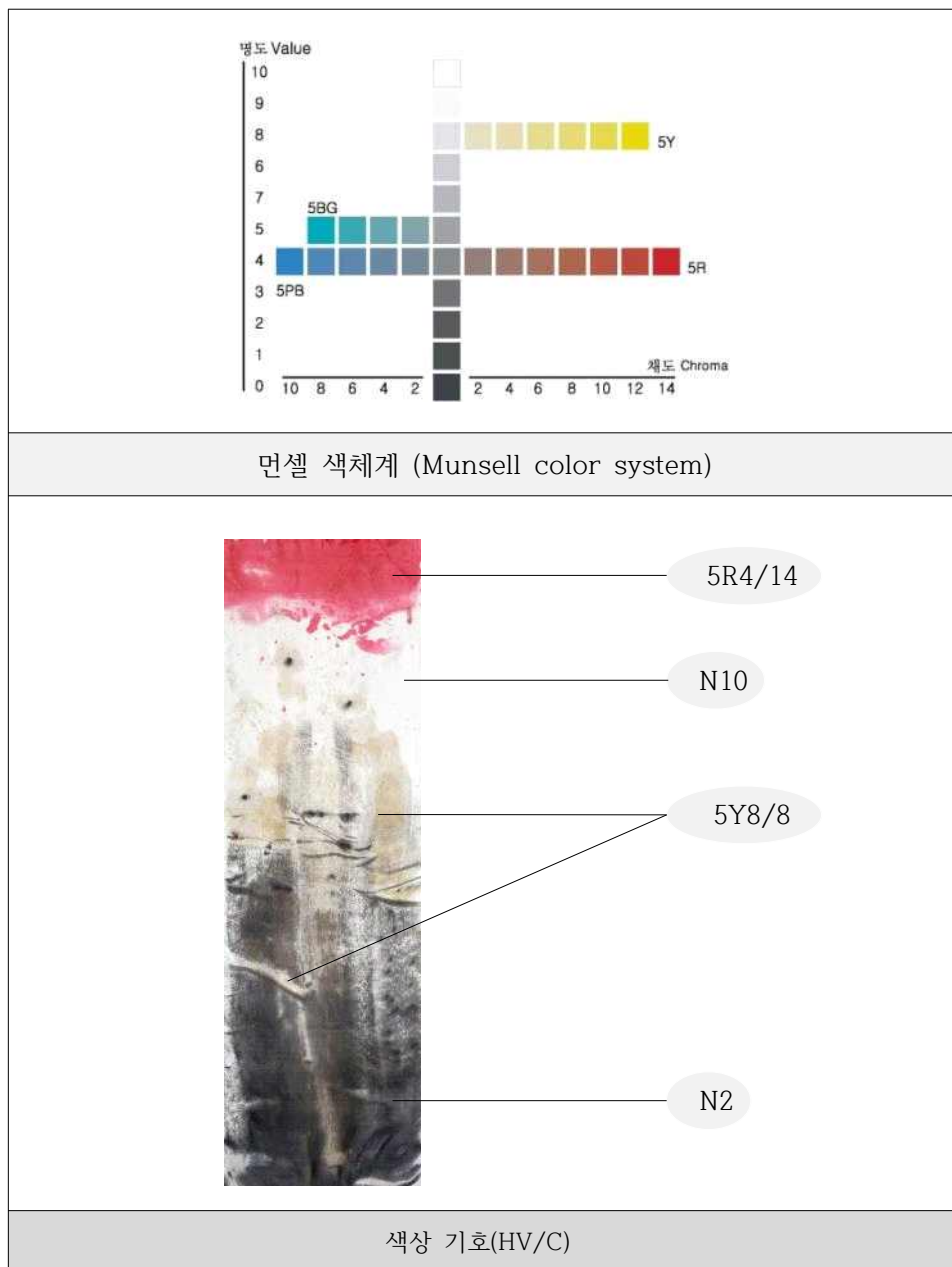
표본작품의 시선 행로에서는 색채를 통해 행로를 분석한다. FM.P의 강렬한 색채는 시선의 방향을 집중시키는 집중적 P초점을 응시하게 한다. FM.P에서 시선이 아래로 내려갈 때 FB.P와 FM.P1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의 색채를 드러낸다. 금빛의 황홀함에 시선이 고정될 가능성은 학위 청구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FM.P2는 먹색의 느낌과 실크 소재의 비침 현상으로 자연스러운 붓 흔적에 시선이 갔다. 연구자는 표본작품의 시선 행로를 파악하기 위해 관객의 시선 행로를 아래 <그림 95>로 분석해 보았다.



<그림 95> 시선의 행로분석도

3-2-4. 색채분석

표본작품 ‘나르샤’에 사용된 안료들의 색상은 흰색(N), 노랑색(Y), 붉은색(R), 검정색(N)으로 구분한다. 4가지의 색채에서 노랑색(Y)은 금색과 가장 가까운 색상으로 노랑색(Y)로 표기하였다. 표본작품의 실크 소재의 비침 현상은 색상의 명도와 채도에 영향을 주어 은은한 효과를 나타낸다. 표본작품 전체 색채에서는 고명도, 중명도, 저명도의 색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96>는 먼셀(Munsell)의 색체계를 바탕으로 색의 기호(HV/C)를 표기하였다.



<그림 96> 나르샤 II, 색상, 명암 분포도

표본작품의 세부 구조에 대한 분해표를 바탕으로 상징성과 의미에 대해 파악하고 색채별 분류, 분절한 수형도에서 연구자의 내·적인 의도를 알게 되었다. 표본작품의 배경은 실크 소재로 색채에 영향을 미쳐 본래의 색보다 은은하게 연출된다. 시선의 행로에서는 5R4/14의 색채가 비교적 강하여 첫 시선을 끌었으며 5Y8/8은 관객의 거리감과 작품을 비추는 조명에 의해 다각적 시선 행로가 연출되었다.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는 색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위기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주위가 화려할 때 금은 언제나 거기에 속한다. 금사로 문양을 짜넣은 비단과 채색사에 금속사를 섞어 짠 천, 금사를 견사와 섞어 짠 직물은 성대한 축하 연66)에 쓰이기도 하는데 연구자 정서에 금색 이미지는 긍정의 역할로 희망과 빛을 의미한다. 우리는 모두 문화적 영향이나 대중적 이론을 바탕으로 소통화 된 색의 의미를 떠올리곤 하지만, 색은 결국 누구에게나 독특한 개별적 경험67)이며 연구자 또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희망의 빛을 금색으로 선택하였다. 금색에 대한 이미지와 연상 작용에 관한 내용을 <표 9>에서 살펴본다.

이미지 색	이미지 연상	추상적 연상
금색	금메달	명예의 광채
	결혼반지	영원, 낡아도 새 반지
	금빛 의상	특별한, 우아한, 화려함
	금실 모자	고급스러운, 특별한 날
	금색 물건 (볼펜, 분첩, 케이스)	사회적 지휘, 사치
	화가의 금색(중세 회화)	천상의 빛, 성스러운
	금박	아름다운, 빛, 광채
	문장에 쓰인 금색	중요한 문서
	장식의 색	과시, 가벼움, 세밀한
	황금률	이상적인 관계, 황금 배율

<표 9> 금색에 대한 이미지와 연상 작용

다음은 연구자의 표본작품과 울산 학춤 복식의 상징적인 색채를 문헌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비교 분석한다. 색과 상징성의 의미 분석표에서는 학의 외형 이미지에서 4가지 색채로 분류된다. 학은 몸체가 희고 끝이 검은 날개와 꼬리 깃털을 지녔으며 머리와 목의 일부는 검고 이마는 붉은색이다. 연구자가 더한 금색을 포함한

66) 에바 헬러 저, 문은배 역, 『색의 유혹I, 2』, 서울 : 예담출판사, 1999. pp.164.

67) 대리어스A. 몬세프 4세(Darius A. Monsef, IV) 저, 조순익 역, 『색, 영감을 얻다』, 서울 : 시공문화사, 1993. pp.77-79.

총 4가지의 색을 중심으로 연구자의 표본작품과 울산 학춤 복식⁶⁸⁾ 그리고 문헌을 통한 색채의 상징성 의미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여기에서 연구자와 울산 학춤의 공통된 주제는 학이며 학의 상징성과 의미를 <표 10>에서 정리해보았다.

문헌	공통 색채H	연구자의 상징 의미	← 학의 명칭→		울산학춤 복식의 상징성
			학의 이마 꼭대기	갓 꼭대기	
열정, 사랑, 증오 생명, 불, 공격성	R	태양, 에너지	학의 이마 꼭대기	갓 꼭대기	학의 머리 오방색(적)
순결한, 화가에게 중요한 색, 시작, 부활, 완벽	W	순수, 빛 정신	학의 깃털	복식	학의 전체적인 모습 선비의 정신 오방색(백)
행운, 돈, 사치, 명예, 광채, 황금같이 굳은 정절, 아름다움	Y	날갯짓, 희망	금색	갓 테 술띠	금신상 오방색(황)
힘과 권력, 죽음의 색, 디자이너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색, 부정색, 우아한 아름다움, 슬픔	B	삶의 흔적, 내공(內功) 양가감정	학의 목과 둘째 셋째 날개깃	갓	학의 머리 오방색(흑)

<표 10> 나르샤 II 색과 상징성 의미 분석

3-2-5. 의미해석

이미지 개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본작품은 연구자의 심리에 의해 동경하는 학의 모습에서 희망을 찾았다. 학이 되어 날고자 하는 마음이 일체가 되어 함께 날아오르는 현상을 표현한다. 연구자는 그림을 그릴 때 주제와 접화된 상태에서 순수한 정신으로 작업하기 위해 노력한다. 추상적으로 표현된 곡선과 학의 날갯짓을 연상하는 작업 과정을 거쳤다. 금빛 날갯짓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중에 나타나는 현상들로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택했다. 연구자는 염료와 물의 흐름에서 곡선의 삶을 찾고 색채에서 상징성을 찾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울산학춤 복식에서 나타난 상징적 의미는 학의 모습에서 나타난다. 김성수는 선비의 정신과 전통에서 이어온 의장과 소품들에 울산학춤의 유래인 계변천신 설화가 바탕이⁶⁹⁾ 된 오방색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학을 주제로 한 울산학춤과 연구자의 작품은 선비 정신의 중요성과 길상을 마음을 문화예술로 접근해 재해석했다는 것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68) 김소양, *울산학춤의 생성 배경과 변천*, 경북대학교 이학박사학위논문, 2011. p.126.

69) 김소양, 같은 책, pp.124-6.

3-2-6. 재료 및 표현기법과 제작과정

표본작품에 사용된 배경의 재료는 비단으로 학의 깃털과 유사하여 선택하게 되었다. 비단의 흰색 바탕에 3가지 색을 사용하여 한국화 기법으로 제작하였다. 이미지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마음과 정서가 교차되어 색채로 드러난다. 몰입의 단계에 들어서면 작업이 시작된다. 바탕과 재료의 특성상 다른 표본작품에 비해 연상하는 시간은 길었지만 작업시간은 짧았다. 작업에 몰입되어 작업 과정을 자료로 남기지 못해 구체적 진술을 <표 11>으로 기술한다.

순서	설명	재료
1	학의 사진자료와 문헌자료 외 이미지 자료 수집 및 관찰	
2	머칠 동안 머릿속으로 학의 이미지 연상	
3	모포(毛布) 위에 손으로 실크를 펴서 올리기 실크의 외형 틀 없이 종이테이프를 책상 위에 고정 (색의 발색과 우연의 효과를 표현하기 위해 틀을 사용하지 않음)	실크 스카프(2개)
4	패브릭 염료와 먹, 금분 색깔 별로 뺑 붓 사용	패브릭 염료 먹, 금분
5	학의 머리를 연상하며 상. 하로 붓질 색의 순서 : 붉은색(R), 검정색(B), 노랑색(Y) 흰색((N) 임의로 비워둔 여백)	바인더 뺑 붓 5개 먹, 물
6	물골법 : 윤곽선 없이 먹의 농담이나 채색으로 형태 표현 번지기, 뿌리기 : 붓에 염료를 듬뿍 묻혀 손의 힘을 유연하게 적용, 감각적인 표현	드라이기 모포 종이테이프 책상
7	작업 후 젖은 상태와 건조된 상태에서 반복된 색 올리기 붓에 물 조절 후 번짐에서 부드러운 느낌 표현	
8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 후 금색으로 포인트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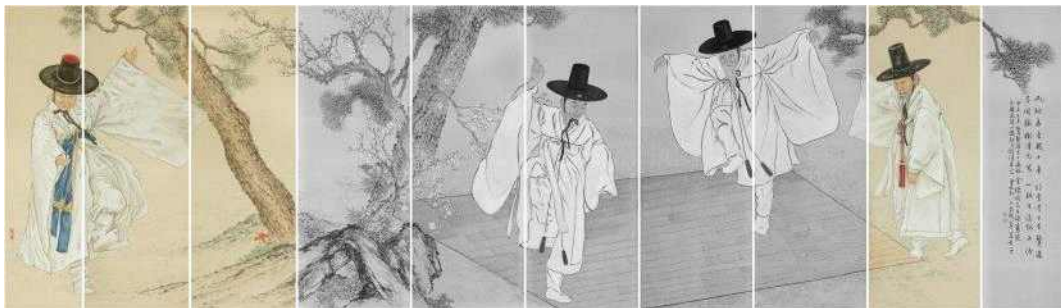
<표 11> 나르샤II 재료와 제작과정

3-3. 표본작품_3 대대손손

표본작품 대대손손은 2대(2대 김현민, 3대 김덕명)가 그려진 8폭 병풍에 2대(1대 김두식, 4대 김성수)를 더해 우리나라 전통 학춤의 대를 이어온 4대를 10폭 병풍에 담았다. 아래 <사진 97>은 기존의 전라도 화가의 작품과 연구자의 작품을 흑백과 컬러로 구분한 이미지이며 구조분석은 <그림 98>의 표본작품 이미지로 한다.

명제 (proposition)	대대손손 (代代孫孫,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규격(cm)	117.5 × 407cm
재료 (Material)	지분채색, 금분 (在韩纸上涂色, 铂粉, Ink, Mineral Pigments, on Korean Paper, powder of platinum)
제작 연도	2020-2021
소장처	철새홍보관장 김성수 소장

<표 12> 표본작품 대대손손 이미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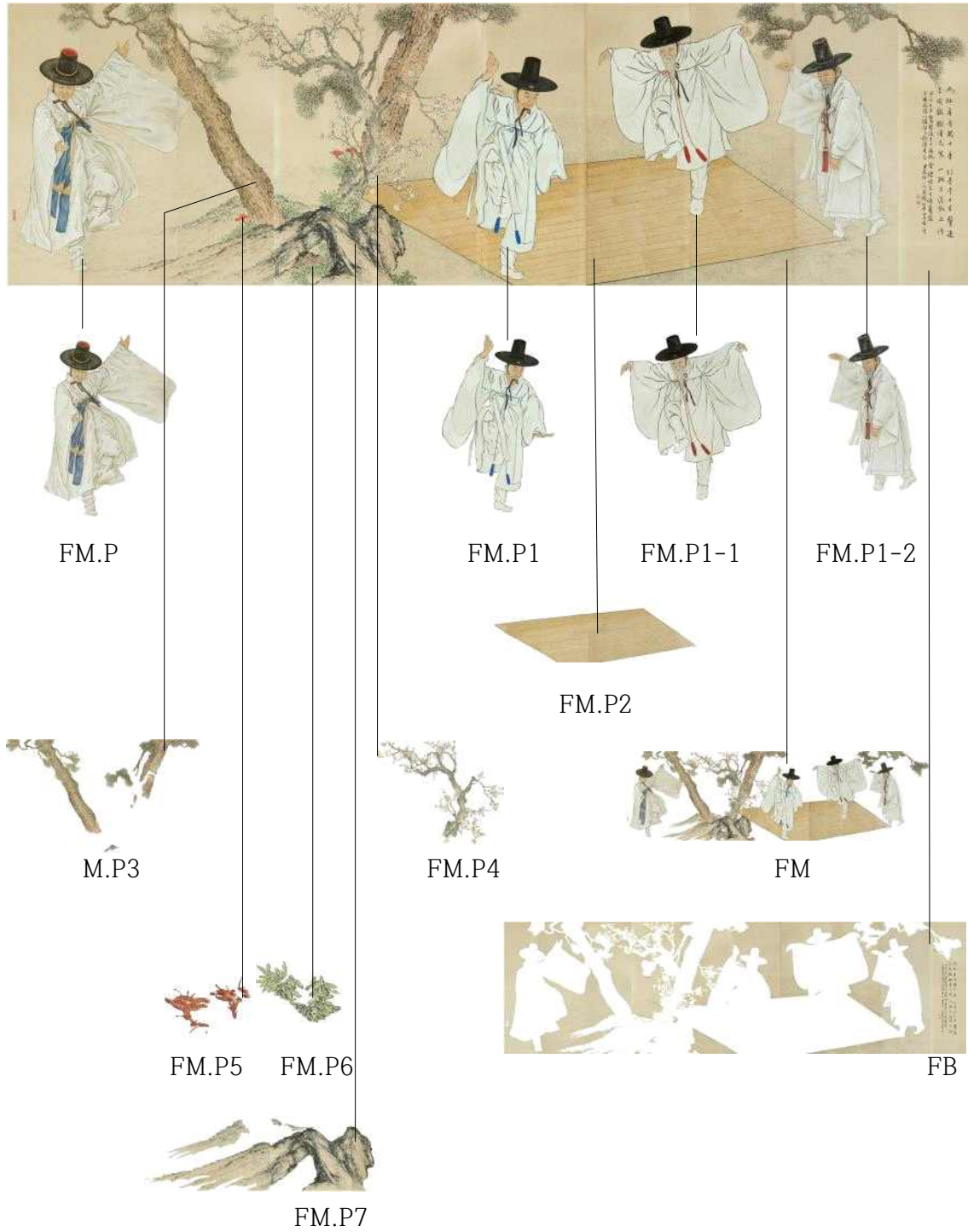
<사진 97> ■ 김언영 2020, □ 전라도 화가 1984.



<사진 98> 대대손손 (代代孫孫,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3-3-1. 구조분석

F



<그림 99> 대대손손, 표본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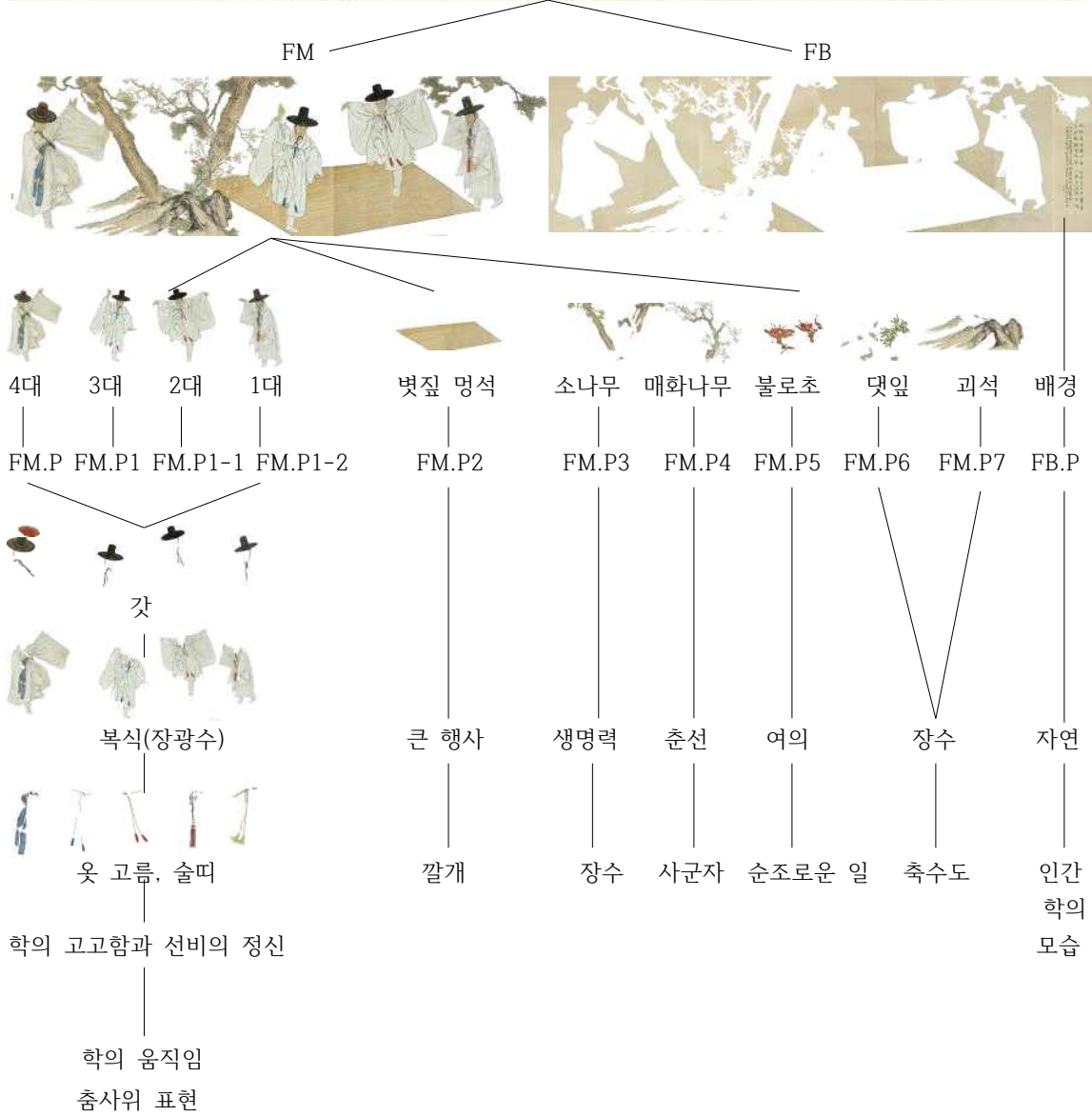
표본작품 대대손손의 구조분석은 크게 사람과 자연, 사물의 형태로 세부 분절하였다. 4대가 유희하는 공간은 자연으로 각기 다양한 춤사위로 서로의 자태를 뽐내고 있다. 표본작품의 분해에 대한 설명은 아래 <표 13>와 같다.

구분	명칭	Section 분해에 대한 설명		
FM	4대 학춤 춤사위	FM.P	4대	김성수 (金性洙1953-) 앞에서 이끄는 사위
		FM.P1	3대	김덕명 (金德明1924-2015) 좋아 으쓱이는 사위
		FM. P1-1	2대	김현민 (金顯珉1897-1957) 먹이를 찾아 도는 사위
		FM. P1-2	1대	김두식 (金斗熄1843-1930) 땅에 내려앉은 사위
FM.P2	벗짚 명석	벗짚으로 엮은 깔개, 시골에서 큰 행사		
FM.P3	소나무	생명력과 건강을 의미, 장수기원		
FM.P4	매화나무	봄을 알리는 춘선, 사군자의 하나.		
FM.P5	불로초	여의(如意), 순조로운 일 진행		
FM.P6	대나무 잎	축(祝) 장수(長壽)	축수도(祝壽圖)	
FM.P7	괴석	장수(長壽)		
FM	4대 학춤과 자연	4대의 학 춤사위와 자연 무대		
FB.P	배경	4대의 공간, 자연, 고화(古畫) 색채, 인간학의 모습		

<표 13> 대대손손 section 분해표

3-3-2. 수형도(樹型圖, Tree Diagram)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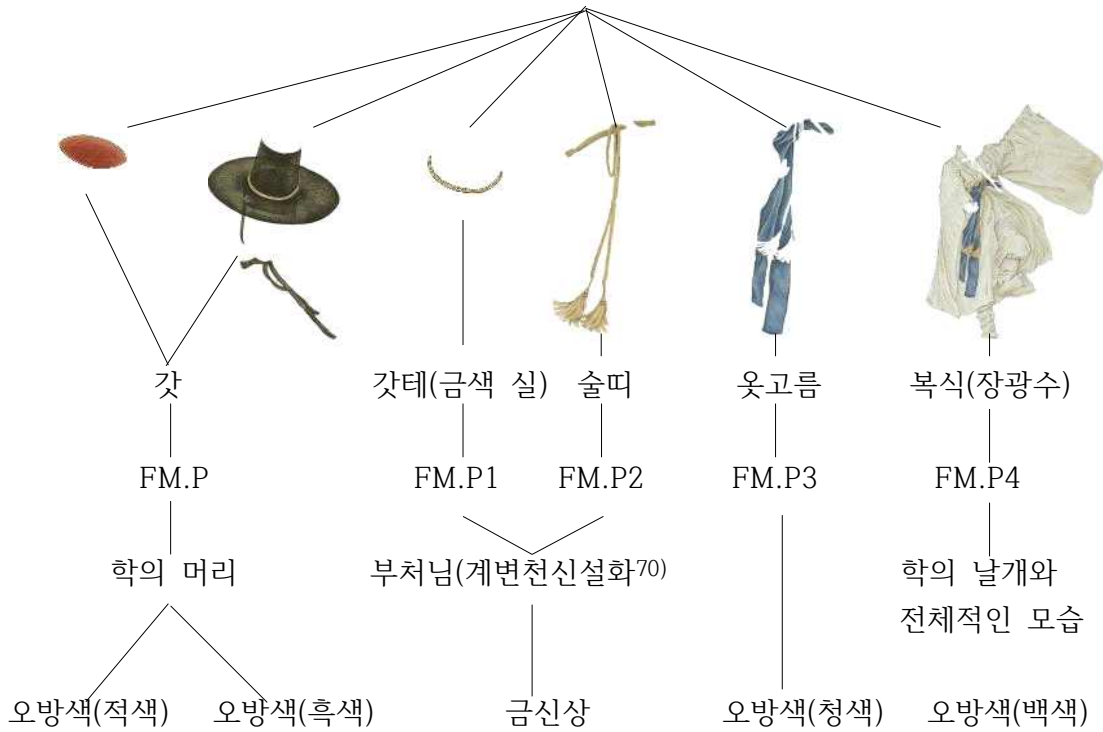


<그림 100> 대대손손 구조분석, 수형도 I. (樹型圖, Tree Diagram)

3-3-3. 인물 세부 수형도(樹型圖, Tree Diagram)



FM. 4대 김성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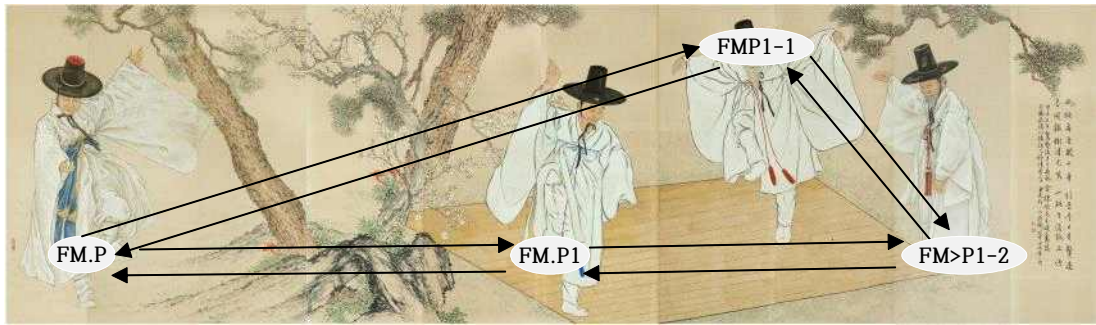


<그림 101> 인물 세부 수형도(樹型圖, Tree Diagram)

70) 김소양, 울산학춤의 생성 배경과 변천, 경북대학교 이학박사학위논문, 2011. p.125.
 김성수의 복식 변화에 대한 면담 내용(2011년 2월 12일). 울산학춤 유래인 계변천신설화에 나오는 부처님을 뜻하는 건데, 계변천신설화에 보면 학이 부처님을 모시는데 입으로 물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 학이 손이 있어 모셔야하는데 손은 날기 때문에 안되고, 다리로 모신다면 그건 말도 안 되기 때문이고, 입으로 문다고 하는 것은 모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슴에 부처님을 모시는 것도 좋은데 그 머리 위에 모시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갓 위에 금테를 하나 두르게 된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10년 이상 된 제자에게만 하고 있지.

3-3-4. 시선의 행로(行路, Passage)분석

4대의 춤사위에서 복식의 방향에 따른 시선행로 흐름을 파악하였다. 두 개의 대각적 시선의 행로는 우에서 좌로 가는 연대순, 시대순, 시간순으로 과거에서 현재의 방향을 제시하는 ‘우종서’는 우리나라 세로쓰기 기술법과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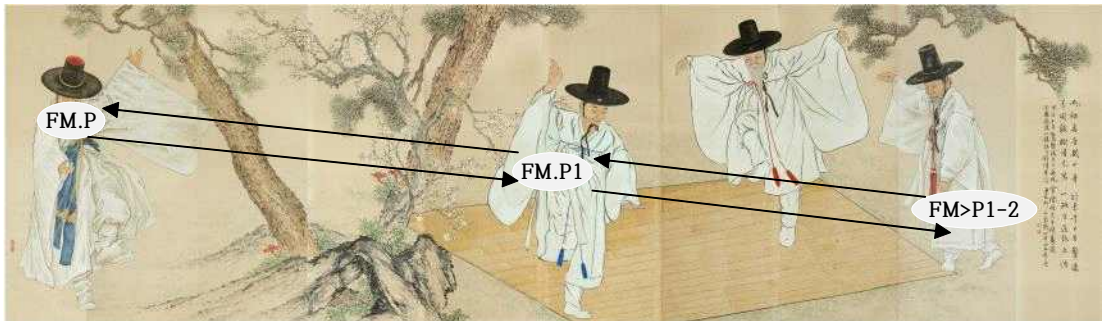
▲삼각적 3지점

▼ 대각적 FM.P ⇄ PM.P1-2



▲집중적 (P축점 응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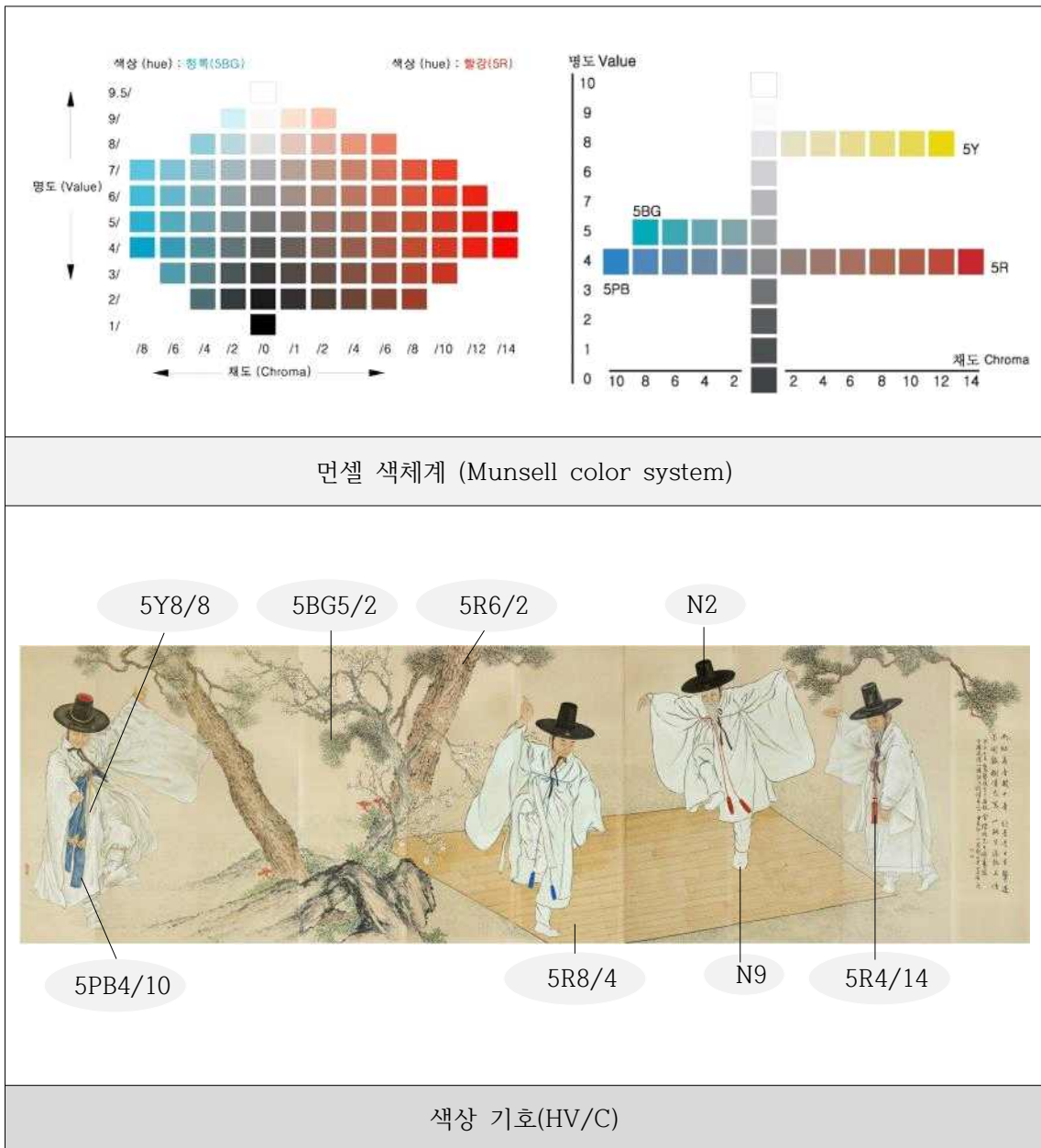
▼ 대각적 FM.P ⇄ PM.P1-2



<그림 102> 시선의 행로 분석도

3-3-5. 색채분석

작품 '대대손손'에 사용된 주요색은 4대와 자연, 사물에서 나타난다. 흰색(N), 노랑(Y), 빨강(R), 청록(BG), 남색(PB), 검정(N)이 사용되었고 고명도와 중명도, 저명도로 채색하는 과정은 한국전통채색화 방식으로 배색하였다. 작품에 사용된 색상을 색채코드를 통해 먼셀(Munsell)의 색체계를 바탕으로 색의 기호를 표기하면 <그림 103>과 같다.



<그림 103> 대대손손, 색상, 명암 분포도

3-3-6. 의미해석

의미해석에 앞서 4대 학춤의 계보자 인물정보를 <표 14>에서 살펴본다.

계보	이름	출생	인물정보	지역
4대	본인 김성수 (金性洙)	1953-	울산학춤 창시자 울산학춤보존회 명예회장 철새홍보 관장 통도사학춤, 양산학춤, 울산학춤 예능자	울산
3대	부 김덕명 (金德明)	1924-2015	경남 지정무형문화재 제3호 한량무 보유자 그림 속 아버지 나이 65세 (학춤, 양반춤, 타령, 살풀이)	경남
2대	조부 김현민 (金顯珉)	1897-1957	통도사를 드나들며 학춤을 추다.	양산
1대	증조부 김두식 (金斗熄)	1843-1930	1976년 문화재관리국 소속 문화재위원들이 조사. 발간한‘양산 사찰학춤’에 증조부 2대 전승 계보자로 올라있는 것으로 전해짐	양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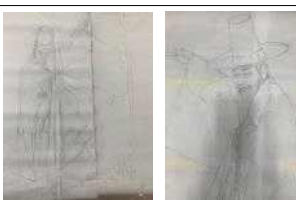


<표 14> 4대 학춤 계보자 인물정보

2대가 그려진 8폭 병풍에 2대를 덧붙여 4대가 함께 학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림 전체를 보면 우측에는 3대(김덕명, 김현민, 김두식)가 삼각형 구도로 춤을 추고 있으며 중앙 좌측에 있는 자연물들을 지나 김성수가 홀로 울산학춤을 추고 있다. 그는 현재 홀로 남아 울산학춤의 창시자로 울산에서 활동 중이다. 4대가 이어온 학춤은 우에서 좌로 가는 시대적 흐름을 나타내며 김성수의 춤의 세계를 지원해주는 장수의 의미를 가진 자연물들이 있다. 김성수와 제자들이 함께 학춤을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표본작품을 완성하였다.

4대째 이어온 학춤을 잇는 길은 자신을 뛰어넘어야 하는 힘든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의지와 예술의 혼을 담으려는 그의 노력은 표본작품의 인물 표정에서 드러난다. 인물을 그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세계를 공감하고 감정이입이 되어야 붓질이 가능한 일이다. 연구자는 김성수가 학과 한 몸이 되어 신명 나게 춤추며 학과 함께 길을 간다는 의미로 그의 복식에 학의 금빛 날갯짓을 더해 표현했다.

3-3-7. 재료 및 표현기법과 제작과정

표본작품 대대손손은 작품 속 인물과 자연물을 관찰해 구상했다. 본을 만들어 한지 위에 초를 뜨고 한국전통채색방식을 거쳤다. 김성수의 소장 작품과 연구자의 작품을 더해 아래 <그림 104>의 제작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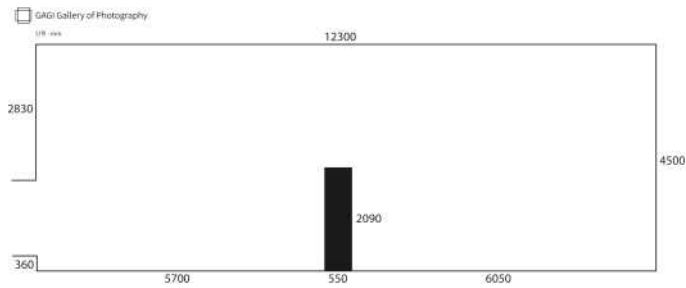
제작순서	이미지	설명	재료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뷰 / 인물탐구 - 연구자의 생각 흐름 인식 - 에스키스 구상하기 	4대 학춤 자료 노트, 연필 녹음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병풍 그림 색 맞추기 (순지 위에 고화색 바인더 포수) 	순지,바인더 치자, 명반 뺨 붓, 먹 물감, 물통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병풍 2대 춤사위와 추가될 2대의 춤사위 행위 검토 후 구상하기 - 트레이싱지 위에 인물 스케치 - 본그림 완성 	사진자료 트레이싱지 연필 지우개 네임펜 고화색종이 면상필 봉채 선필 바인더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임펜으로 따라 그리기) - 면상필로 그리기 (인물과 의복 봉채로 색의 농담 구분하기)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과 사물 고유의 색과 호분(흰색 안료)을 섞어 바탕색 칠하기 	분채, 물감 아교, 먹 백금분 바인더 선필 채색붓 바림붓 휴지 물통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별 색 단계 채색하기 - 바림붓으로 입체감 내기 - 세부묘사 후 작품을 이어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쪽 한쪽 이어진 부분 채색 확인, 마무리하기 	

<그림 104> 대대손손 제작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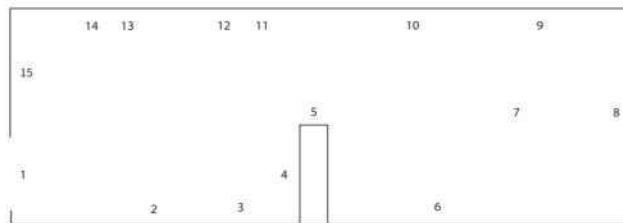
4. 전시 공간 및 종합 비평

4-1. 전시 공간

가기사진갤러리는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187. 2층 문화의 거리 내에 자리 잡고 있다. 한규택 대표는 2016년도에 작업실과 사진 전문갤러리를 오픈했다. 대표는 사진작가로 활동 중이다. 그의 갤러리 공간은 사진작가들을 중심으로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나 2020년 이후 다양한 분야 전문예술인들의 전시와 문화의 거리 내 프로젝트 전시에 다수 참여하였다. 갤러리는 직사각형의 형태에서 중앙에 가벽을 두고 있다. 작품의 흐름에서 가벽 안쪽의 공간에 설치작품을 효과적으로 연출할 수 있어서 선택한 갤러리이다. <그림 105>는 갤러리의 도면으로 학위청구전 작품들을 파악하여 작품 배치에 따른 관람순서와 효율적인 이동 경로를 <그림 106>에서 판단해 볼 수 있었다.



<그림 105> 가기사진갤러리도면. pdf









1. 나르샤 173x54.5cm 실크 위에 패브릭 염료, 먹 2021
2. 봄의 권령 50X60cm 아트지위에 디지털프린팅 2020
3. 신 자리 I, II 33,5x24cm 옥스퍼드, 모시위에 패브릭 염료, 먹, 금분 2021
4. 해가 이마를 비추어 나르샤 79x39cm 비단부채 위에 수간분채, 금분, 제색점시, 도포 피, 에스키스, 설치 2021
5. 사유 67x19cm 순지위에 수간분채 2021
6. 대대손손(代代孫孫) 10폭 병풍 117.5X407cm 지분채색, 은분 2020
7. 학출 복식 126X152cm 실크위에 패브릭 염료, 먹, 금분, 설치 / 전통갓 42X42cm 옥스퍼드 2021
8. 십장생 10폭 병풍 139x336cm 순지위에 수간분채, 금분 2019
9. 물건에 마음을 담다. 58x61cm 순지위에 수간분채, 먹, 금분, 은분 2021
10. 학의 무리 68X82cm 순지위에 수간분채, 금분 2020
11. 문자도 74X55.5cm 타피스트리 사각 틀, 실크위에 수간분채, 실, 순지 2021
12. 화별도 55,5X74cm 타피스트리 사각 틀, 실크위에 수간분채, 실, 순지 2021
13. 봄의 전령 스카프 180x55cm 실크 위에 반응성 염료 2020
14. 색동 브로치 I 24X17.5cm, II 24X8cm 폴리에스테르, 솜, 실, 설치 2021
15. 생각대로 나르샤 87x95x100cm 모시위에 패브릭 염료, 먹, 금분, 폴리에스테르, 가변설치 2021

물 사운드 - 오디오 편집

<그림 106> Exhibition Layout

4-1-1. 전시장 작품설치 과정

디스플레이 측면에서 섬유 작품은 타피스트리트 사각 틀과 선반, 대나무, 와이어 줄, 실을 활용하여 가변 설치하고 평면작품은 전시 벽에 걸어두었다. 갤러리 입구에 설치된 섬유 작품을 시작으로 한국화 작품을 감상한 뒤, 섬유 작품으로 다시 이어지는 흐름을 시각적으로 연출하였고 갤러리 내 음향(물소리)의 사용은 청각과 시각적 이미지들의 동시에 관람객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작품의 의도에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십장생 병풍을 배경으로 한 설치작품 ‘학춤 복식’은 전시장 중앙에 배치하였고 학이 날아오르는 날갯짓을 표현하기 위해 도포 옷의 양쪽 소매를 펼쳐 설치하였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전시장 내부에 작품 캡션(caption)은 넣지 않았다. 전시장 작품설치 과정은 <그림 107>과 같다.

	
<p>작품 위치 선정과 설치작품 내용물</p>	
	
<p>전시장 내 작품 위치 확인</p>	<p>작품 설치 과정</p>
	
<p>작품 전체적으로 체크</p>	<p>작품의 포인트를 찾아 조명의 높낮이 조절</p>

<그림 107> 전시장 디스플레이(display) 과정

4-1-2. 전시 서문 및 논평의 개요

갤러리 내부 우측에는 지도교수와 연구자의 본 청구전에 대한 전시 서문을 먼저 만나게 된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학의 귀환

-神鶴의 歸還 , The Return of the Holy Crane-

김언영은 빛의 작가다. 이름에서부터 그렇다. 빛나는 정금(正金, Pure Gold)의, 덕이 있고 훌륭한 선비(彦)이다. 선비는 모름지기 진리의 빛을 추구하는 자이다. 영예와 영광의 영(榮)에는 두 개의 쌍불꽃 등불(炷 ; 등불 형)이 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밝힌다.

울산은 물의 나라이다. 두루미(학;鶴)는 물새이다. 물의 나라 울산은 두루미의 낙원이자, 두루미는 옳지 않고 바르지 않은 것들을 쫓아내는, 벽사(辟邪)의 퇴마새(退魔鳥)이다. 신학(神鶴, Holy Crane)이다. 신화와 전설의 지명 안에서 박제가 되어 갇혀버린 - 저 눈부신 두루미의 환생과 귀환을 고대한다.

울산대학교 대학원 텍스타일패션디자인전공
지도교수 미술학박사 김언영

나르샤

-腾飞 , Narsha

나르샤는 순수 한글로 '날아오르다'를 의미한다.

작품의 흐름을 주도하는 소재는 '학'과 '나'로 학이 지닌 여러 상징성과 예로부터 내려오는 신성한 기운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기대와 바람을 품고 이어져 오고 있다.

시간과 사유는 섬유를 통해 스며들었고, 바람과 전승은 섬유를 통해 펼쳐지고 날아오른다. 현재 주 작업 무대인 울산에서 학과 인연이 닿아 섬유 위에 전통회화 표현기법을 활용하여 먹의 농담과 채색의 상징으로 날아오르는 학의 금빛 날갯짓에 희망을 담았다.

울산대학교 대학원 텍스타일패션디자인학과
조교 지원 김언영

다음은 본 청구전의 논평의 개요이다. 전 대구미술관장, 울산광역시 문화정책보좌관, 조형예술학 최승훈 박사와 조류생태학 박사, 철재홍보관 관장, 울산학춤보존회 명예회장 김성수를 통해 한국의 학 문화와 울산학춤을 연구한 학위청구전의 작품들에 대한 시선과 평론가의 입장에서 비평을 듣고자 한다. 먼저 최승훈의 비평에 이어 울산제일일보 김성수의 칼럼을 살펴보겠다.

김언영 작업의 여정

‘이음’과 ‘있음’

『작품은 의미망(意味網)을 갖춘다. 우리는 그걸 이해하기 위해 분석과 해석을 하게 된다.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만큼 풍부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정답을 찾으려 하다 보면 속단에 빠질 위험도 있다. 서사적 구성의 작품들, 개념적 작품들, 감성에 몰입하는 작품들, 무의식을 적극 수용하는 작품들 등 여러 범주로 나눌 수 있지만, 한 작가의 작품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범주가 중첩되는 경우도 있다.

연어진 의미망의 열개도 접근 수단(tool)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김언영의 작품을 해석하면서 언급하는 ‘이음’이라는 개념도 매우 유연한 사고로 보면 좋겠다.

데페이즈망(dépaysement), 아상블라주(assemblage), 콜라주(collage), 컴바인 페인팅(combine painting), 패러디(parody) 등에도 ‘이음’의 개념을 연관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대개의 작품들에 모두 이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지만, ‘이음’의 방식은 작가의 수 만큼이나 다양하다. 작가마다 고유한 방식을 보이며, 또한 작가가 이런 접근 시도에 대하여 반드시 인식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이 글을 쓴다.』

그림을 업으로 하는 생활을 흔히들 우아하게만 생각하지만, 전문적으로 예술계에 몸담고 있는 작가들의 실제적 삶은 많은 어려움으로 점철되어 있다. 작가들은 단지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여러 가지 정신적 어려움을 이겨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그리고 한편 그 어려움은 작가의 깊은 고뇌로 이어지고 그의 예술세계에 영향을 드리운다. 따라서 모든 어려움은 예술활동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작가의 삶 속에 융해되고 반응하며 또 다른 새로운 사고를 배태(胚胎)하게 한다.

그리고 보니 참으로 힘들게 살다 간 작가들이 많다. 37세로 생을 마감한 고희를 비롯하여 장애의 몸으로 물랭루즈를 드나들던 로트렉, 술과 마약 중독으로 파리의 자선병원에서 숨을 거둔 모딜리아니, 나치의 위협 속에 망명길에 올랐던 바우하우스 작가들, 스탈린의 탄압으로 괴로워했던 말레비치, 헤어진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외롭게 죽어간

이중섭, 27세에 타계한 모더니즘 문학의 창시자 이상, 한평생 일본화풍 문제로 마음 고생했던 박생광 등등 기구하게 살다 간 많은 작가들이 있다. 저마다 처한 상황과 이유는 달랐지만 예술가들은 힘든 시간을 겪어 왔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그들을 더욱 그들답게 만들었다. 비록 그들은 힘듦을 짊어지고 살아나갔지만 찬란한 결과를 우리에게 남겨 주었다. 이렇듯 범인(凡人)이 넘을 수 없는 예술가들의 치열한 삶의 깊이는 그 어려움의 무게에 비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김언영도 예외일 수 없다. 개인적인 일이라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는 많은 충격과 슬픔을 겪어 왔다. IMF 외환위기로 빚어진 갑작스런 경제적 몰락과 궁핍의 고통,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좌절감은 자라나는 김언영에게 뜻밖의 충격이었고, 안이하게만 살고 있던 그를 성숙한 사고로 이끌고 세상에 대해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무렵 그의 의식이 가닿은 문제는 ‘욕망’과 ‘가치’, 그리고 그가 추구해야 할 ‘삶’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겪은 다사다난한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쳤다. 많은 충격은 각자 나름의 여과 과정을 거쳐 부지불식 간에 심층세계에 스미게 되어 있다. 잘 알고 있듯이 IMF 외환위기 때는 나라 경제가 뒤흔들리는 가운데 많은 가정이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파탄이 났다. 그래도 거국적인 나라살리기 운동으로 경제를 회복시켰듯이 국민 개개인들도 긍정적 자세로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자신의 처지와 문제들을 극복하려 했다. 필자는 이와 유사한 강인한 모습을 김언영이 지나 온 삶의 여정에서 발견한다.

어려운 상황 속에 함몰되어 버리는 문약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곳곳한 목소리를 내는 진취적 모습, 이것이 진정한 예술가가 지녀야 할 덕목이 아닐까.

김언영은 결혼과 육아로 소원했던 작품활동을 재개하였다. 즉 이전에 진행하여 왔던 활동을 새로운 방향으로 다시 잇고 있는 것이다. 과거를 잇고 지금부터 다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체험과 축적된 기억을 지금 이어서 활동해 나가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그리고 동양화에서 섬유디자인으로 영역을 잇는 대단한 결단을 보여 준다. 이 점 역시 이전의 전공을 버리고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두 세계를 ‘잇는’ 것이다. 사실 오늘날 동시대 예술에서 영역의 경계가 유연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과(科) 단위로 나뉘어 있는 대학 내에서는 순수예술(fine art)과 응용예술(applied art) 영역 사이를 넘나들기에는 여전히 담이 높은 듯하다. 그런 측면에서 김언영의 행보는 매우 자신감에 차 있으며 실험적이고 도전적이라 할 것이다.

김언영이 스스로의 '삶'과 '존재'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보이는 것은 전통적 가치를 찾아 그것을 자신의 삶에 투영하고 '이으려고' 하는 점이다. 그런 과정에서 그는 민화에 주목하였고 또 운 좋게도 적시(適時)에 울산학춤의 김성수를 만나게 된 것이다. 김성수는 울산학춤의 창시자로서 우리나라의 소중한 인적 자산이다.

김언영이 제작한 10폭 병풍은 증조부, 조부, 부친 그리고 김성수 대까지 총 4대에 걸친 학춤 시연 장면을 보여 준 것이다. 이는 시공간(時空間)을 뛰어넘어 한자리에 모으는 '이음'의 연장이다. 그리고 동시에 '있음', 즉 존재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미술학(美術學) 학도로서 김언영은 스스로 세밀하게 작품을 분석하고 의미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작품으로 가시화하는 데 필요한 논리, 즉 작품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필경 이 방법론은 갈수록 더욱 풍부해지고 다듬어질 것이지만, 그 기저에 전개되고 있는 것은 '이음'과 '있음'이라는 철학적 명제로 접근할 수 있다.

김언영에게 창작 민화는 '이음'과 '있음', 이 두 개념을 성취하는 영역이다. 민화 연구에서 비롯된 작품들은 이 점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조선시대 민화의 요소를 차용하여 자신의 창작으로 연결시키는 점에 있다. 급기야는 화면에 작가 자신을 등장시킴으로써 '있음'을 각인시킨다.

민화의 주요한 요소로 기능과 색채, 형태, 소재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벽사(辟邪)' 기능은 김언영이 의식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그가 희구하는 미래의 풍요로움과 환희, 안위에 연결된다. 또한 이러한 바람은 관념으로가 아닌 자신의 실제적 삶 속에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오늘날의 '예술' 개념과는 다른, 생활 공간 속에서 쓰이던 그림인 민화는 고대 민간 신앙이라는 정신적 배경도 그러하지만 전통적 주거 환경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용도에 따라 늘 같은 유형이 반복 제작되었고 또 시간이 흘러 남아지면 새 그림이 옛 그림 위에 덧붙여지는 식의 생활품이었기에 무수히 반복되는 형식에 의한 '익명성'이 민화의 특질이 되었다. 그러나 전통 민화의 단순 재현이 아닌 현대 회화로서 김언영의 민화풍 그림은 '창작품'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잠시 민화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 조선말 상황을 살펴보면, 사회가 피폐해진 가운데, 이농(離農) 현상이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그 당시 살기 위해 농토를 떠나 신흥 상업도시로 향해야 했던 농민들, 농사 밖에 몰랐던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장터에서 눈에 익은 그림들을 흉내내어 그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민화를 체계적으로 학습한 바 없었기 때문에 화법과 형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다. 즉 흥성이 나타나고, 각 민화의 형식들은 서로 섞이기도 하였다. 이를 민화에 대한 식견이 있었던 화공의 눈으로 보면 무지한 현상이고 민화 형식의 와해라고 하겠지만,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새로운 그림, 자신의 뜻에 따라 마음대로 그려지는 창작이 이루어지는 태동기였다. 초충도와 어해도(魚蟹圖)가 섞이고 화조도와 호작도(虎鵲圖)가 섞이고 문자도, 책가도 등이 섞인 그림들이 나타난 것이다. 그토록 중요한 시간이었으나, 통탄스럽게도 이내 곧 들이닥친 일제 강점기에 의해 새로운 변화의 기회는 묻혀버리고 장터 민화는 하찮게 망각되고 만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해방 후에도 한동안 문인화 중심의 사관(史觀)에 의해 제대로 그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였으나 오늘날 김언영과 같은 패기 넘치는 작가에 의해 민화가 현대 창작품으로 새롭게 등장함은 한국 미술의 앞날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글. 최승훈 (조형예술학 박사, 전 대구미술관장)

김언영의 ‘학의 금빛 날갯짓-나르샤’ - 울산제일일보 김성수 칼럼.

울산은 두루미라 부르는 학(鶴)이 유명한 지역이었다. 회학, 비학, 삼학촌, 무학산 등 지명에서 추정할 수 있다. 태화강을 비롯해 동천, 서천, 내황, 외황, 회야 등 여러 개의 강이 발달한 영향이 컸다. 강은 하류에 거대한 습지 환경을 만들었고, 그런 환경을 서식지로 찾는 물새들은 자연적이었다.

물새 중의 으뜸은 학이다. 고려 전기부터 ‘학성(鶴城)’이란 지명이 울산의 별호(別號)로 생긴 것은 강이 만든 습지 때문이었다. 현재의 발전된 환경에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지만.

‘계변 천신’ 이야기는 쌍학(雙鶴) 설화에서 시작된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 천성산(千聖山)에 있는 운흥사(雲興寺) 운흥동천(雲興洞天)에는 학을 부른다는 의미를 담은 환학교(喚鶴橋)가 있었다. 언양 대곡 집청정 앞 대곡천 반구암(盤龜巖)에는 운암(雲巖) 최신기(崔信基, 1673~1737)의 작품 학소대(鶴巢臺)가 있다. 눌제(訥齊) 곽전(郭?, 1837~1911)은 이 그림을 보고 ‘학소대’란 시(詩)를 남겼다.

필자가 소장한 8폭 병풍에는 양산학춤으로 4대를 이어온 가계에서 2, 3대가 춤추는 장면이 담겨있다. 1984년 국제(菊齊) 이종득(李鐘得)이 선친에게 선물로 준 것으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울산문화원(현 남구문화원) 원장실에 펼쳐져 있었다.

1991년에 개관한 ‘이천 시립 월전미술관’은 월전(月田) 장우성(張遇聖, 1912~2005) 화백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설립됐다. 미술관의 콘셉트는 ‘음과 양의 공간’, ‘달의 공간’, ‘비상하는 학(鶴)의 공간’이다. 특히 ‘비상하는 학의 공간’은 설봉공원에서 미술관 본관으로 들어가는 이미지를 학의 비상하는 날갯짓으로 표현했다. 미술관으로 이어지는 진입로는 일명 ‘물의 다리’로 마치 학의 다리를 떠올리게 한다.

2017년, 문화체험공간으로 문을 연 울산 남구 태화강변의 ‘태화강 동굴피아’ 광장에는 조형물 ‘황금의 학’ 한 쌍이 두 날개를 활짝 펴서 우쭈우쭈 춤을 추고 있다. 학의 날갯짓은 샅된 것을 물리치고 좋은 일을 불러들이는 벽사진경의 행동이다. 학은 도심 속 생태 학습장의 주인공이다.

김언영 작가는 2021년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가기 사진갤러리에서 제11회 개인전 <나르샤>를 열었다. ‘나르샤’는 ‘날아오르다’를 뜻하는 순수한글로 ‘학’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다. 그는 울산예술고등학교 1회 졸업생으로, 대구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10회의 개인전과 초대 개인전, 150여 회의 단체전과 기획전의 경력이 있다. 이번 전시회는 울산대학교 미술학부 텍스타일패션디자인학과 석사학위 청구전을 겸했다. 작가는 김언배(텍스타일패션디자인 전공) 지도교수의 소개로 필자와 소통하게 됐다.

이번 김 작가 전시회의 대표 작품 ‘대대손손(代代孫孫=대대로 이어 내려오는 자손)’은 양산학춤으로 4대를 이어온 가계 그림이 그 바탕이다. 38년 전 2, 3대가 춤추는 장면이 그려진 바탕에 1대(증조부)와 4대(김성수)를 더해 시대를 덧입혔다. 늙은 소나무 배경에 이어 본래 있었던 그림처럼 연결했으나, 인물의 묘사와 옷자락의 필치는 기존의 것보다 훨씬 섬세하다. 자세히 보면 양쪽 소맷자락에 학의 깃털이 표현돼 있다. 4대는 1~3대보다 세련된 의상으로 시대성을 부각하고 있다.

그는 대대손손이란 작품의 구상과 완성은 지도교수가 늘 지닌 생각 ‘지역 문화유산의 세계화 전략’ 강의를 통해 완성된 작품이라 귀땀했다. 덧붙여 울산 토박이이면서도 학과 인연이 늦은 이유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학이 지닌 여러 상징성과 신성한 기운을 현대에 활용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특히 ‘울산학춤’을 좋아하는 그는 현재 중구 태화동에서 ‘지원채색화원’을 운영하고 있다. 필자는 김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했다. 노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이면서 김언영 작가를 응원한다.

글. 김성수 조류생태학 박사·철새홍보관 관장·울산학춤보존회 명예회장

4-1-3. 전시장 전경 및 작품전시 풍경

전시명 : 나르샤 【울산대학교 대학원 텍스타일디자인학과 석사학위 청구전】
전시기간 : 2021. 7. 21 ~ 7. 25 / 오전 12시 ~ 오후 7시(매주 월요일 휴관)
장 소 : 가기사진갤러리 /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187. 2층

전시 공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기사진갤러리는 울산 성남동 문화의 거리 내에 위치한다. 갤러리 대표는 본 청구전에서 작품사진 촬영, 연구자의 인물사진, 엽서와 도록 디자인을 맡아 진행하였다. '나르샤'의 전시 홍보와 신문기사, SNS를 활용하여 관람자들에게 전시 소식을 전했다. 가기사진갤러리 건물 입구 현수막 <그림 108>과 갤러리 2층 전시장 입구 <그림 109>이다.



<그림 108> 성남동 가기사진갤러리 입구
현수막 이미지



<그림 109> 가기사진갤러리 2층 입구

갤러리 입구에서 보이는 표본작품 '나르샤 I,II'를 지나면 갤러리의 내부로 들어간다.

<그림 110>, <그림 111>, <그림 112>에서 전시장 내부와 전시 서문을 볼 수 있고 가벽을 지나면 가변 설치한 작품과 전시장 전경이 보인다.



<그림 110> 전시장 내부사진



<그림 111> 전시 서문



<그림 112> 전시장 작품 가변설치 후 전경



4-1-4. 전시장 내부 행위예술

표본작품 대대손손의 주인공이자 울산학춤의 창시자인 김성수와 그의 제자 김영미의 퍼포먼스이다. 본 청구전의 피날레로 김성수와 김영미는 설치된 복식과 한복을 이은 줄을 끊고 관람객들 앞에서 학이 구애하는 모습의 춤 <그림 113>과 살풀이춤 <그림 114>을 추었다.



<그림 113> 출연 : 울산학춤보존회 김성수 고문 2021.7.25.



<그림 114> 출연 : 울산학춤 계승자, 무용인 김영미 2021.7.25.

IV. 결론

한국의 전통문화 사상에서 학 문화가 바탕이 된 울산학춤과 연구자의 금빛 날갯짓 연작을 중심으로 연구하기 위해 시대적 배경 및 정황을 살펴보고 이미지들을 검토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I. 장에서는 연구 작품의 분석과 해석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연구의 내용과 방법 측면에서는 학위청구전 출품작 중 분석 대상 표본작품을 선정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분석과 해석 방법은 문헌 연구를 통하여 수행하였다.

II. 장에서는 학과 전통문화에 대한 동양의 사상을 고찰해보고 울산의 학 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의 학 문화에 관한 개요를 살펴본다. 울산학춤과 관련한 조형물, 문화유산, 문헌 등에 나타난 관련 이미지를 연구하고 이를 통한 연구자의 심상이 작품으로 반영되기까지의 모색 과정을 탐구한다. 이 절차는 III.장의 본문에서 집중되어 검토될 작품과 관련한 필수 연구로서 중요한 의미를 도출시킨다.

III. 장에서는 표본작품의 구조분석과 의미해석을 위해 연구자의 연보를 중심으로 작품들을 열거하였다.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따른 연구자의 정서가 반영된 작품을 심층 분석하고 도출된 내용을 해석한다. 학위청구전에서 발표한 총 15점의 작품 중 3점을 표본작품으로 선정하여 울산의 학 문화에 대한 지역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문헌 검토와 문화예술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연구자의 정서가 담긴 표본작품과 울산의 학 문화는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는 표본작품의 구조분석에서 수형도의 참고자료를 구분하고 분류해 구체화함으로써 대상의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었다. 표본작품의 전체적인 형식과 그에 따른 분석 결과는 연구자의 내·외적인 의도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구조분석의 구체적인 형태와 의미 구조의 상황들은 주제에 대한 작품의 색과 상징성, 의미를 확장하는 연구의 주요 과정을 통한다. 전통사상에서 비롯된 학 문화는 길상의 의미를 둔 학을 바라보며 공명함에 있다. 본 연구는 학 문화와 울산학춤이 갖는 전통적 의미와 그 바탕이 된 문화예술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기록하는 과정에 그 목적을 두며 이와 같은 절차의 수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형식적 측면

본 논문의 주제에서 한지와 섬유의 소재를 활용하여 한국화 기법과 디지털 프린팅, 실, 타피스트리 틀, 소품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표현 방법을 연구, 시도하며 평면에서 입체로 가변 설치하였다. 발표작품들의 특성에 따라 자유로운 형태로 전환되는 구조로 연계하였다.

내용적 측면

학 관련 문화유산과 문헌, 설화 등을 통해 학은 사람들에게 시대적인 상징성을 내포하고 동경의 대상으로 여겨져 예로부터 학과 자연을 벗하고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는 한국의 학 문화를 통한 울산의 학 문화를 문헌 연구하면서 학의 상징성이 가지는 조형성, 의미론적 대상성을 학의 날갯짓에서 찾았다. 연구자의 창작 작품 ‘나르샤 I,II’는 연구자의 심상과 다수 동일시되었으며 학을 소재로 한 다양한 이미지 공간 연출에 완성도를 높였다. 연구자의 양가감정은 학의 금빛 날갯짓으로 승화되어 희망과 빛을 찾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자의 심상이 제작과정에 깊이 투영되어 심리적 안정과 정서를 담은 자연스러운 결과물로 이어졌다.

시선행로 측면

표본작품의 시선의 행로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향하며 연구자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표본작품 ‘대대손손’은 우종서의 시선방향으로 4대가 이어지는 학춤의 시대적 흐름을 나타내었다.

색채와 상징성 측면

학의 고유한 미감과 주관적인 색채를 반영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비상하는 사실적 학의 모습에서 이상적인 색채를 더해 연구자의 심상을 풀어내고자 하였다. 학의 날갯짓에서 파장을 일으키는 연상 작용에서의 금빛은 구상과 추상으로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울산학춤의 복식은 계변천신 설화에 등장하는 금신상(金身像)을 상징하며 금색과 오방색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에게 금빛은 심화로 희망과 빛을 의미하는데 희망은 동양의 정서를 반영한 이상향을, 빛은 길상을 불러들이는 벽사의 의미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듯 울산학춤은 색채에 의미를 담아 부귀영화와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 문화를 통해 알아본 울산학춤과 연구자의 연구는 색채와 상징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술적 의미를 가지며 전통성에서 문화·예술적 가치로 이어지는 매개체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표현기법과 재료적 측면

학위청구전에서 선정된 표본작품의 구조분석과 의미해석에 있어서, 재료는 중점적 역할을 한다. 연구자는 주제에 대한 표현력과 색채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한지와 실크 소재를 재료로 선택하였고 염료와 붓을 사용한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연상 작용에 맞는 회화적인 표현에 적절한 것으로 연구자는 이번 시도를 통해 주제에 의한 현대적 표현방식의 다양한 관점과 재료 연구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연구자는 표본작품의 상징성을 이해하고 공명을 이룬 상태에서 자신만의 직관적 형태로 재탄생하는 과정에서 자유를 느꼈다. 그 자유는 연구자의 삶에 투영되어 작품과 연장선에 있음을 깨닫는다. 학이 연구자와 동일시되는 과정은 창작과정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문헌과 문화유산을 통해 옛사람들의 심상과 마주한다는 것은 자아를 찾아가는 길이다. 치유와 바람에서 오는 긍정의 마음을 그리는 것이기에 곡선의 삶이 연상되었는데 연구자의 작품은 심학과 심화가 어우러진 유려한 삶의 일부가 되었다. 자아성찰의 과정과 심학의 단계를 거쳐 체계화된 연구자의 작품세계는 더욱 폭넓게 실현될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 학 문화의 전통문화 사상을 통한 울산학춤과 연구자의 금빛 날갯짓 연작에 관한 작품을 연구하고 이를 분석해나가는 과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통사상과 역사적 관점이 다양한 시선으로 연구되고 문화와 예술, 그리고 매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고찰된다면 전통사상이 기반이 된 현대의 창작 작품이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되어 세계적 문화·예술 활동으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 이는 바로 지역 고유의 특성이 살아있는 한국 전통 문화의 정체성이 문화적 글로벌리즘(Glocalism)으로 확장되어가는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시도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고광준, 『43년 작품의 시간, 마이웨이My way』, 서울 : 월간민화/(주)디자인맘, 2018.
- 김성수, 『양상학춤 연구』, 울산 : 한지 디자인, 2006.
- 김성수, 『사찰학춤 연구』, 서울 : 도서출판 한림원, 2003.
- 김종대, 『33가지 동물로 본 우리문화의 상징세계』, 서울 : 도서출판 다른세상, 2001.
- 대리어스 A, 몬세프 4세(Darius A. Monsef, IV) 저, 조순익 역, 『색, 영감을 얻다.』
서울 : 시공문화사, 1993.
- 배성환, 『두루미』, 서울 : 도서출판 다른세상, 2000.
- 백낙선, 『마음으로 읽는 색채심리』, 서울 : 미진사, 2010.
- 오세권, 『현대 한국화의 표현과 흐름』, 서울 : 도서출판 신원, 2016.
- 에바 헬러 저, 문은배 역, 『색의 유혹I, 2』, 서울 : 예담출판사, 1999.
- 정범태, 『金德明-양산 사찰학춤』, 서울 : 열화당, 1992.
- 한국색채연구소, 『한국표준 색표집』, 1991.

학위논문

- 김성자, 〈복잡계 네트워크 이미지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김소양, 〈울산학춤의 생성 배경과 변천〉, 경북대학교 이학박사학위논문, 2011.
- 김언배, 〈朝鮮朝 텍스타일 패턴의 구성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 김해연, 〈김환기 작품 조형성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8.
- 손나영, 〈평화를 주제로 한 섬유 작품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9.
- 이윤아, 〈물질과 정신이 만나는 내면세계를 통한 사유공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 조철수, 〈현대미술의 자기 유사성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20.
- 조희은, 〈선형구조의 시간 운동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0.
- 진은정, 〈예술가의 창작과 일상 탐구가 시사하는 미술교육의 인문학적 접근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7.

학술 저널

- 김용현, 〈앙리 미쇼의 전기와 후기 시에 나타나는 글쓰기의 연속성〉, 서울대학교 불어문화권
연구소, 불어문화권연구, 2012.

사전 및 잡지류

박연선, 《색채용어사전》, 예림, 2007.

월간문화재 기획특집 《동물의 왕국》, 봄.여름호 Vol.405. 2021.

월간민화 8월호, 《작가 에세이 ASSAY》, 월간민화, 2018.

웹 기사

경상일보, 『김성수의 학(鶴)이야기』의 몸짓과 불교 사상 융화시켜 춤 생성』 2010.

울산제일일보, 『김언영의 ‘학의 금빛 날갯짓-나르샤’』 김성수 칼럼, 2021.

웹 사이트

(네이버, 문수축구경기장 홈페이지 검색)

http://munsu.uimc.or.kr/football/football01_2.php

(네이버 지도 홈, 거리뷰, 학성공원 검색)

<https://blog.naver.com/dudhkdql/221007354154>

(네이버 지식백과, 향토문화전자대전 학성교(鶴城橋) 검색)

<https://news.kbs.co.kr/news/>

(네이버 지식백과, 일본 학 검색)

<https://namu.wiki/w/은혜%20갯은%20두루미>

(네이버, 화수도(花樹圖) 검색)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505039>

웹 동영상 제작

나르샤_지원 김언영 석사학위 청구전 (영상시간 12:02)

‘대대손손’작업과정 (영상시간 9:30)

(블로그) <https://blog.naver.com/skyloart36>

(유튜브) <https://youtube.com/channel/UC2fiq29TFkQIH3HVwTlXxPQ>

(인스타그램) kim_aun_young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4143968237>

외국문헌

Dordrecht:Holland / Boston:U.S.A, Natural Language & Linguistic Theory),
D.Reidel Publishing Company, 1984.

Robert Layton, 〈The Anthropology of Art〉,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81.

ABSTRACT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rane Culture in Korea

-Based on Ulsan Crane Dance and Kim Eon-young's series of 'Golden Wings'-

Kim, Eon-Young

Dept. of Textile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Advised by Prof. Kim, Eon-Bae

Following the traditional cultural idea of Korean academic culture, this study aims to focus on the series of gold wings of Ulsan academic dance and researcher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the symbolism of cranes was projected into our lives and to find out what kind of lives we wanted to live in the minds of old people who shared emotional interaction with academics based on the folklore and literature of crane culture. In addition, in dealing with the direction, philosophical, and artistic reflection of the researcher's future work, we intend to find the direction and significance to move forward through the study of traditional object selection and expression techniques.

Ulsan is a town of cranes. A large stream of water flows, including the Taehwagang National Garden. The Samsan area also lived as a wetland in the past, and was also called "Hakseong" in the novel story of Gyebyeoncheon Stream in Ulsan. Studies also appeared as the object of sculptures installed in Ulsan, and academic cultural heritages were found in the literature. Based on this, the creation and enjoyment of cultural and artistic works under the theme of crane has been developed by a small number of cultural artists to this day. The researcher lived in Ulsan and did not know that Ulsan was a city of crane, but met Kim Sung-soo, the founder of Ulsan crane dance, and began to work on a folding screen of "great-grandson" considering the value of crane dance that has been passed on for four generations. They naturally became interested in cranes by examining the movements of cranes and considering whether they were

expressed as "hakdance," and chose them as the subject of this paper because they were attracted to the flapping of cranes. Among the contents of Ulsan Hakchum, the researcher finds common ground in the common symbolism that connects the past and the present and leads to the process of creating it through reinterpretation. First, I would like to study in the order of identifying the first format and structural symbolism of material research. In order to understand the format of the work, the entire structure was dismantled, specific meanings were analyzed, and a tree diagram was created by examining the situations of the morphological semantic structure. As for the materials, I would like to understand how the work was structured by understanding the types and properties of pigments on Korean paper and fibers and applying Koreanization techniques. The symbolism of color in the appearance of crane is identified by researchers and Ulsan crane dance costumes and compared and analyzed based on literature.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meaning, the structural meanings appearing in the work are centered on the researcher's sample works, but based on the stories and literature of the symbolism and meanings of color, we intend to record messages of internal and external meanings.

The analysis results value the hard work of artists working on the theme of Ulsan's crane, which has locality in Korean academic culture and traditional cultural thought, to the present. In a situation where cranes cannot be seen in Ulsan, studying this paper has no choice but to consider cranes as objects of admiration, just like those in the past. In order to sublimate the unique academic culture of Ulsan into a work of art, it was found that it was suggested through the work presented before the degree claim. I think works that can promote the future can be expressed as metaphors by closely connecting and communicating the researcher's life, past and future, and nature and state parts.